

성보 재현하는 나우회(懶牛會)
불교미술 전승으로 회향…
"성보 없으면 불교문화 없어"
A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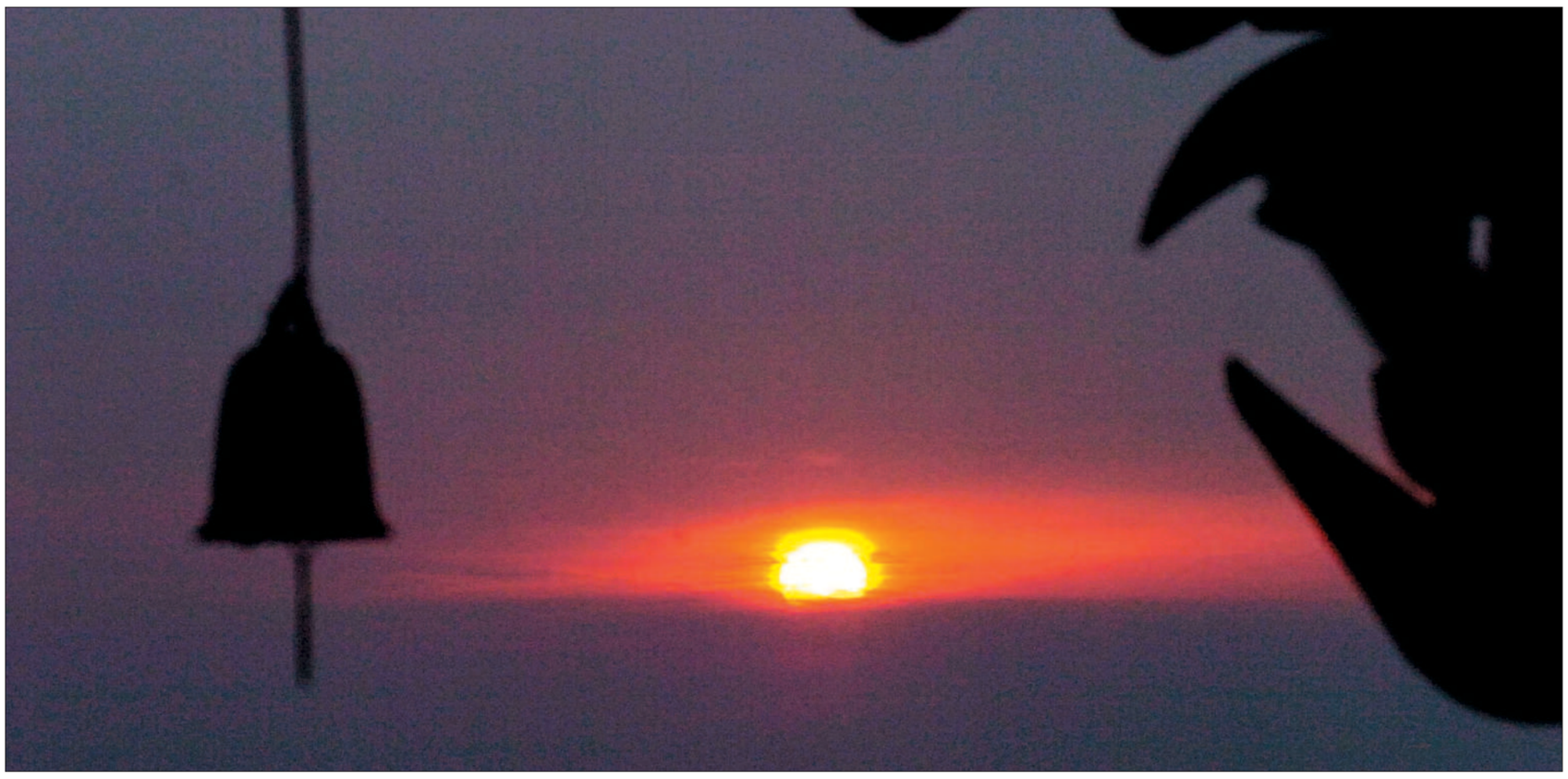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2일) · 주간

제1077호 2016년 1월 1일 금요일

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만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하지 말라.

처마 풍경에 새로운 햇살 깃드니 부처님 '자비 광명' 빛난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모습의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아침이 밝았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늘 우리는 원숭이보다 1분 1초가 고단하기만 하다. 미륵불 오시는 불국정토의 시간이 오기까지 56억 7천만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을 지도 모르는 그 만큼의 세월. 그 오랜 세월 중에 짧은 한 해를 또 맞는다. 저 남녘 끝 부처님 도량 여수 향일암에도 또 새로운 햇살이 깃든다. 글 · 사진= 김주일 기자

커버스토리

불교, '和諍' 사회적 구현위해 뛴다

불교계가 2016년 '화쟁(和諍)사상' 의 사회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 사태 중재에 나서며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화쟁위는 한 위원장 퇴거 후에도 사회갈등요소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화쟁 정신의 사회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화쟁위는 2016년 핵심목표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화쟁사상 보급과 확산' 으로 삼고, △범종교 · 범시민사회계 연대 △화쟁전문가 양성 △갈등해결을 위한 화쟁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쟁(和諍)' 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며, 화쟁위가 중재기구로서 어떤 차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결돼야하는 이유다.

화쟁적 중재 역량 강화책 모색

화쟁위는 올 한해 확고한 중재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 사태를 중재하며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해 대사회적 중재기구로서 역량을 갖추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화쟁위는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 자진 퇴거를 이끌어냈으나, 그 과정서 조계사 공권력 침탈 위기를 맞는 등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항간에선 화쟁위 중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단 주장도 있었다.

이에 화쟁위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화쟁사상 연구 심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사회적대화모임 기구 창설 △국민평화화해선언문(가칭) 발표 등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구 화쟁위 기획위원은 "그동안 여러 사회적 현안을 화쟁 정신으로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어려운 점도 있었다"면서 "화쟁센터(가칭)를 개설하고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화쟁전문인력 육성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쟁사상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칭)' 등 개최하며 면밀한 연구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화쟁위는 최근 논란이 된 노동 관련 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사안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동 관련 법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에 대립 당사자인 노동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청년층,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조성할 것"이라며 "노동법과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국에선 10년 가까이 토론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구를 창설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구랍 11일 "노동관련법 관련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할 것"이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부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실과화해를위한사회적대화모임과 함께 추진해 온 '국민평화화해선언문(가칭)'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건강한 토론문화가 정립되지 못한 채 서로 낙인찍는 세태를 탈피하고자 진보 · 중도 · 보수 진영이 함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은 마련됐으나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쟁, 사회적 보급과 확산 위해

그렇다면 화쟁 정신이 사회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각성하지 못한 채 대립 당사자들에게 양보를 요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만은 '화쟁' 이 아니다"며 "그것은 단지 갈등을 표면적 · 일시적으로 덮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 중재기구들과 다를 바 없다. 화쟁위만의 차별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쟁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일을 거드는 게 아니다. 3차원적 시각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초월적 해법 제시를 통해 모두 상생하는 과정을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유 이사장은 "화쟁위는 대립 당사자 혹은 사회적인 중재 요청이 있을 때 나서야 할 것"이라며 "원치 않는 데 중간자로 자임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극단적 주장자' 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화쟁과 해결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간자가 사회적으로 더 부각되거나 높이 평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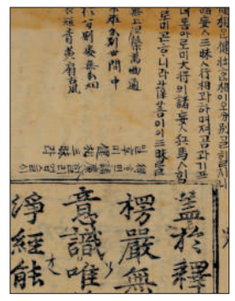
불경서 最古 한글 필사 발견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각사 〈능엄경〉서 발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필사본이 발견됐다. 훈민정음 초기 양식과 당시 경전 독해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단장 정승석)은 구랍 22일 한국기술교육대 문리각 연구팀과 함께 경기도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에 있던 〈능엄경(楞嚴經)〉 권1,2에서 1461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 글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고양 원각사에서 총 600여 건에 달하는 고문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능엄경〉 권1, 2에는 가장 오래된 한글이 필사돼 있으며 신라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을 잇는 석독(釋讀)의 표기가 들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원각사 〈능엄경〉 내 한글 주석 부분. 훈민정음 초기 서체로 ㅿ(반치음) ㆁ(옛이응) ㅱ(합용병서)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초기체 확인돼
주석 · 한문 어순 등 기록
1441년 〈언해〉보다 앞서

〈능엄경〉은 1401년 태조의 명으로 간행한 왕실본으로 능엄경 경문에 계환 스님이 요해를 붙이고 명필이었던 신총(信聰) 대사가 글씨를 써서 판을 새기고 찍어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보물 759호(권1~10)와 통도사 소장본인 보물 1195호(권9,10)과 같은 판본이다.

하지만 이 책은 1461년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고 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번역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묵서와 교정용 종이가 빼곡히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 글씨는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서 훈민정음 초기의 서체로 아름답게 씌어 있으며, ㅿ(반치음) ㆁ(옛이응) ㅱ(합용병서) 등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경문과 요해에는 묵서로 쓴 구결을 한글로 달아 놓았고, 여백을 이용하여 경문이나 요해에 없는 주석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써 넣었다. 그리고 잘못 쓴 부분에는 일일이 종이를 붙여 교정을 하였다. 경문이나 요해의 한글 부분, 그리고 주석의 한글 부분은 〈능엄경언해〉와 대체로 같지만, 〈능엄경언해〉에 없는 주석을 써 넣었다가 지운 부분이 있다.

한상길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집성팀장은 "〈능엄경언해〉에는 언해로 된 주석이 한문이나 구결문으로 된 부분도 있어서, 1461년 〈능엄경언해〉보다 먼저 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은 1464년에 쓴 〈상원사어첩 · 중창권선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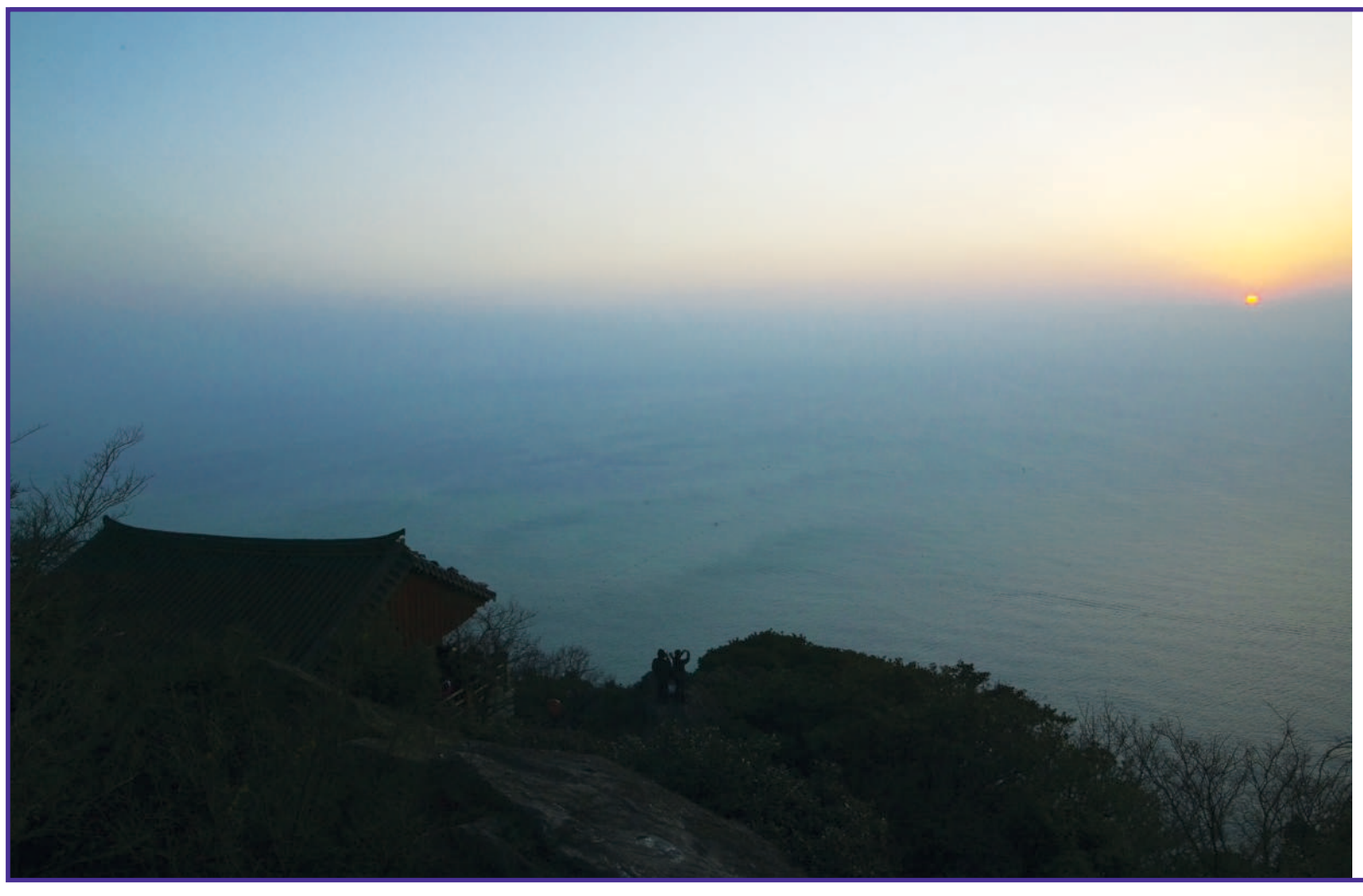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6년 신년특집호 – 48면 발행

A 특집 · 종단 법어 및 신년사 7 · 8 · 9
특집 · 화쟁, 왜 이 시대 대안인가 10 · 11
화엄만다라– 문화재 환수 운동 펼치는 장인들 16 · 17

B 특집 · 출가, 자유를 향한 길 1 · 2 · 3 · 5
특집 · 불교와 원숭이, 원숭이 띠 불교 소사 10
특집 · 원숭이 띠 불자들의 새해 계획 15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맑은 마음 밝은 웃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지원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조계종 올해 수계산림 일정 확정

계단위, 45차 회의서 결정

조계종의 2016년 수계산림 일정이 정해졌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성우)는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회의를 열고 불기 2560(2016)년도 수계산림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0 · 51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식 봉행의 건 △제3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의 건 △제24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 봉행의 건 △수계의범 편찬의 건 △동계록 제작의 건 △단일계단 기록영상 제작의 건 △율장연구원 지원의 건 등이 논의됐다.

교육원 제50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은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직지사에서 진행되며, 보살계 수계식은 3월 10일, 사미 · 사미니계 수계식은 3월 11일 봉행된다. 제51기 수계교육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직지사에서 진행되며, 보살계 수계식은 9월 5일, 사미 · 사미니계 수계식은 9월 6일 봉행된다.

또 제3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은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8박9일간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진행되며, 수계식은 4월 8일 봉행될 예정이다. 제24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3박4일간 수원 봉녕사에서 진행되며, 수계식은 4월 18일 봉행된다.

이밖에도 단일계단 개설 36주년을 맞아 단일계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기록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계단위원회는 회의에서 앞서 임기만료 된 10명의 계단위원 스님 전원을 재위촉했다. 계단위원 스님들의 임기는 구랍 23일부터 2년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 이사회, 분원장 대변하라"

분원장모임, 구랍 18일 기자회견…전국회의 개최 요구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구랍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학원 일부 분원장들이 재단 이사회의 독단적인 행보를 지적하며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은 구랍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와 지역별 임원 정수 할당을 통한 이사 후보 추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대표 법상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 12명의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탈종단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독선이 아닌 전체 분원장 스님들의 뜻을 모아 종단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선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이사회 운영으로 분원장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임대표 법상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종의 대의기구"라며 "분원장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가 아닌 분원장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창건주 권한을 재가자에게 위임한 점 △소송비용 청구 및 행정편의 중단 등 분원장 스님 위협 △선학원 감사 중 1인의 비독신 의혹 △선학원이 불교닷컴 배상금을 납부했다는 의혹 △이사회를 통한 업무처리로 분원장 스님들의 고충 발생 등 5개 항에 대해 이사회의 해명을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승단 내 소득 양극화 해결이 승려복지"

이혜숙 교수, 〈불교평론〉서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비판

승려복지회 한계점 지적
"건강보험 보충역할만…"
개별사찰 기금 마련 제안
사찰 재정현황 공개도 촉구



2011년 도입된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5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진한 시행에 대한 학계의 날선 비판이 나와 이목을 끈다.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사진〉는 계간 〈불교평론〉 64집에서 논단 '승려복지, 재가자의 할 일'을 통해 승려복지회 운영을 비판하고 사찰의 투명한 운영과 승단 내 소득 배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번 논단에서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이 더딘 까닭으로 승단 내 소득편차와 함께 이에 대한 종단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조계종 측 분한신고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님 중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이 수입도 월평균 50만원 이하가 43%였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스님도 전체 스님 중 20%나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단 내에 이런 편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1만여 스님과 3000여 공찰을 지닌 조계종단에서 소득편차 규명 노력이 없고, 또 승가 내에서 조차 보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단개혁 20주년 세미나에서 '사찰이 소수 스님들에 의해 사유화 되고 있으며 전체 승가의 기본 후생복지와 전법교화활동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예산 30%만 보고된다'는 현응 스님의 발표도 있었다. 불공정한 분배 상황에서 승려복지가 실현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렇기에 이 교수는 승려복지에 앞서 투명한 사찰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단의 재정형편 탓인 것처럼 미뤄지고 있으나,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사찰의 재정운영 문제가 더욱 크다. 대부분 조계종 공찰에서 운영위가 정상가동돼야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로 인해 현행 승려복지회도 보조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승려복지회는 수행생활 기초보장의 성격이 아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포함한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보충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승려복지회 의료비 지원조차 건강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중 일부 항목에만 하고 있다. 최빈층으로 전락한 스님들이 품격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교구 본말사별로 승려복지회의 업무 전담자가 충분치 않은 점과 함께 최소한 고정소득 대책과 승려 노후 주거안정 대책이 정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사찰에서 수행보장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사찰의 거주하는 모든 스님들의 명부를 작성해 전입 전출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 대중을 주지스님의 동거인으로 등록해 소임자의 수입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케 해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 5년 간 전체적으로 사찰 불사를 긴축하고 자산 공개, 승려복지에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누군가는 아파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는 호사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현재 승가 형국"이라며 "조계종 사찰이 역대로 물려받은 자산이 많지만 이는 사부대중의 정재로 공평무사하게 사용해야 할 공유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 승려복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픈 역사 흔적…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재개관

구랍 23일 전시공간 확충
'오키나와展'도 추가 개최



구랍 2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에서 참석 내빈들이 재개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성노예 등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기록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사장 월주)은 구랍 23일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1998년 첫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 제국주의 폐해를 고발하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테마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재개관한 역사관은 기존 2층 자료실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총 전시공간을 104평서 120평으로 확대했다.

또한 한글로만 표시되던 전시 내용을 영어 · 일본어 등 3개국으로 표시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밖에도 4계절 자동온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복지 면의 확충도 꾀했다.

특히 일본 침략전쟁 중 오키나와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배봉기 할머니의 역사를 소개하는 '오키나와 전(展)'을 새롭게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옥선 · 이옥선 ·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조억동광주시장, 탤런트 박재민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평화와 여성인권교육의 중심"이라면서 "고난의 역사를 기록 · 교육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는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및 정의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월요일 휴관).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9회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실시

자타카(Jataka, 부처님 전생담)를 영어로 발표하는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영문자타카 암송대회'는 청소년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하는 한편, 부처님 전생 학습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는 '제9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전국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1월 9일 예선, 16일 본선 경연대회를 각각 치룰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말하기 능력 △발표 능력 △콘텐츠 이해도 등 3항목으로 각 100점 씩 총 30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상품은 미니 아이패드부터 문화상품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암송 원고는 A타입(초1~4년 대상)과 B타입(초5~중3)으로 나뉜다. 참가 희망 학생은 연령에 맞는 원고를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IDIA)서 다운로드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영어가 모국어인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참가할 수 없다.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어실력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종정대행 **석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종인 원로위원 석지암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법인이사 석체법 석일두 석성만 석성우 석경만 석현공 석청우 석문공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용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성진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대구부장 성호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연꽃생협, 취약계층에 의류 2천여 점 전달

취약계층을 위해 의류 모연 사업을 펼쳐온 연꽃생협이 연말 기부를 통해 회향한다.

연꽃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전준호, 이하 연꽃생협)은 지난 11월부터 '연꽃愛향기' 사업을 실시해왔다. '연꽃愛향기'는 사찰에서 천도재나 백중기도를 올린 후 생기는 의류 및 잡화를 취약계층에 전달키 위해 모집해 온 사업이다.

이에 연꽃생협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화계사, 광림사, 천보암 등에서 기부 받은 속옷 및 내복 700점, 겨울용 헌옷 800점, 치약 · 칫솔 등 470점 등 의류 1,970점을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한다.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서울시에 있는 40개 노숙인시설 협의체로, 불교계에선 종로 보현의 집, 영등포 보현의 집, 성동구 게스트하우스 등 속해있다.

전준호 이사장은 "2016년엔 2만 5000점 이상의 속옷과 신변잡화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연꽃愛향기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사찰기도 후 발생하는 속옷 등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회향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장학승' 선정

총 19명…계율 · 문화재 전공 우선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가 구랍 16일 2016년 종단 장학승으로 국내 대학원 5명, 해외 대학원 5명, 사찰승가대학원 9명 등 총 19명의 스님을 선발했다. 국내외 대학원 및 사찰승가대학원에 재학 중인 31명의 스님이 신청한 가운데 계율,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문화 등 연구자가 많지 않은 분야를 전공한 스님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국내 장학승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의 진휴스님(대승불교)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무진스님(불교문화-문화재)과 선효스님(불교문화-문화재), 동국대대학원 박사과정 금강스님(계율)과 보희스님(계율) 등 5명이다.

국외 장학승은 일본 도쿄대대학원 석사진학예정 인경스님(계율) 중국 칭화대 박사진학예정인 활산스님(불전언어) 미국 UCLA 박사진학예정인 보일스님(대승불교) 외에 영국 브리스톨대 석사과정인 효은스님(초기불교) 스위스 로잔대 석사재학 중인 혜준스님(초기대승)이다.

이밖에도 선운사초기불교승가대학원 원산, 법인스님, 동화사율학승가대학원 만경스님,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혜림, 혜정, 현공스님 등이다. 신성민 기자

원효 · 일연 스님 머물던 인각사 난개발에 '위기'

철도공단 복선전철건설 발표에 불교계 반발 '고조'

경북 군위 인각사 인근에 신설되는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불교계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복선전철화와 함께 건설되는 화북터널이 사찰 뒷산을 관통하면 불교문화자산으로서 인각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구랍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인각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 일연 스님이 중창한 뒤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역사적 사찰"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불교 및 한국사의 중요한 지역인 인각사 일대는 입체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응 스님은 불교문화자산 훼손에 대한 불교계 관심을 재고하며 "국책사업 · 개발 · 편리성 등 갖가지 이유로 인각사가 훼손당한다면 다른 불교문화자산도 업신여길 것"이라며 "불교계가 나서 화북터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불교 유산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길이자 포교활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응 스님은 종단에 대해 △종단 차원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노선 폐기 또는 1km 이상 이격을 이끌어낼 것 △인각사도량수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화북터널 노선 변경 △인각사 지역 보호대책 강구 △문화재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근원적 정책 변화 등을 촉구했다.

복선전철 · 화북터널 공사 추진
터널~대웅전 이격거리 단 650m
역사 · 문화적 가치훼손 우려
"지켜내자" 불교계 반발 확산

아울러 인각사 주지 대법 스님도 인각사 인근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및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구랍 23일 오후 1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구랍 4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 의성지역 착공식'을 개최하고, 2018년 6월을 완공목표로 전 구간 공사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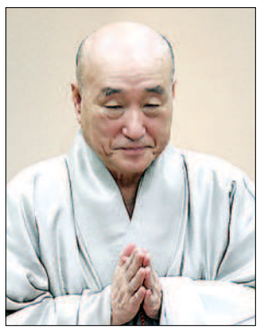
복선전철과 함께 건설되는 화북터널은 길이 9.18km의 장대 터널로, 인각사 대웅전으로부터 이격거리(대지경계선에서 마감까지 거리)가 채 1km가 되지 않는 650m다. 이대로 공사가 추진될 시 환경파괴 및 불교문화재 훼손에 대한 불교계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인각사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말사로 643년(선덕여왕 12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그 뒤 1307년(충렬왕 33년)에 일연 스님이 중창하고,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돼 왔다. 주요문화재로는 보물 제428호 보각국사탑 및 비, 사적 제374호 인각사지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국가사업으로 '인각사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 126억원 예산을 배정,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일면 스님, 동국대 이사장직 전격 사퇴

구랍 18일, 직무대행으로 성타 스님 지명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이 이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에 성타 스님을 지명했다. 일면 스님은 구랍 18일 동국대 일산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재학생과, 25만 동문, 종단과 종도님들께 지난 9개월간 심려를 끼쳐드리고 화합으로 이끌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다. 모두 가슴에 다 안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동국대는 109년간 스님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모은 삼보정재로 만든 종립학교"라며 "학교운영을 맡아보니 문제 근원은 종립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삼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 합리적인 운영원칙을 세우려고 했으나 오랜 악습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사태 수습 결단 내려
건강문제로 병원 입원 상태

스님은 이날 사퇴와 함께 성타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동국대 정관에는 이사장 사고 시 직무대행을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사무처 측은 일면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입원한 상태이기에 사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사 스님들 중에는 제일 경험이 많고, 승랍이 많고, 지혜도 많기 때문에 다른 이사님들이 잘 따르지 않겠나 해서 성타 스님을 지명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저의 이사장 퇴진과 동시에 9개월간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이사회서 결의한 전 임원 자진사퇴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직무대행 스님의 행보를 가볍게 해드리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사직 사퇴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탱화 절도의혹으로는 물러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연임된)이사직은 이사회에서 사퇴 순서가 정해지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하지만 탱화건을 빌미로 한다면 수긍할 수 없다. 같은 동등한 이사로서 순번을 정해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 중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병동에 있는 안채란 이사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타국서 송년, 새해 맞이 외롭지 않아요"

꿈을이루는사람들, 외국인근로자 송년위로행사



구랍 20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송년위로행사서 이주민 노동자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렘으로 들떠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이역만리 고향에 가족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 시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쌓이는 때이다. 이들을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이 나섰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구랍 20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스리랑카 등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외국인근로자 송년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어렵고 힘겨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마술쇼 · 한국가요 부르기 · 방한용품 나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로 참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체류지원 및 고충상담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출신 라다 씨는 "최근 사업장 변경을 위해 쉼터에 입소해 지내던 중 송년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잠시나마 고향친구들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기를 높여 건강한 한국생활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동양고전서 삶의 지혜를 찾는다

일지암, 오는 17~31일 청소년 인문고전 학당

동양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인문 강좌 캠프가 청소년들의 겨울 방학을 맞아 열린다.

전남 해남 대흥사 일지암(주지 법인)은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박 15일동안 '제1회 청소년 인문고전학당'을 개최한다.

이번 인문학당에서는 다양한 동양고전을 현대사회 맥락에 맞춰 해석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 청소년들의 몸 살림, 마음 살림, 생각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강좌는 〈사서정선(四書精選)〉 고전 강독(법인 스님/교장), 중국 고전에서 뽑아낸 고사(古事)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고사 강의(최재희/교감), 시와 음악(박양희/명상음악가), 차와 마음살림(김미화/다도사범), 우리가락을 통한 풍류(이병채/국악교사) 등이 진행되며 명상, 산책, 암자 순례도 함께 이뤄진다.

인문고전학당에서 참가 대상은 중학생이며 △공양, 청소, 세탁 등 모든 의식주 생활은 참가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 △스마트폰 및 일체의 인터넷은 금지 한다 △학당 공부 기간동안 참여 학생들 상호간은 존칭을 사용한다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학당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 공부한 결과물을 테드식 강연으로 발표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참가학생 선발은 오는 1월 8일까지 참가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와 맹자의 '측은지심'에 대한 에세이(A4 1매, 10포인트, 신명조)를 작성해 이메일(cjh675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를 통해 단 8명만 선발한다.

일지암 인문학당은 "향후 방학 때마다 청소년인문고전학당을 열 계획이며, 3월부터는 매월 1~2회씩 2박 3일 또는 4박 5일 일정의 성인인문독서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과 일지암은 조선후기 새로운 학문과 문화예술이 생성되는 공간이었다. 18세기 실학이 주도하던 시대에 선비화가였던 공재 윤두서는 집안의 실용적 학풍을 주도하며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외손 정약용에게 영향을 미쳐 그가 실학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일지암은 추사 김정희와 다성이라 일컫는 초의선사, 남종문인화의 대가 였던 소치 허련 등의 석학들이 학문과 예술적 공감대를 이루며 교유했던 곳이기도 하다.

문의) 010-9262-7300 신성민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종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현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월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선산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법안
규정국장 : 영암,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동오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무 : 금산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정해
교무 : 본각,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수옥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각원, 현타
복지 : 향인, 화광
감찰 : 서호,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지안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권소라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동방국제지주 대표 : 김연태
불교조계종 총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김준자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일 주 문



천태종 신년하례법회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1월 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대구불교방송 8대 사장

법일 능인학원 감사 스님은 구랍 18일 열린 BBS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8대 사장에 선출됐다. 취임법회는 1월 14일 진행된다.



2016년 마음특강

해피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법당 선원장 스님은 1월 4일부터 8주간 '2016년 마음특강' 을 실시한다.

동국108리더스, 캄보디아서 해외봉사



동국대(총장 보광)는 구랍 21일 서울캠퍼스 신공학관에서 '동국108리더스 9기 캄보디아 해외봉사 발대식' 을 열고 봉사단을 파견했다.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인 동국108리더스 학생 60여 명은 구랍 22일부터 1월 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시엠립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찾아 벽화봉사 및 울타리 건설, 배수로 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또, 미술 · 음악 · 문화 · 위생 · 체육 등 다채로운 교육봉사 활동도 진행했다.

심태은 역량개발센터 교수는 "나눔과 실천에 대한 현실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체득하는 자리"라며 "인도주의적 세계관을 배양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윤호섭 기자

이도흠 교수, 〈불교평론〉 새 편집위원장에



계간 불교잡지 〈불교평론〉의 편집위원회를 이끌 새 위원장에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불교평론〉은 구랍 21일 서울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편집회의를 열고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허우성 편집위원장(경희대 철학과 교수) 후임으로,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도흠 신임 편집위원장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불교평론의 편집위원회를 대표해 잡지의 제작과 편집방향을 주관하게 된다.

이도흠 불교평론 제6대 편집위원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한양대 국문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한양대 한국학연구소장과 〈문학과 경계〉 주간,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에는 많은 불자들이 승보공양을"

조계종 구랍 23일, 승보공양운동 공로자 표창



사진 왼쪽부터 윤기중 포교사단장, 대오 스님, 김현숙 자원봉사팀장

대오 스님 · 김현숙 · 포교사단 수상
CMS후원 확보, 자원봉사 조직 기여
"스님들 노후 수행 후원 필요한 일"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출범 5주년을 맞은 가운데 구랍 23일 승보공양에 적극 동참한 이들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과 김현숙 승려복지회 봉사팀장, 포교사단이 그 주인공이다.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공로자를 치하한 것은 복지회 창립 후 최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들은 승보공양운동이 꼭 필요한 운동이며 새해에는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고양 흥국사 대오 스님은 "스님들이 노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은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많은 사찰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양 흥국사는 승려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신도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고있다.

승려복지회 봉사팀을 맡아 CMS후원 확보에 기여한 김현숙 팀장은 "아직까지는 홍보 분야에서 미흡함이 많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승보공양운동을 알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김 팀장은 승보공양운동 홍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승려복지회보를 발간하는 등 실무를 맡아왔다.

김 팀장은 "이미 사찰에 보시금을 내는데 다시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해야하냐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승려복지회는 수행에만 전념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꼭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교사단을 대표해 참석한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예비포교사 교육시 승보공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4700여 포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장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러 불자들의 원력으로 승려복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감사드린다"며 "승려복지는 제34대 집행부의 숙원이다. 3~4년 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힘 닿는데까지 군장병 포교 나설 것"

보리암 능원 스님, 국방부장관 감사장 수상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구랍 18일 장성화 군종교구 종책기획실장이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사진〉에게 국방부장관 감사장을 대리 전달했다고 밝혔다.

능원 스님은 이번 감사장 수상에 대해 "군포교에서 다른 큰 업적을 쌓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장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닿는데 까지 군포교 일선에서 한명이라도 불교를 더 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승법사 25기 출신인 능원 스님은 지역 군법당인 남해대대 충성호국사와 사천 공군법당 기룡호국사, 공군 교육사 충국성불사 등에 매달 정기적인 후원과 법회를 주관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육군 6사단 7연대 호국육칠사 법당 불사에 1억 5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육군훈련소 군법당과 2군단 쌍용사 불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종교구측은 "능원 스님이 육해공군의 군내 종교 활동과 장병 위문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모범이 된다"고 평했다.

스님은 "군법사를 하면서부터 군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군포교는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큰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능원 스님은 끝으로 보리암에서 기도정진하며, 지금까지 후원해온 군법당에 열심히 후원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건중 학생 · 용주사비대위, '재가불자상'

재가연대, 선정결과 발표… 구랍 29일 시상



참여불교재가연대가 2015재가불자상에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과 용주사비상대책위원회를 선정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 이하 재가연대)는 구랍 18일 '2015 올해의 재가불자상'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재가불자상' 은 김건중 동국대 47대부총학생회장〈사진〉과 용주사現주지성월산문출송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용주사비대위)가 수상한다. 또한 '올해의 길벗상 · 두레상' 은 이준 재가연대 운영위원과 이매옥 깨달음과나눔 이사장이 받게 된다.

재가연대는 "김 부총학생회장은 올해 동국대 사태에서 50일 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 '이사 전원사퇴' 란 성과를 이뤘다"며 "그 결단과 발원은 불교계 기성세대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됐고, 한 젊은이의 저항이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또한 용주사비대위에 대해선 "신도회와 재가불자는 삼보를 존경하고 외호할 의무가 있으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할 책임도 있다. 용주사 사태에서 신도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 송년법회



한국불교여래종 남한산성 약사사(주지 혜안) 여래구도봉사단은 구랍 20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서 종정 인왕스님, 총무원장 명안스님, 행정부원장 호공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여래구도봉사단은 매주 6회에 걸쳐 남한산성 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동절기 김장나누기 등 불우 이웃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관음종 홍법사 자비나눔 한마당



대한불교관음종 홍법사는 구랍 22일 동지팥죽 나눔 한마당을 펼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경찰서에 팥죽과 쌀을 기부했다. 그동안 서울 묘각사서 이 행사를 치렀으나 이번에는 부산으로 확대 실시했다. 주지 호명 스님은 부산시 남구 문현동 소재 각 경로당 그리고 경찰서, 용호사회복지관 및 문현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 쌀과 팥죽, 떡과 과일을 제공했다.

김주일 기자

위덕대 물리치료 제1회 임상발표회



위덕대(총장 홍욱헌) 물리치료학과는 구랍 23일 학교 성취관에서 '제 1회 임상실습 사례발표회' 를 가졌다. 이날 임상실습 발표회에서는 물리치료학과 3학년 신소희 외 16명 학생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8주간 삼성서울병원 외 8개 전국(서울, 부산, 대구) 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체험결과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원 명운 현수 지광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춘명 현수 정운 무공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심의원장 명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경북교구원장 태일

총무부장 혜진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사회부장 해인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규정부장 무종 기획부장 법민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의전국장 향적 사무국장 도현 조사국장 최석주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신년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병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많은 중생이 고통 받는 오늘이지만 둥글고 모가 남이 없이 원만성상으로 밝게 세상을 비추는 병신년의 저 태양처럼 온 누리 온 중생에게 밝고 맑은 불법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합장 축원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부처님 자비광명이 무명 세상 등촉되어 온 세상 온 인류가 평화롭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효종 종도 여러분의 무궁한 정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TEL : 054)743-0700

부케 대신 '연등' 든 신랑·신부 부처님 앞에서 '백년해로' 다짐

마인드디자인, 구랍 19일 서울 불광사서 '사찰 혼례'

"사찰 혼례? 상상했던 거와 다르네요!"

구랍 19일 토요일 오후, 사찰 혼례에 참석키 위해 서울 불광사를 찾은 하객들은 신기한듯 여기저기 두리번대며 식장을 구경하느라 연신 분주했다. 절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에 '전통 혼례'를 상상했지만, 그와는 또 다른 예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황금빛 불상 앞으로 새하얀 '버진로드'가 펼쳐졌다. 그 옆으론 꽃과 향초가 길을 밝혔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대신 은은한 연등 조명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한편에는 오케스트라단과 한복 입은 합창단이 오묘한 조화를 이뤘다.

똑같은 예식, 분주한 분위기의 요즘 결혼식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마련된 '사찰 혼례' 현장이다. 사찰서 종종 치르던 결혼식처럼 장소만 사찰이 아닌, 사찰 전통 혼례의식에 현대적 의식도 결합해 이색적 풍경을 연출했다. 잔치 음식도 사찰 음식으로 꾸려졌다.

구랍 19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서 '사찰 혼례'가 진행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주)마인드디자인(사단법인 우리는선우)은 근대에 사라진 사찰 혼례의식을 정립·보급함으로써 현대의 획일화된 결혼식서 탈피, '대안 결혼식'의 일환으로 사찰 혼례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총괄·기획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예식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양가 부모님은 불단과 주례단에 초를 밝혔다. 이어 불광사 합창단 7명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신랑신부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삼법공양을 올렸다. 향, 등, 꽃이 차례로 불단에 놓이자 하객들은 합장으로 신랑신부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다.

다음으로 동자(童子)·동녀(童女)의 도량결계가 펼쳐졌다. 물이 담긴 발우를 든 동자는 소나무 가지를 물에 담갔다가 좌우로 뿌리며 도량을 청정히 했고, 동녀는 꽃잎을 뿌리며 신랑신부를 위한 꽃길을 만들었다. 수줍어하는 동자동녀의 모습에 엄숙했던 분위기도 점차 편안해졌다.

그 위로 서양식 웨딩드레스 대신 웨딩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신부가 걸어 들어왔다. 이에 주례 법사를 맡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화혼예식을 부처님께 고하고 축복을 발원하는 고유문을 봉독했다.

지홍 스님은 "하늘에 달이 밝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물 있는 곳마다 달이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면서 "오늘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신랑신부가 깊은 사랑과 끝없는 원력으로 부부되길 부처님 전에 서원하오니 위없는 자비광명을 드리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했다.

또한 스님은 주례사를 통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인내하며 화합해야 한다"며 "인내는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활로다. 양측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꿔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찰 혼례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신부의 '헌화 의식'이었다. 예쁘게 꾸며진 웨딩부케 대신 '칠경화'라 불리는 7송이 꽃을 들었던 신부는 그 중 5송이를 신랑에게 건네고 신랑은 이를 주례 법사에게 전했다. 지홍 스님은 신랑이 건넨 꽃을 불단 동쪽에 올린 후, 신부의 2송이 꽃을 마저 받아들고 불단 서쪽에 올렸다.

불상 앞 꽃길 버진로드 펼쳐져 '장관'
삼법공양·고유문 낭독·헌화 의식 등
마인드디자인, 사찰 전통혼례의식 구현
성혼선언·축가 등 현대적 문화도 결합
최근 유행한 '대안결혼식 될까' 기대

마인드디자인은 '헌화 의식'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혜'란 수행자로 살 때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할 꽃을 구하던 중에 '구리'란 궁녀에게서 7송이 꽃을 구했다는 설에서 유래한다"며 "이는 세세생생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의식이다. 사찰 혼례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혜 보살과 구리 궁녀는 이 인연으로 내생에 부부가 될 인연을 맺게 됐다.

이어서 혼인 서약, 예물 교환, 성혼 선언, 축가 등 현대 결혼식의 의례도 진행됐다. 사찰 혼례가 일반화·대중화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적 시의성에 맞춰 일반 결혼식 식순을 포함한 것이다. 축가는 불광사 합창단, '오늘의 라디오' 가수 장준호, 마인드디자인 팀과 신랑의 깜짝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이날의 주인공인 신랑 오태식(34) 씨와 신부 김민지(32) 씨는 "결혼식이 단순히 지인들에게 축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과 사회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면서 "종교를 떠나 경건하고 특별한 분위기에서 결혼하게 돼 기쁘다. 또한 이런 뜻 깊은 불교 화혼예식을 알리게 돼 뿌듯하다"고 행복한 웃음을 보였다.

하객들은 이색적인 사찰 혼례의식에 흥미로워했다. 신부의 친구 진아연(여·30)씨는 "사찰에서 결혼한다기에 간소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어우러져 너무 새로웠다"면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찰 혼례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진여정(여·56)씨도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은데 언제부턴가 사찰 혼례가 없어져서 아쉬웠다"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과 상의해 사찰 혼례도 고려해볼 계획"이라 전했다.

모든 식순이 끝나고 신랑신부는 초록빛 연등과 분홍빛 연등을 양 손에 받들고 경건히 퇴장했다. 신랑신부가 함께 연등에 붉을 밝히는 것은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란 뜻으로 '먼저 나의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천년가약을 맹세하고, 연등처럼 환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신랑신부의 모습에 하객들은 큰 박수로 축복했다.

한편, '사찰 혼례'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고이 성장한 선남선녀(善男善女)가 그 사랑과 사회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 전에서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는 예식이다. 마인드디자인은 예부터 재래사원에서 진행된 사찰혼례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마인드디자인은 한국 불교의례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년 간행)〉을 바탕으로 '사찰 혼례의식'을 정립했다. 남양주 봉선사 월운 스님과 고산 스님이 의식 고증을 맡았고, 혜거 스님과 홍윤식 교수가 의식 감수를, 정승연 다례원장이 의식 정립에 참여했다.

마인드디자인 측은 "예식장에서 30분에 한 커플씩 찍어내는 듯한 획일화된 결혼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사찰 혼례'를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서 "청년 불자들에게 화혼예식의 의미를 알리고, 교회와 성당처럼 사찰 결혼식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2월 19일 (주)마인드디자인(사단법인 우리는선우)은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사찰 혼례'를 진행했다. 신랑 오태식(사진 오른쪽) 씨와 신부 김민지 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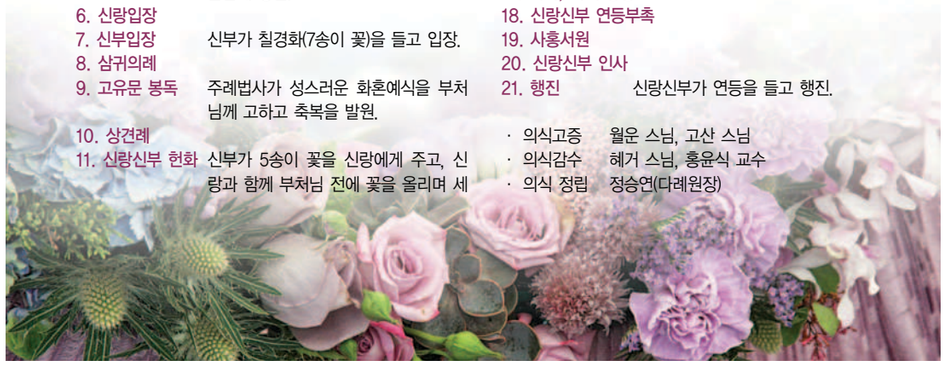
불상 앞에 펼쳐진 버진로드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신랑신부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삼법공양을 올리는 불광사 합창단 모습.

전통 '사찰혼례' 식순

1. 개 식	예식거행을 알리는 타종.	12. 혼인선서	세생생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
2. 상단점화	양가부모님이 불단과 주례단에 촛불 점화.	13. 성혼선언	
3. 삼법공양	향, 등, 꽃을 부처님께 공양.	14. 신랑신부 불전대례	
4. 주례법사 등단		15. 발원문 봉독	신랑신부는 새 인생 출발을 부처님 전에 발원하여 봉독.
5. 도량결계	동자가 향수를 뿌리고, 동녀가 꽃잎을 뿌리며 입장. 도량을 청정히 하고, 아름답게 장엄.	16. 주례사	
6. 신랑입장		17. 축가, 축시 낭송	
7. 신부입장	신부가 칠경화(7송이 꽃)을 들고 입장.	18. 신랑신부 연등부촉	
8. 삼귀의례		19. 사홍서원	
9. 고유문 봉독	주례법사가 성스러운 화혼예식을 부처님께 고하고 축복을 발원.	20. 신랑신부 인사	
10. 상견례		21. 행진	신랑신부가 연등을 들고 행진.
11. 신랑신부 헌화	신부가 5송이 꽃을 신랑에게 주고, 신랑과 함께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며 세	· 의식고증	월운 스님, 고산 스님
		· 의식감수	혜거 스님, 홍윤식 교수
		· 의식 정립	정승연(다례원장)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만덕 큰스님
제2대교조 자재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현각
교정원장 성광
감찰원장 일도
영산불교대학 학장 덕산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부산분원 주지 도현
고성분원 주지 선혜
대구분원 주지 일성
제주 제2본산 주지 행원
대전분원 주지 범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일본분원 주지 성도

사부대중 일동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한국불교 최대 법인단체 320종단 가입)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증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 · 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도광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총무원장 태일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월하 성철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慈悲喜捨의 마음은 모든 선행의 근본입니다"

자 비 희 사

새해에는 참 나를 바로 봅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아침! 무차(無遮)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깨달음과 지혜의 광명이 비추니 마을마다 황금빛 서기가 감돌고 집집마다 가슴열리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은 덜어주며,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드라 망이요, 우주만유가 연기(緣起)로 이루어 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는 자신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마음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총칼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들고 대립과 증오가 변하여 자비와 화합이 되어 전쟁과 공포와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다 함께 축수(祝手)합시다.

새해에는 참나를 바로 봅시다. 참나 속에 큰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 행복이 있고, 참나 속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참나 에서 대동(大同)과 소강(小康)도 비롯됩니다.

곤강(崑崗)의보옥도 탁마(琢磨)치 아니하면 가치 있는 보배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참나를 깨닫는 수행과 도덕을 절차(切磋)치 아니하면 어찌 가없는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다함께 누립시다.

남의 활은 당기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맙시다! 남의 그름도 분변하지 말고 남의 일도 굳이 알려 하지 맙시다.

他弓莫挽 他馬莫騎
他非莫辨 他事莫知

새해의 새마당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서 각자의 분(分)을 지켜 책임을 다합시다.

새아침의 태양빛이 온 대지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두루 하니,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합심하여 통일을 염원할 때 태평가를 울리는 통일국가 일등국민이 될 것입니다.

無雲生嶺上하고 唯月落波心이라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오직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있음이라.

함께 하는 큰 길을 열어 가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의 대일광명(大日光明)이 온 세상을 밝히고 천지의 생명 기운이 만물을 새롭게 살려내니 사람마다 품은 원력이 알알이 영글어서 뭇 중생 웃음소리 곳곳마다 곱게 피어나는 함께 하는 또 한해를 열어가도록 서원합니다.

진각종문의 새불교운동이 칠십년을 맞이하니 종단의 초석을 다지면서 용맹정진으로 생애를 바친 선대스승의 은혜를 다시금 심중에 깊이 새기고즉신성불과 현세정화의 정로를 밝게 받들어서 수행과 교화의 정도를 실답게 펼쳐갑시다.

법계는 그대로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거늘 눈앞에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듯 보이더라도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립과 투쟁의 좁은 길을 걷기보다 화해와 상생의 더 큰 길을 넘어가서 진정 안온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심(正心)이 일어나면 사심(邪心)은 사라지고 공도(公道)를 세우면 사도(私道)는 멈추나니 내 허물을 먼저 깨달아서 사욕을 극복하면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이 지속적인 터전을 잡고 상부(相扶)하고 예경하는 국가 사회가 건설됩니다.

앞선 사람이 네 탓보다 내 탓을 우선 살피고 뒤의 사람은 내 것과 더불어 남의 것도 챙겨서 분열과 갈등의 파열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자타상보(自他相補)의 공영(共榮)사회를 누리기 위해 새해의 서기(瑞氣)가 가득하도록 마음모아 정진합시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베푸는 공덕쌓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병신(丙申)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여의원만(如意圓滿)하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영특함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지나오며 고난과 격동의 현대사를 잘 이겨온 저력과 힘을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사회갈등,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한 쪽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처럼 한 생각만 돌리면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치가 있고, 눈 닿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로 화합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1236년 병신년에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佛事)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원숭이의 영특함을 발휘함과 동시에 진중함을 잃지 않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맑게 보는 청정심과 진중함으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아 제시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때 모두가 상생과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맑은 마음, 밝은 웃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나누고 베푸는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탐욕과 대립의 삶을 여의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방 유리광세계로부터 퍼져오는 새해 새아침의 찬란한 광명이 온 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모습으로 나투고 있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 로써 일체중생이 진취적인 기상과 슬기, 그리고 영민함을 두루 갖춰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가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더욱 화합하고 공경하며 상생해 나갑시다. 탐욕과 대립의 삶을 여의고 화해하며 협력하는 종교 본연의 모습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걷어내는데 앞장 서 나갑시다.

지금 인류는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는 듯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신적 타락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며 평화와 번영의 큰 길로 나아가려면 동체대비와 대자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웃을 보살피는 자리이타의 정신에서 인류의 공익과 공존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병신년 새해의 밝고 힘찬 기운이 온 나라 온 세상을 고루 덮었으니, 일체 갈등의 벽이 허물어져 소통이 원활하고, 만물의 본 면목이 드러나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병신년 새해를 여는 새날, 새아침입니다. 새날은 누구에게나 좋고 좋은 날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잃었던 용기마저 다시 낼 수 있는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각종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각 70년이 되는 올해의 종책목표를 '혁신을 통한 진각100년불사 토대 마련의 해' 로 정했습니다.

종조님의 무진서원을 받들어 세계 밀엄정토 구현을 위해 한결 같이 달려온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수행과 신행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현세정화를 이루기 위한, 진각 100년을 향한 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각 100년을 향한 불사는 진각대도(眞覺大道)를 위한 우리들의 서원이자 실천행입니다. 진각 70년 종사의 결집으로 수행문화를 혁신하고 심인불교 정체성 재무장으로 자주와 긍정, 실천의 수행과 신행문화의 재정립을 꾀하며 진각문화의 대중화 기초를 마련하여 문화포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뒷받침이 되고 불자들의 수행을 즐겁게 하며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중불사도 될 것입니다.

이 불사의 인연공덕으로 새해에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다른 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부처님의 이타자리정신이 온 인류에 널리 퍼져 전쟁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은 해소되며, 기아와 질병이 없기를 서원합니다.

과거의 회고와 성찰로 새 역사 열 것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병신년 새해 아침 찬란한 햇살이 천지를 비취어 밝았습니다. 인연이 지극한 불자여러분 희망찬 믿음의 활력으로 병신년을 맞이합시다.

새해를 맞는 진정한 의미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겸허한 자기 성찰위에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찰로서 새 역사의 청사진을 펼쳐 가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관음종 창종 50년 질곡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애종지심으로 작은 열매를 거두어 가며 항상 현재에 머물며 충실했습니다. 용기 있는 삶은 지혜로 와야 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대중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미래의 모습을 창조해가는 주인공이 우리들 자신이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끝없는 질문 속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기쁨을 더해가는 한 해 되길 서원합니다.

묘법연화경에 사안락의 가르침이 있는데 신(身)안락 구(口)안락 의(意)안락을 충실하게 하려면 서원(誓願)안락으로 믿음의 역량이 밝혀주어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신년에는 지혜로운 서원을 세웁시다.

좋은 씨앗을 가꾸어 회향하길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교도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지나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며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의 시작은 하나의 시작이 아니며,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하나의 끝남은 하나의 끝남이 아니다' 는 옛 고전의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일상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탐진치' 의 삼독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큰 수레바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오늘로,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는 윤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신년 366일 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쓰기 나름이니 좋은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거두어 회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인 인연 인과의 진리를 굳게 믿고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마구니 장난에 휘둘리지 말라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금년 병신(丙申) 새해를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병(丙)은 붉은색을 뜻하고,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을 원숭이라고 정한데서 유래한 까닭입니다.

예부터 동국무원(東國無猿)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스님의 영향으로 원숭이가 손오공처럼 잡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겼으며, 큰 건축물 또는 사찰의 지붕 등에 원숭이 상을 세우는 것도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풍전등화에 놓인 국운을 살려내기 위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제작이 병신년에 시작됐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원숭이는 지혜와 영리함을 겸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그 재주를 과신하거나 잔꾀를 경계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쉼 없는 정진에 진력하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수호, 장수, 부귀 등을 의미하는 원숭이의 이미지 및 지혜와 재치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운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약속 늘 기억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戒定慧解知見生하시어
三明六通道品發하시며
慈悲十力無畏起하사
衆生善業因緣出하시네.

계정혜 삼학을 닦아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시어, 신통 자재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며, 불보살님 갖추신 지혜와 복덕 자비롭게 베푸시니, 중생들의 착한 업이 인연 따라 생겨나네.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사바세계 올적에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서원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늘 기억하라.

아집과 이기심 버리는 해로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2016년 새해는 원후 곧 원숭이 해인 병신년입니다. 원숭이는 지혜롭고 날쌘 동물로 옛 선조들은 원숭이를 재주가 많고 총명하며, 성격이 밝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어서 개인보다는 무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원숭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환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망의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위주, 금전만능의 세태라지만 서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중생계의 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부정, 화쟁 전제 조건 잃는 행위”

[특별기고] 화쟁의 가치는 무엇인가



석 길 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교수



구랍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종교인 평화의 꽃길 행사 모습. 노사갈등에서 불교의 화쟁은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한 가운데 인과 · 연기법에 따라 주장의 타당성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화쟁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우선 화쟁에 대한 흔한 착시현상 두 가지만 언급하고 시작하자. 흔히 ‘화쟁’ 이라는 논리적 혹은 사상적 태도는 원효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간주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화쟁’ 혹은 ‘회통’ 이라는 접근 방식 자체는 그 원형적인 입장을 붓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는 물론 불교 전통 전반에 존재한다.

동아시아 불교 특유의 전통적 입장 중의 하나로 ‘교판’ 이 있는데, ‘교판’ 은 기본적으로 회통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로써 회통 혹은 화쟁의 과정을 담고 있다. 때문에 화쟁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원효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다만 화쟁의 방법론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불교의 한 특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원효사상의 한 특징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화쟁에 대한 두 번째 착시현상은, 화쟁을 화해와 통합(통일) 혹은 종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이해하는 점이다. 이른바 화해의 사상, 통일의 사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화쟁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물론 화쟁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효의 경우에 있어서, 화쟁은 이견을 회통시키는 논리적 과정으로 포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효는 화쟁이라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경전에 제시되어 있는 ‘무쟁(無諍)’ 에 이르는 다양한 길들이 관점에 따라 지니게 되는 타당함[是]과 그릇됨[非]을 포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비논쟁을 조화시키는 관점을 획득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화쟁의 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가 원효 특유의 사상성으로 귀착된다. 때문에 화쟁 그 자체는 사상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효의 사상을 화쟁이라고 규정하는 관점, 곧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맥락적 배경을 추정한다. 당시 동아시아 불교 내부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그 하나이며, 삼국통일이라는 신라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화쟁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한 통합의 상태,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의견이 동일화’ 된 상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곧 획일화된 것으로 차이[다름]가 사라진 상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른바 다양성이 부정되어버린 상태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 내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적 관점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효의 화쟁은 단순한 종합주의, 통합주의, 통일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의 논리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화쟁은 다름과 같음에 대한 수긍에서 시작

그러나 원효의 경우를 보면, 화쟁에 의해서 그 다름[차이]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효의 화쟁은 각각의 서로 다른 견해가 가지는 다름[차이]이 각각 그 자체로써 유의미하다는 점이 끝내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런 견해의 차이 속에서, 다시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견지된다. 다름과 같음에 대한 수긍이 원효가 추구하는 화쟁의 논리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화쟁은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의 다름을 삭제하는 과정이 아니다. 곧 동일화의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곧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름을 삭제하여 동일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갈등하고 대립하는 쌍방이 있을 때, 쌍방의 같고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용납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사실은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수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쌍방이 서로 간의 ‘같고 다름’ 을 곧장 ‘옳고 그르다’ 라고 하는 가치판단의 상태로 전환시켜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같고 다름’ 이 ‘옳고 그릇됨’ 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옳고 그릇됨’ 이라는 가치판단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화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치판단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와 다른 상대방’ 은 부정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존재가치가 수긍되어야 할 상대방이 없애야만 하는 적대감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상대 인정이 화쟁 출발점
내 잣대 강요하지 않아야
최소한의 합의 이뤄지면
구성원 간 소통 門 열린다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의 화쟁

소통해야 할 상대방이 없애야만 할 적이 되어버리면, 이미 화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소통해야 하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전제가 필요해지게 된다. 동아시아불교 더 좁혀서 원효는 이 점을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에 대한 적극적 긍정에 의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중생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 부처와 같은 온전히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와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적어도 동아시아불교 그리고 원효에게 있어서 하나하나의 생명은,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로서 부처님과 동등한 고귀한 생명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관념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수긍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가치였다. 이것은 화쟁에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무한긍정의 바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흔히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해소를 위한 초점이 되는 것은 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원인이다. 이때 원인이 먼저 부각되면, 대립과 갈등의 쌍방 당사자는 사라져버리게 된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쌍방 당사자는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와 갈등과 대립의 내용이 분리되어버리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해소에는 늘 다름[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상대방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고 하는 뭇 생명존재에 대한 머뭇거림 없는 가치긍정이 필요하다. 생명존재들이 생명존재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갈등의 해소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일체중생실유불성의 가치관은 대화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부정하면 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

논리적 과정으로서 원효 ‘화쟁’ 의 독창성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원효 화쟁의 논리적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그는 “ ‘관점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의 연기(緣起)적 인과 계열’ , 다시 말해 ‘견해/주장의 조건적 타당성을 성립시키는 인과계열’ 내지 ‘견해 계열[門]의 의미 맥락’ 을 원효는 ‘문(門)’ 이라는 말에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화쟁의 논리적 과정에서 원효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각각의 다른 주장들이 성립되는 인과적 계기맥락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원효는 각각의 주장들이 가지는 이러한 견해 계열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에 의해서 조건적 타당성과 부분적 타당성을 말한다.

이것은 본인의 관점에 의한 무조건적 판단의 잣대를 상대방의 주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원효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좀 더 객관적인 논리방식을 제안하고 적용했다는 이야기이다. 나와 상대방의 가치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절충하는 방식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의 논리와 가치판단을 잣대로 들이대고 보는 일반적인 소통과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화쟁이 이 시대의 대안이려면

앞에서 여러 가지로 원효의 화쟁이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원효의 화쟁은 이 시대에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시대에 적절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조건들이 적지 않다.

첫째, 원효의 화쟁은 사회갈등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서로 대립되고 상충하는 다른 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곧 상충되고 대립되는 다른 주장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다른 주장들은 추구하는 바 대상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의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화쟁을 현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의 환경, 최소한의 삶의 조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원효의 화쟁은 각각의 주장이 성립하는 인과적 계기맥락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이것을 요즘의 민주정치체제에 비추어 본다면,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배제한 채, 가치 판단이 선행된다면, 그것은 이미 소통이나 화쟁이 아니라 폭력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원효의 화쟁에서는 뭇 생명존재에 대하여 절대적 고귀함과 존엄성이 전제된다. 헌법으로 말하면 행복추구권이 가까운 말일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뭇 생명존재가 행복해야 할 당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여전히 뭇 생명존재들의 존엄한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뭇 생명존재들의 존재가치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미 화쟁과 소통의 가능성은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고 또 쉽사리 증폭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하고 대립하는 쌍방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만의 가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하여 타협과 절충을 찾는 데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이익이든 이익의 최대확보를 선행전제로 삼는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화쟁이 진정한 화쟁으로써 대안이 되려면, 이 같은 사회적 가치관의 전제조건 바꾸기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고려와 실제적 적용을 위한 절차적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화쟁은 허공에 그리는 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福 謹賀新年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代 대광 민재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법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이현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원효 부원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지현 부원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성조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민재 대광

총무부장 경보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경남서부교구부원장 법조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원장 지현
중앙종회의원 대광 민재 도하 법조 도이 성화 법경 범수
혜인 혜조 혜성 도각 영암 지현 대언 지연
소원 연화 경보 도언 경덕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烋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師寺
(약사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仁川佛教新聞
發行人 華 應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理事長 韓相湖(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공동 善 추구하되 단순 중재로 끝나선 안 돼"

화쟁, 그 실천 방법은?

바야흐로 화쟁(和諍)이 화두(話頭)인 시대다.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불교적 접근법으로 화쟁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화쟁은 그 실효성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대체 화쟁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왜 화쟁이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이분법적 논리서 벗어나
독선 버리고 경청하며
더 큰 공동 선 만들어야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불교적 관점 깊은 성찰 바탕으로
추상적 목표 현실로 끌어내려
현실 속 苦 올바르게 인식해야



법응 스님
불교사회
정책연구소장

기계적 중립 문제 고착화
개념 정립해 논쟁 없애고
조직이 대중 신뢰 얻어야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소통의 장으로 담화공동체 이끌어
여실지견 지혜 발휘되는 과정 될 때
대중 관심 집중과 중도 실천 이뤄져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화쟁, 누구 편 드는 일 결코 아냐
장기적 목표 위해 비난 감수하며
새 해법과 시각 제시할 수 있어야

불교계가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갈등을 마주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서 '화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4대강 사업 · 쌍용차 노사문제 · 철도노조 파업 사태, 최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까지 불교계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갈등 현안에 화쟁을 중심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화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걸까. 대중은 불교계가 강조하는 화쟁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긴박한 갈등상황에서 화쟁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화쟁이어야 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도대체 화쟁은 왜 이 시대의 중요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일까?

현대사회의 화쟁 가능할까

화쟁은 신라 고승 원효가 당시 대립하고 있던 불교 교리적 쟁론들의 조화를 위해 주창한 것이다. 특정 종파나 이론을 고집하지 않고 개시개비(皆是皆非,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대립을 극복,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후 화쟁은 한국불교의 중요사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사회갈등에의 접목을 두고 끊임없는 진통을 겪고 있다. 화쟁,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전제조건이 붙는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배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고 하지만 각자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두 일리(一理)가 있다"며 "화쟁은 평화가 아니다. 평화롭게 다투자는 것이다. 독선을 버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또한 "원효의 화쟁과 현대사회 화쟁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른 관점이 지니는 일리를 찾아 존중하면서 보다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 화쟁이기 때문"이라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그 장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담화공동체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립하고 있는 양측이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에서 일리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로의 이익을 두고 대립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화쟁은 자유 · 인권 · 복지 · 다양성 · 평화 · 환경 등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구현된 세계를 위한 사회통합의 불교적 방편이어야 한다"며 "사회 또는 인류적 합의나 공통의견이 전제된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마음과 행동을 합일해나가는 노력이 화쟁이고, 화쟁의 현대적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화쟁을 위해 상대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거나 틀릴 수 없다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두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효가 화쟁을 위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 선(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따른 갈등 접근법은

화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장님들이 코끼리의 전모는 알지 못한 채 일부분만 만지며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코끼리라는 걸 알게 되면 다툼은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여기서 장님은 중생으로, 코끼리는 진리로 대변되기도 한다. 즉 중생이 갖는 한계를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데는 특정한 이익 추구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님 모두 각자 만진 것이 코끼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툼은 쉽사리 멎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불거지는 대부분의 갈등은 장님들과 같이 단순한 관점 · 인식의 차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따른 구조적 갈등과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늘 '이익 추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불교계의 대사회적 화쟁은 '중립'과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응 스님은 기계적 중립을 경계했다. 스님은 "세계는 서로 엮이고 연계돼 있지만 그 방식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은 결국 사회를 기득권에게 유리한 구조로 고착화시키는 행위"라며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입장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곧 화쟁"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택 교수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의 접근은 옳지 않다.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갑이기만 하고 또 을이기만 한 관계가 아니다"며 "핵심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내가 옳다는 독선이다. 화쟁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용 교수는 "현대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성찰, 계급과 집단에 따른 이기주의의 양상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한다. 또 그것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불교적인 관점에서 성실한 모색을 해야 한다"며 불교계의 대사회적 고민을 주문했다. 각종 사회갈등에 불교계가 접근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가치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화쟁이 단순한 '중립'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교수는 "각 당사자들의 관점에는 당연히 구조적 한계와 특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화쟁은 이에 대한 직시, 즉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각자의 양보를 이끌어내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것을 화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굳이 화쟁이 아니어도 이름 높은 중재기구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화쟁이 중재기구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쟁은 누군가 이기고 지게 하는 일을 거드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해 새로운 해법과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쟁, 대중 속에 자리 잡으려면

화쟁이 세상을 맑히는 가치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련의 사회갈등에 대한 불교계 화쟁을 보면 자칫 눈앞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이상향만 좇는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강을 건널 배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강 건너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는 것은 여행의 설렘에 들뜬 여행자에게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대중이 진정한 화쟁을 중요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성태용 교수는 "불국토 건설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현실로 끌어내려야 한다. 추상적인 이상의 제시만으로는 화쟁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불교계가 끊임없이 현실의 고(苦)를 올바로 인식하고, 대중의 바람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교수는 "갈등은 인간사회의 여실한 모습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고로 상호신뢰 회복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종교는 늘 약자와 함께해야 하지만 편을 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조금 더 큰 공동의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화쟁의 개념 및 실천방식에 대한 이론이 정립돼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화쟁의 주체로 나서는 조직이 대중의 신뢰를 얻고,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화쟁의 결과 실제로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평화와 정의가 구축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기 교수는 "생존에 내몰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귀 기울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어렵다"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계사 피신 사례와 같이 외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중재를 통한 중도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일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이사장은 "화쟁의 성공은 당장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람과 생명 모두에게 이익인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결정처럼 보여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화쟁은 분명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불교적 · 시대적 가치다. 하지만 대중은 화쟁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화쟁을 두고 이렇다 할 공통된 의견이 정립되지 않아서다. 부처님이 2500년 전 설한 진리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불교계의 고민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화쟁 또한 같은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진흙 속 연꽃을 두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참 수행자의 모습으로 비유한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그 더러운 진흙은 연꽃을 피우는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 화쟁이 경주마의 차안대를 벗기는 역할을 맡아 현대인들의 시선을 넓히는 영양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봉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축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도일 교육국장 용주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국사(봉진)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문수사(성묵)	용주사(용주)
지성사(지성)	청호암(혜인)	당포사(종철)	성불사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대공)	용연사(취암)	여래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쌍암사(덕산)	약불암(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남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도심사(도안)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쌍봉암(쌍묵)	종단승려, 신도일동		

■ 종단 입종 안내
- 대상 : 사찰 및 종도 (승려, 법사, 포교사)
- 문의 : 총무원 051-514-8766 직 통 010-9706-1103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521-1236)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010-9706-1103)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2

음식과 보물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으로 인도해야 곧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부사의광보살소설경〉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덕화. 각운. 산옹. 태우. 법장
수산. 성암. 금용. 경담. 용태
각림. 명관. 지성. 지족. 남파
지암. 해경. 지산. 지허

중앙종회 의장 설운
수석부의장 법담
차석부의장 시각

호법원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교육부원장 백운
총무부장 도안
교무부장 상진
재경부장 정묵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도법
홍보부장 자우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謹賀新年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이갈지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한광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전화(043)423-7100 / 전송(043)420-7399 / www.cheontae.org

불교총지종

총기 45년
불기 2560년
謹賀新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등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중앙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법등
총무부장	인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재무부장	우인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교정부장	원당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종의회 의원 · 법장원 ·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 밀교 연구소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전당건설 위원회 · (재) 사회복지재단 · 만다라요양원·바라밀지역아동센터·초록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병신년! 혁신으로 불국정토 이룩하자.

"수행과 신행의 혁신으로
현세정화이룩하자."



총인 성초
통리원장 회정
종의회의장 덕일
현정원장 회성
교육원장 경당

호시우행(虎視牛行)

목표를 직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充滿하기를
祈願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총무원장 진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02)853-0430~1 팩스 02)857-5094

어린이 재가안거, 몸도 마음도 '쑥쑥~'

부산 홍법사, 구랍 20일 1차 수행 점검


재가안거 동안거에 동참한 홍법사 동림법회 어린이들이 주지 심산 스님에게 수행 점검을 받고 있다.

동림어린이법회 30여 명 참가
20일간 사경 등 수행 정진
3대 함께하는 수계식 계획

부산지역 어린이들이 겨울 재가안거 수행에 동참했다. 가족과 함께 매일 사불과 사경을 통한 수행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가족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구랍 20일 '동림 어린이 90일 재가안거' 1차 수행점검 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동림 자모회 모임인 '세향공덕회' 회원 20여 명, 동림어린이 법회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전에 삼귀의를 올리고, 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이어 구랍 1일부터 작성한 수행교재 '관세음보살 42수 수인 사불' 과 '한글반야심경 사경집' 을 들고 주지스님에게 다가갔다. 어린이들은 수행교재를 하나씩 펼치며 스님의 확인 도장과 격려금을 받았다. 교재에는 매일 사불하며 마음으로 기도한 발원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 과 '행복', '지혜' 등 아름다운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수행하는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잘 이겨냈고 어느덧 20일이 지났다"면서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따라 적으며 수행을 잘하고 있어 기쁘다. 더욱 큰 성장이 앞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란주(금양중 · 13) 학생은 "한글 반야심경을 하는 동안 보살이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는다"며 "또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니 더욱 집중도 잘되고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사불 수행을 하는 초등학교 김민재(당감초 · 9) 학생은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 부처님의 손을 그리고 기도하며 등교하고 있다.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모회는 동림 어린이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자모회 회원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사불교재를 편찬하고, 수행 및 개인 발원문 읽기, 수행 일기를 집에서 지도한다.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모회 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수행내용을 모두 SNS 네이버밴드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경숙 홍법사 청소년 교육연구소장은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어 최대한 아이들의 수행 동참 의지를 존중했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림 어린이 재가 안거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20일마다 수행을 점검하며 총 5차례 주지 심산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재가 안거 후에는 장학금을 별로도 마련해 참가 어린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홍법사는 어린이 사불과 사경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가족 3대가 함께 수계를 받는 특별한 수계식도 봉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템플스테이, 자유학기제 대안 '주목'

선운사, 중학교 접목 방안 모색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참선을 체험하고 있는 영선중 학생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 템플스테이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2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고창 영선중 학생 57명을 초청해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앞서 18일 연합고사를 마친 3학년 위주로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범종 타종, 예불, 명상,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며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울력 등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선운사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학생과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관심과 돌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주지 경우 스님 "고창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간 화합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현예나(영선중 3) 양은 "스님들의 예불모습을 TV에서 볼 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며 "우리고장의 명소인 선운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잠시 공부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심신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선운사 연수국장 정혜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자유학기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9교구 신도회 총회 및 송년의 밤

교구 감사 우수사찰 3곳 시상도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회장 손창수)는 구랍 17일 대구문화웨딩에서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및 소임국장스님과 각 말사 주지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 신도회장, 각 말사 신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시상식과 행복바라미 지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교구감사에서 우수사찰로 선정된 성주 관운사 주지 지산 스님과 죽림사 주지 법성스님, 대비사 주지 지연 스님이 상과 부상을 받았다. 특히 수행과 봉사로 전법교화 및 불교발전에 공헌한 점도 인정됐다.

이어 감사패는 성지암 주지 대윤스님, 금강사 주지 청수 스님이, 공로패는 유가사 신도회 곽동화 불자 외 4곳 사찰 신도회가 수상했다.

이날 제9교구 신도회는 총회 안건으로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신도회 조직구성의 건, 신도회 활성화 방안의 건을 다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희망의 등불 환히 비추어라!"

부산시설공단이 주최하고, 부산등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송구영신한마당축제' 가 구랍 2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이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과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등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수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

하성미 기자

대응공사, 2000명에게 팥죽 대중공양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응공사(주지 도경)가 구랍 22일 동지를 맞아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에게 팥죽 대중공양을 했다.

대중공양에는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학생들과 홍지만 국회의원,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 반야회 및 청심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응공사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와룡시장 일대에서 지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팥죽을 전달했다.

주지 도경 스님은 "불자들이 을미년 한 해를 삼독심, 삼업장을 참회하며 보냈다. 모든 것을 나눠줄 뿐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대중공양에 나섰다"면서 "항상 베푸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참불자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응공사는 매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2015전진대회

김정연 단장, 제9대 단장 연임



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한 포교사들의 회향잔치가 열렸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구랍 20일 광주 수자타에서 '2015포교사 전진대회' 를 개최하고, 1년간 활동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과 격려의 시간을 진행했다.〈사진〉

행사는 前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노휴 스님,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시상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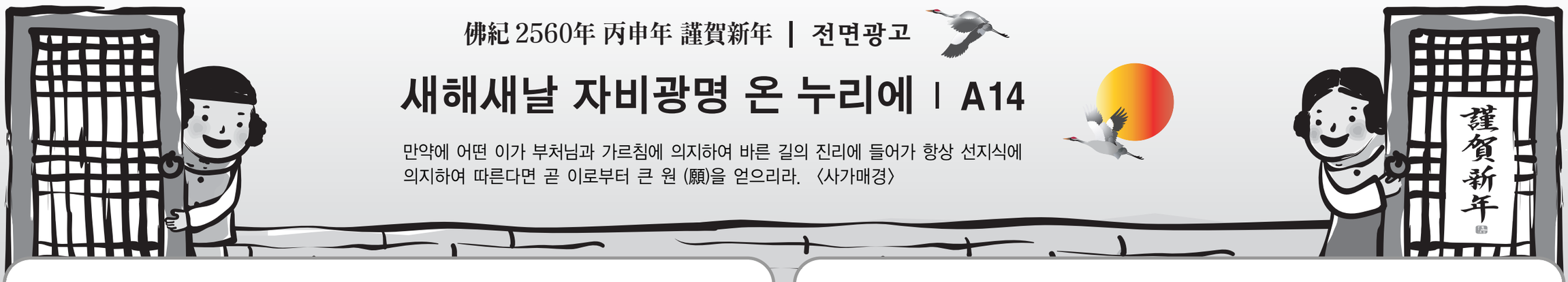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 공로패는 수자타 대표 혜법 스님과 소년원팀 정두애 포교사가 수상했다. 총재상은 염불봉사팀 권말려, 포교사단장상 김성일 · 김미옥 포교사, 지역단장상 이순옥 · 강성덕 · 반재연 · 노명숙 · 김진희 · 문선순 · 박종무 · 안광선 · 정명선 · 홍경옥 포교사가 받았다.

제8대에 이어 제9대 광주전남지역단장을 연임하게 된 김정연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교일선에서 수행하시는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년에도 호남불교의 발전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1년간 진행한 행복바라미 모금액 680만원에 대한 전달식도 열려 지역 청소년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4

만약에 어떤 이가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른 길의 진리에 들어가 항상 선지식에 의지하여 따른다면 곧 이로부터 큰 원 (願)을 얻으리라. 〈사가매경〉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광 포교원장 무공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상. 자운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안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사회부장 보련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심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보정 포교국장 정심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 철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법 진 종회부의장 상 운

총무부장 보 성 역경부장 혜 광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봉 산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 광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 광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 승
부 종 정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 회 의 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 무 부 장 성우 교 무 부 장 정현
규 정 부 장 혜륜 사 회 부 장 불암 재 무 부 장 송광

사 정 원 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 교 원 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 화 원 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 선 원 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 획 원 장 성각
교 육 원 장 남륜

서울경기교구원장 보 명 충 남 교 구 원 장 지 향
충 북 교 구 원 장 지 허 경남울산교구원장 해 산
전라남북교구원장 명 재 대구경북교구원장 어 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근혜 혜인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대 화
부종정 법 용
사 서 경 산

총무원장 만 혁
사 서 해 인

종회의장 대운
부 의 장 자광
지명

원로원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청운
문화원장 보경 의전원장 두산 염불원장 광수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감찰부장 도일
사회부장 정오 복지부장 지연 포교부장 용담 조직부장 원광

부산경남교구종무원장 지명 대전충남교구종무원장 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자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종회의원 :
원각. 자관. 용담. 부용. 현문. 심공. 승준. 수혜. 해인. 대광. 성안. 광덕. 지선. 진묘. 지명. 혜은. 혜경. 혜원. 시현. 관공. 성문.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련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김광명화. 이대각화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총무원장)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 031)675-0307, 676-3960 / 회장 핸드폰 010-8930-1578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혜암 경기서부종무원장 교령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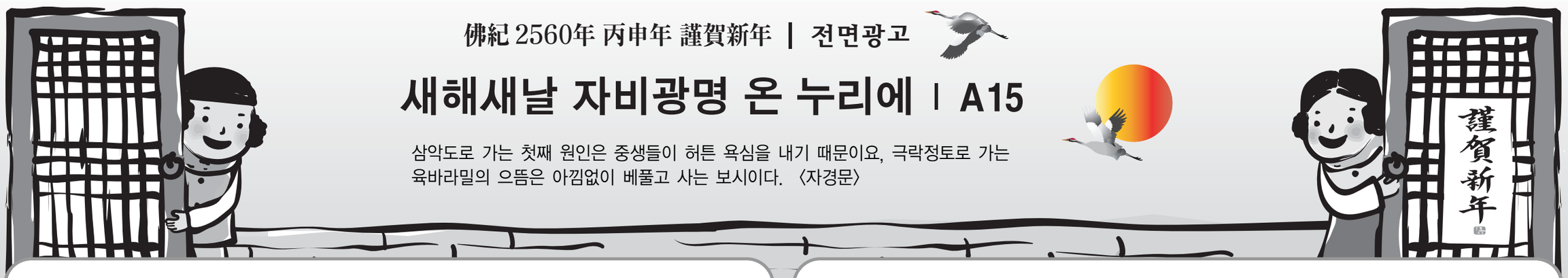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5

삼악도로 가는 첫째 원인은 중생들이 허튼 욕심을 내기 때문이요, 극락정토로 가는 육바라밀의 으뜸은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보시이다. 〈자경문〉



(사)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담 심월** 승정원장 **행허 보경**

총무원장 **덕우 대은** 중앙감찰원장 **행성 덕성** 중앙종회의장 **행봉 해륜**

승정위원 **원봉. 혜공. 법광** 중앙종회부의장 **운성**

중앙호법원장 **혜천** 중앙문화원장 **행오** 중앙교육원장 **광혜** 중앙포교원장 **해권**

서울종무원장 **행진** 경기종무원장 **행민** 부산종무원장 **정민** 남해종무원장 **청운**
경북종무원장 **운성** 경남종무원장 **청정** 영동종무원장 **혜오** 강원종무원장 **혜각**
영남종무원장 **혜오** 충북교구원장 **도선**

총무부장 **고우** 재무부장 **지원** 사회부장 **범일** 포교부장 **월광**
문화부장 **송담** 규정부장 **소담**

전 종도 일동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 전화 02)2091-0408 팩스 02)952-0408

(사)대한불교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위원 : **지안. 강명. 대응** 총무국장 : **관보** 서울종무원장 : **지선** 중앙종회의장 : **대광**
사정원장 : **소운** 교무부장 : **현진** 사회국장 : **관덕** 부산종무원장 : **혜명**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포교원장 : **천광** 사회부장 : **법산** 문화국장 : **법지** 대구종무원장 : **강명**
교육원장 : **성운** 재무부장 : **선혜** 포교국장 : **용운** 인천종무원장 : **원각**
참선원장 : **선담** 호법부장 : **선우** 교육국장 : **수운** 울산종무원장 : **석천**
홍보원장 : **해암** 문화부장 : **법연** 홍보국장 : **인광**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연구원장 : **보월** 포교부장 : **선명** 연구국장 : **무상** 경기북부종무원장 : **지월**
역경원장 : **인덕** 교육부장 : **원각** 역경국장 : **임오** 경기남부종무원장 : **원각**
복지원장 : **석존** 홍보부장 : **법성** 교무국장 : **지묘** 강원종무원장 : **석존**
포교부원장 : **진광** 역경부장 : **법화** 복지국장 : **도법** 충남종무원장 : **원상**
복지부장 : **법은** 재무국장 : **해명** 충북종무원장 : **송암**
비구니부장 : **대화** 경북종무원장 : **보공**
경남종무원장 : **일공** 사무국장 : **용산**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기솔리 33-1) /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web4.myqr.co.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1@naver.com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사 정 부 장 **백파**
중 앙 포 교 원 원 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 육 부 장 **무진** 중 앙 선 원 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 남 종 무 원 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기 획 원 장 **설담 보현** 포 교 원 장 **수미 길상** 문 화 원 장 **정견**
사 서 실 장 **조능** 교 육 원 장 **조해** 호 법 원 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불.법.승

(사) 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법천** **종 회 의 장 대행**

부 원 장 **법경** 고시원장 **해룡**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종회의원 **법융. 법성. 법공. 계월. 법전. 대산. 해봉. 성현 (外 21名)**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청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기획실장 **선묵**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법보**
총무국장 **지일** 포교국장 **도원** 교육국장 **도선** 조사국장 **도석**
사회국장 **도암**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손은진**
법무부법사단장 **법성** 비구니회장 **법화**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전화 055)338-0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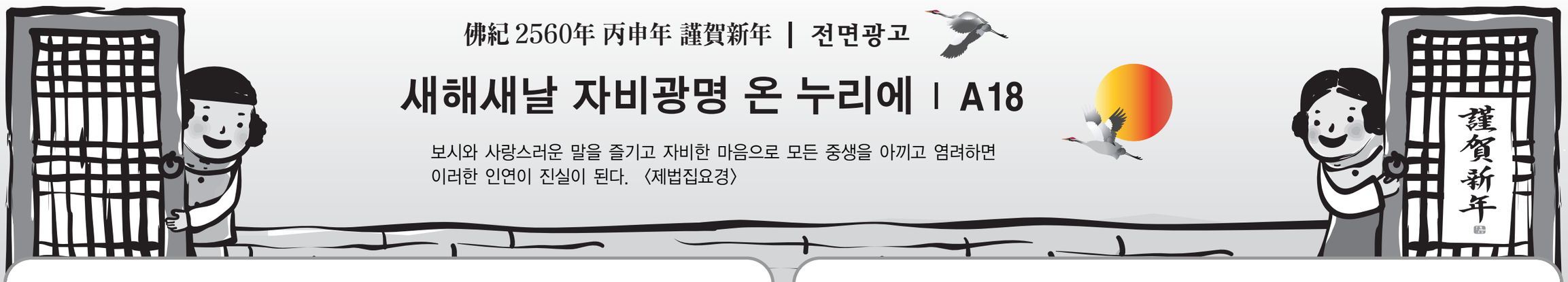
(사) 대한불교선교종

종 정 진성 법운
이 사 장 호월 화엄

총무원장 **원경 삼주**

전 종도 일동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 / 전화 041)566-2277.8 팩스 041)566-6141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8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을 즐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염려하면
이러한 인연이 진실이 된다. 〈제법집요경〉

(財)韓國佛教如來宗

종정 **인왕** 큰스님
종회의장 **월명** 원로원장 **능엄**
총무원장 **명안** 행정원장 **호공** 포교원장 **혜안**

총무부장 **혜광** 문화부장 **덕현** 사서실장 **일연** 감찰부장 **도명**
연수부장 **묘선** 포교부장 **성현** 사회부장 **정암 법사** 복지부장 **연지 법사**
영상홍보부장 **육단 법사** 영상홍보차장 **도해 법사**

총무국장 **지덕** 교무국장 **보련** 재무국장 **묘각** 교육국장 **만공**
교화국장 **대하** 연수국장 **혜연** 포교국장 **법성** 복지국장 **보연화 법사**

강원교구 **연정** 경기교구 **연경** 경남교구 **연덕** 경북교구 **연수**
서울교구 **연선 법사** 전남교구 **연담** 충남교구 **도명** 충북교구 **연각**

종도부회장 **성현. 묘선** 종도회총무 **혜연** 비구니회장 **묘선** 비구니회총무 **묘각**

법사회회장 **정암 법사** 법사회부회장 **연지 법사** 법사회총무 **견성화 법사**
영산범음범패연구원장 **청계** 수석위원 **일공** 사무총장 **만공** 총무 **묘선**
여래실상연구원장 **김용표 교수**

■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금강휴게소 강건너) 대약사사 / 전화 043)731-2261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 종 정 **성주. 혜원**

총 무 원 장 **동화** 종 회 의 장 **성해** 원 로 원 장 **효덕** 교 육 원 장 **해인**
포 교 원 장 **도선** 문화예술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 지방 종무원장 및 종회의원

법성. 법인. 명호. 성문. 천봉. 법진. 고암. 성광. 혜원. 시광. 현광. 광운. 해초. 해원. 자은. 덕행. 상락. 해일. 청정. 혜선. 명진. 정봉. 묵현. 해광. 원각. 법연. 고암. 진국. 삼관. 농해. 수월. 자명. 수경. 연담. 도헌. 성수. 진광. 도관. 진각. 우하. 대산. 진오. 대현. 종진. 진허. 혜연. 정관. 화림. 승주. 도연. 연화. 도영. 지한. 단운. 여의주. 대덕화. 보리심. 천모성월. 길상화. 미서경

적극적으로 입종을 환영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 총무원 보광사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 전화 042)284-3929 /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 허 석 법 수**

총무원장 **박 일 초** 종회의장 **우 원 경**

법인이사 **유수만. 박치훈. 우덕환. 김혜옥. 우요찬. 이자원. 이거희**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 (부평동) 인해빌딩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9-6709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사) 대한불교일승종

종 정 **능허 혜정** 사 서 실 장 **정환**
기획부종정 **혜득** 승정부종정 **혜인**

원로원장 **정법** 원로부원장 **법일**
원로의원 **범공. 원봉. 용법. 인환. 혜암. 선재. 대허. 무장. 불광. 묘암. 남강. 혜인. 묘정. 연화. 일성. 운봉. 혜월. 각화**

중앙종의회의장 **길상** 중앙종회부의장 **봉덕**
중앙종회의원 **청감. 월암. 법보. 일조. 정도. 만공. 정관. 정개. 건공. 경덕. 탄공. 흠공. 시공. 대원. 리공. 원공. 도공. 정공. 홍공. 자운. 명공. 연각. 소공. 서공**

총 무 원 장 **혜정**

호 계 원 장 **길상** 기 획 원 장 **경보** 종 책 원 장 **월암** 교 육 원 장 **봉덕** 포 교 원 장 **법성**
승 보 원 장 **혜성** 규 정 원 장 **동화** 승 정 원 장 **탄공** 비구니회회장 **정휴** 승정부원장 **법정**
포교부원장 **도성** 승보부원장 **정수** 기획부원장 **거암** 교육부원장 **정휴**

재 무 부 장 **자운** 포 교 부 장 **정명** 기 획 부 장 **무량** 승 정 부 장 **혜광**
규 정 부 장 **정함** 종 무 부 장 **성일** 승 보 부 장 **성조**

강원교구종무원장 **법일** 대구경북교구종무원장 **탄공** 경남교구종무원장 **여관**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효정** 부산교구종무원장 **법담** 울산교구종무원장 **법선**
재일본교구종무원장 **곡우**

■ 총무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6번길 14-6 / 전화 031)562-2751
홈페이지 www.ilseung.or.kr / FAX 031)562-2752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현화**

총 무 원 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 원 장 **법전**
고 시 원 장 **혜산** 법 규 원 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 화 원 장 **도인**
감 사 원 장 **효현** 복 지 원 장 **대경** 호 법 원 장 **청암** 교 육 원 장 **증무**
법 사 원 장 **마생** 포 교 원 장 **대안** 감 찰 원 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 무 부 장 **도현** 재 무 부 장 **고운** 교 무 부 장 **경덕** 사 회 부 장 **독성**
복 지 부 장 **덕화** 문 화 부 장 **자은** 조 직 부 장 **무진** 규 정 부 장 **석담**
조 사 부 장 **광덕** 호 법 부 장 **법장** 포 교 부 장 **법묵** 교 육 부 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 문 변 호 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24~2015.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3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5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불교범어진언집	박지명/이서경	하남
8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9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10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챙김 명상으로 당신만의 강점을 혁명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생각의 판을 뒤집어라
제니스 마투라노 지음
안희영 · 김병전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1만 4천원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일 속에서 산다. 하지만 성취감보다는 허탈감, 만족감보다는 후회의 끝에서 이렇게 묻곤 한다. '나 지금 뭐 하고 살지?'

지금까지 명상은 마음 건강을 위한 대처법 정도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제니스 마투라노는 명상,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특효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성으로 집중력, 명료성, 창의성, 연민을 꼽는데, 이 네 가지 특성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해 그는 '마음챙김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이 기업들 사이서 인기를 끌자 다니던 회사(저자는 첵스 시리얼로 유명한 제너럴밀스의 부사장이었다)를 그만두고 마음챙김 리더십 교육 사업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었다.

2014년에 '노틸러스 어워드'(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책에 주는 상) 비즈니스 & 리더십 부문 은상을 수상한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삶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일과 삶, 생산성과 가치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가치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의 CEO 마르코 비자리는 "똑같은 건 없다. 때와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라며 "요즘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역시 중요한 시대다. 기업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면, 기업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이익까지 위기에 처한다. 또 그러한 기업은 좋은 일터로서의 매력도 반감되어 인재들이 기피하는 곳이 되곤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남을 따라하는 데 바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우를 범하기 일쑤다.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계산표만 바라본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인 빌 조지는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성찰을 못해 일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나머지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삶을 생산적으로 만드나

저자는 이 책에서 탁월한 능력의 네 가지 요소로 집중력, 명료성, 창의성, 연민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마음챙김 명상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말한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쉬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둠으로써 현재를 더 명확히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명료성이 길러진다.

저자 "명상, 삶의 생산성 높이는 데 특효"
다보스 포럼 사상 최초로 명상 워크숍 진행
'마음챙김 리더쉽 프로그램' 실용적 소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를 명확하게 보면, 과거의 선입견을 벗고 현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다. 이는 눈앞의 과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뜻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에 따르는 결과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하면, 과거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자연스럽게 모색한다. 이렇게 집중력과 명료성, 창의성이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들면 자연스럽게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조직에 연민이 필요한 이유

어느 식품회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진 적이 있다. 직원들은 불량 시리얼이 출시되는 날에는 "오늘은 먹지 마, 오늘은 그거 한 날이야."라고 서로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회사 직원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이 끼칠 악영향을 잠시 외면한 것 뿐이다. 그 대가로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뒤늦게나마 회수 했고, 한동안 매출 하락을 감수 했다.

도덕적인 개인이 조직에서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깨우침으로써, 세상을 연민으로 대하고 윤리적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기업에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리더가 연민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스스로를 배반하면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한다

일 속에서 스스로를 배반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 저자는 자기를 찾아온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업부 관리자였던 올리비아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잘못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의욕이 과했던 부하직원의 잘못된 제안을, 마감을 앞둔 바쁜 와중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승인한 것이 화근이었다. "계획했던 수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심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의 성패가 그것에 달려 있어서 순간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에 대해 한두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쫓아내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조직의 분위기가 그들을 그런 쪽으로 몰아간 것이 근본 원인임에도 책임은 개인이 진다. 스스로를 배반하면 아무도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하는 와중에 '자신의 가치'를 수시로 돌아보며, 혹시 자신이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럴 때 마음챙김 명상이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제니스 마투라노의 '마음챙김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일터에서 활용하는 생산적 명상법들을 소개해, 누구나 자기 안의 잠재력을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제니스 마투라노는?

첵스 시리얼로 유명한 미국의 식품회사 제너럴밀스서 부사장이자 법무심의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다. 제너럴밀스서 리더를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비즈니스계에서 최고의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2010년, '마음챙김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리더와 직원, 비영리기구의 책임자, 군 장교, 학교 관리자, 변호사, 교사, 의료 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했다. 2013년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재 마음챙김 리더십 센터의 소장으로, 허핑턴포스트에 정기적으로 기고한다.

"고정된 인식 틀에서는 창조 불가능… 불교의 禪 인식 전환 부응"

현대미술, 선(禪)에게 길을 묻다

윤양호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이제는 선을 모르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 독일 작가 우도 클라센의 말이다.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만큼 서양 현대미술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도 없을 것이다. 즉 서양 현대미술에 선(禪)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이 책은 2차대전 이후 서양 현대미술의 흐름과 특성, 그 역사적 · 미술사적 배경, 그 과정에서 현대미술과 선이 만나는 접점 및 주요 작가와 작품세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마치 수필을 쓰듯 가볍게 써내려가고 있어서, 현대미술에 대한 입문서다.

대학서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작품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독일 유학길에 오른다. 그리고 독일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현대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점이 바로 동양적인 정신성, 그중에서도 불교와 선의 정신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물을 몸에 지니고서도 모르던 셈이다. 작가는 독일 예술가들과 불교와 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선방서 선체험을 하면서 현대미술의 흐름과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국내 예술계가 현대미술의 세계적 흐름에 둔감한 탓이었을까? 역설적이게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작가의 작품세계는 국내에서 생소하게 여겨졌다. 이에 작가는 유학시절 유럽의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선조형예술'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문적으로, 그리고 작품활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런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양, 특히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학자나 사상가는 물론이고, 예술가들도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류의 참담한 비극 앞에서 기존의 어떤 사조나 논리도 권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상과 나, 타인과 나, 자연과 나, 세상과 나 등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나 이에 기초한 작품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되었다. 겉모습이 아닌,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육체적 기능에 의해 즉자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됐다. 비록 눈과 귀와 손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존재에게 내재된 본질에 대해, 그 정신에 대해 궁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예술의 본령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어떠한 경우도 모방은 예술이 아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숙명적인 고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다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했다. 고정된 인식의 틀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부응한 것이 불교, 특히 선의 정신이었다. 나와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 자신의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 대상을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신, 사물의 본질에 즉각적으로 치고들어가는 지혜, 어떤 권위도 우상도 인정하지 않은 절대적 자유로움, 어떤 것도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으며,

현대미술과 선이 만나는 접점 상세히 설명
독일 작가들과 '불교와 선' 주제로 토론도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감로수와 같았다. 이처럼 서양의 현대미술은 필연적으로 선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작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천착하는, 현대미술과 선의 융합이라는 화두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은 독일 유학 시절 접하고 느낀 서양 현대미술의 흐름과 특성, 그 역사적 · 미술사적 배경,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현대미술의 영역과 선사상이 만나는 지점, 현대미술의 주요 작가와 작품 등을 다룬다. 이런 주제들이 자칫 딱딱하고 관념적일 수 있지만,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결코 지루하지 않게, 경쾌하게 이 주제들을 소화해낸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젠(ZEN49), 제로(ZERO), 플럭서스(FLUXUS) 등 선적 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일련의 흐름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가치와 선의 정신이 어떻게 통하는지, 예술작품의 조형성과 색, 그리고 컬러가 선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도 클라센, 안토니 따피에스, 마우저, 리차드 세라, 이브 클라인, 볼프강 라이프, 리차드 롱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호	법	명강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福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허
회 주 혜 창
주 지 흥 선

사 부 대 중 일 동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종무소 : 054)429-1700 FAX :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조 실 포산 혜인
회 주 중화 법타
관 장 포봉 돈명

주 지 운곡 돈관 부주지 보월

총무국장 법성 재무국장 혜안 사회국장 진성 포교국장 묘청
호법국장 성본 연수국장 서현 원 주 선국

◆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 054)333-3431

사 부 대 중 일 동

www.eunhae-sa.org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9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 어 사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수 불

총림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www.beomeo.kr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수 좌 중봉 성파
주 지 향전 영배

율 주 중산 혜남 강 주 현진 지형 선 원 장 영일
율 원 장 덕문 박물관장 지준 도 감 범해
총무국장 도문 기획국장 진각 교무국장 진응
재무국장 정안 사회국장 성법 포교국장 선본
호법국장 동수 원 주 도안

총 림 대 중 일 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일 봉근 승
회 주 송성 암혜
동 당 원각 조전
주 지 남호 전성
부주지 등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돈현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안동청소년문화센터관장 등운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이호걸

◆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 (1박 2일)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언제나 누구든지]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 부 대 중 일 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화엄문화템플관 054)833-6933 / 전송 054)834-6935

www.gounsa.net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 산 사

조 실 태공 월주
회 주 금산 도영
주 지 자산 성우

총 무 원 혜
기 획 화 평
교 무 응 묵
재 무 구 담
사 회 덕 림
호 법 덕 운
포 교 지 월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서원노인복지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룸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2016년 丙申年
불기2560년 / 단기4349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힐링사찰 삼광사가
중생들의 마음행복을 위해 정진합니다.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한글대학 / 삼광교육대학 / 삼광다도대학

- 주 지 김 무 원 스님
- 총 무 박도선 스님
- 노 전 정회명 스님
- 교 무 허자용 스님
- 고 문 홍영표, 김석조, 이종화, 전무수, 조임순, 홍경표, 이종수, 장석근, 문학실
- 재 무 손형선 스님
- 신도회장 이 헌 승
-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 재무위원 윤태용, 신명옥
- 사업위원 김성춘
- 복지위원 이정북
- 홍보위원 김규옥
- 문화위원 김명수
- 기획위원 백문기
- 교육위원 정재위
- 부녀위원 정옥순

삼광사에서 봉행하는 법회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정기법회	매월 1일 2일	오전 10시	지관전
간부법회	매월 25일	오전 10시30분	지관전
새신도법회	매월 2·4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문화실
대자비설버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문화실
청소년인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소년단실
법우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소년단실
청년회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문화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녁 8시	문화실
외국인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문화실

대한불교 천태종 일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해운정사 금모선원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극락원

울산에서 유일한
영구 봉안 납골당

- 다양한 형태, 원하는 위치 배정
- 자연 통풍, 채광
- 봉안 영가 설 추석 합동차례

비용,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의장등록 제0362069 정토사 유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전화 052)258-9944, 212-7000

법륜유치원

개원 33년(1983년 6월 1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유아교육기관



법륜유치원은 부처님 품안에서
유아가 행복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부모가 만족하는
불교유아학교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와
꿈을 키우는 법륜유치원

원 장 박 혜 영
설립이사장 해월 선래 스님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60 (칠산동)
전화 : 051)553-7773~4, 070-7664-0038

경 인연을 향기롭게 세상을 향기롭게 축

장안사 주지 스님의 기장불교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연임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장안사 신도회 · 기장불교연합신도회 일동



장안사 대웅전
보물 제 1771호
석조삼세불좌상
보물 제 1824호

■ 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4

자연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고 당 사 (구, 천국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납골당 6천기 봉안도량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www.cheonguksa.co.kr
(인터넷 천국사효자당)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옥계폭포 입구) 전화 043)742-4414. 010-4115-7960

불기2560년 단기4349년 丙申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명예종정 숭산 소림사 방장 **석 영신**

종 정 **석 연화**

❁ 율원장 도선 ❁ 원로원장 돈오 ❁ 총무원장 귀천
❁ 총무국장 혜일 ❁ 해외원장 보현 ❁ 학술원장 청운
❁ 비구니원장 지원 ❁ 사서실장 무영 ❁ 총무부장 혜광

- 서울교구장 혜성(영산선원)
- 경기교구장 혜봉(옥천선원)
- 강원교구장 반야(길상선원)
- 경남교구장 자운(희망사)
- 경북교구장 금붕(길상사)
- 본사 총무 혜광(용화사)
- 경기교구장 수월(수월선원)
- 원주교구장 혜일(보림사)
- 충북교구장 연동(금강사)
- 울산교구장 법붕(보명사)
- 양산교구장 혜문(대용사)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 02)766-6800, 766-6900
중국 숭산 소림사 본찰 미륵산 용 화 사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2리 246번지 용화사
전 화 : 033)761-7008, 766-2556 / FAX : 033)766-2557 서울사무소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이사장 **석 연화**

참여종단 : 대한불교동산조계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대한호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연화조계종, 해동호국불교조계종, 한국육조선원, 호국불교선미륵종, (사)대선불교조계종, (사)대한호국불교원융종,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한국불교극락조계종, (사)한국불교달마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성불교조계종, 대한불교사설사암종 (가,나,다 순)

참여단체 : 나라사랑국민연합, 세계족심도협회, 세계평화유지군월남참전유공자회, 세계예술교류협회, 전국의용소방연합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풍수지리학회, 911재난방송 (가,나,다 순)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승가회

총 재 **무 공**

회 원 일 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出家共同體 總東林 同門會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역대 회장단 : 1대, 2대 회장 성웅스님
3대회장 자용스님
4대회장 정진스님
5대회장 시몽스님
6대회장 지암스님
7대회장 선묵스님
8대회장 종후스님
9대회장 법만스님
10대회장 학명스님
11대회장 무문스님
◆고문 : 자용스님 / 법만스님 / 학명스님
◆자문위원 :경봉스님 / 진우스님 법경스님 / 덕인스님 / 혜진스님
◆명예회장 : 무문스님
◆회장 : 무정 혜정 스님
◆수석부회장 : 도원 혜성 / 원행스님
◆부회장 : 혜인스님 / 승현스님
◆사무총장 : 지담스님
◆총무부장 : 종산스님
◆재무부장 : 하담스님
◆기획실장 : 지련스님
◆대변인 : 지선스님
◆수석감사 : 덕성스님
◆감사 : 성담스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해천스님
◆학술분과위원장 : 설봉스님
◆기획분과위원장 : 법승스님
◆문화분과위원장 : 도성스님

회원 일동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종로오피스텔 1114호
전화 02)735-1053 / 사무총장 010-2313-5671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福 謹賀新年

인연을 향기롭게 세상을 향기롭게

기장불교연합회

제 12대 회장
정 오 스님 외 회원일동

기장불교연합신도회
이재순 회장 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각스님(서림사), 법운스님(보광사) 남운스님(남운정사)
자문위원 법인스님(약천사), 만일스님(미륵암) 동파스님(반야사)
회 장 혜우스님(약수사)
부 회 장 혜원스님(성불사), 승공스님(칠보사)
총무국장 송우스님(해장암)
교육국장 선혜스님(대부암)
복지국장 묘덕스님(문수암)
조직국장 보승스님(무학사)
감 사 해봉스님(백용사)
포교국장 자은스님(성불사)

정홍스님(용주암) 서천스님(미륵암)
성열스님(성관음사) 상현스님(수덕사)
혜성스님(소원사) 보원스님(미타사)
지송스님(지송사)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성불사 대부암 약천사 길상사 문수암 약수사 해장암 무학사 이귀연 외

문 의 : 복지국장 묘덕스님 010-9313-1411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7-08 (예금주 : 사하사암무료급식소)
매주 월, 화 오전 9시

사하구불교신도연합회

회장 김흥남 수석부회장 이용한
총무 박형숙. 김정년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종학(불광사) 법공(칠보정사) 성비(영수암) 경호(법성사)
자문위원장 종선(해경사)
자문위원 무학(성학사) 청암(관음사) 만오(도원사)
회 장 유정(운수사)
수석부회장 성문(선광사)
부 회 장 성관(백운사) 만용(성불사) 대둔(용운사)
총무국장 혜산(봉덕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의전국장 성림(관음사)
사회국장 자륜(낙은사)
문화국장 지관(약수암)
감 사 진각(홍덕암) 법경(광명사)

사상경찰서 경승

고 문 청강(옥천사) 유정(운수사)
실 장 성문(선광사)
경 승 성관(백운사) 성림(관음사) 대둔(용운사) 혜산(봉덕사) 지관(약수암) 법경(광명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갑(홍법)
수석부회장 전수덕
상임부회장 장병주(자광)
상임감사 김명조
자문위원장 심인택(수담)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사무국 010-8581-2045
팩 스 051)862-1024

산사 유람하며 만년 보낸 문장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⑪ 대산 김매순

조선 후기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은 초계문신(抄啓文臣)이었으며 홍석주와 함께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로 칭송되는 문장가이다. 김창흡(金昌翕)의 후손으로, 1795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그는 검열(檢閱), 사인(舍人)을 거쳐 예조 참판, 강화유수에 오르는 등,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변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사후에 판서로 추증되었다. 그의 자는 덕수(德 d이며 대산(臺山), 석릉자(石陵子), 풍서주인(風棲主人)이라는 호를 썼으며 〈대산집〉과 〈주자대전차문표보(朱子大全箚問標補)〉를 남겼다.

학문뿐 아니라 덕행에도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권상하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가 '승지 정약용에게 답하는 글' 에서는 주자(朱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울러 자신의 학문의 치밀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하였고, 그의 의리 판단이 깊고 단단함은 '한음(漢陰)과 백사(白沙) 두 공의 일을 논함' 에서 드러냈다. 그는 문도합일(文道合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학문의 목적을 위선(爲善)에 두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입본궁행(立本躬行)을 중시하였으며, 호락논쟁(湖洛論爭) 양설을 비판, 절충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문(古文)에 밝았던 그는 문장을 짓는 재주뿐 아니라 비평에도 능했고 제문(祭文)을 잘 지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그는 다산 정약용과 인간적인 만남뿐 아니라 학문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는 그의 이용후생이나 경세(經世)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그가 대흥사 승려 초의와 교유했던 것은 다산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초의의 〈일지암시고〉에 초의가 두 번 째 상경길에 오른 이듬해(1831년)에 용호(蓉湖)의 김매순 집을 찾아 시회를 열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초의는 김매순과 친분이 있었던 능산 구행원(綾山 具行遠)과 문산 이재의(文山 李載毅, 1772~1839) 등을 만나 서로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제 김매순은 주자학에 밝았던 인물이지만 적석사(積石寺)나 백운사, 분황사, 화장사(華藏寺)를 유람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또한 불교를 이해하려 했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적석사를 찾아가던 길에 지은 '심적석사도중호운(尋積石寺道中呼韻)' 은 다음과 같다.

추풍 속에 작은 무리(小隊秋風裏)
긴 언덕의 좁은 길에 늘어졌네(厓蹊十里懸)
들쭉날쭉 떨어질 듯한 풍경에 의지하여(參差攀落景)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네(望諸天)
길을 따라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訟許沿途聽)
절에 이르자 시기(詩期)가 원만해지네(詩期到寺圓)
서리 맞은 벼, 반쯤 거두었고(霜 垂半穫)
굽이 굽은 평원을 보네(曲曲見平川)

-〈대산집〉권3

실제 적석사는 어디에 위치한 절이었을까. 불교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보니 적석사는 서울 삼각산에 위치한 절과 고찰인 강화 소재 적석사가 있다. 하지만 굽이 굽은 평원이 보인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찾았던 적석사는 강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때는 가을이었던지 "서리 맞은 벼, 반쯤 거두었다(霜 垂半穫)"고 하였다.

지금의 흑석동에 위치했던 화장사를 찾아 유람하던 때를 그린 '유화장사기(遊華藏寺記)' 는 장문(長文)의 글이지만 말년에 그의 일상이 소상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가 〈금강경〉을 읽었다는 사실과 화장사에서 차를 다려 마셨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그와 함께 유람했던 유신환(1801~1859)은 그의 제자로 성리학에 밝았던 인물이었고, 김상현(1811~1890)도 조선 후기의 문장가로 이름을 드날린 인물이다.

이 글에 의하면 그는 1839년 가을부터 설사병에 걸려 다음해(1840) 봄까지도 거동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유신환(1801~1859)과 김상현(1811~1890)의 유람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자신의 병을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고 여겨 과감하게 화장사 유람을 떠난다. 그 전후 사정은 '유화장사기(遊華藏寺記)' 에 자세한데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울창한 산택(山澤)에서 답답함을 푸는 것이 인삼이나 복령보다 나을 듯하지만 병든 몸을 생각하면 멀리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노량 나루를 건너 남쪽으로 화장사가 있는데 유경형(兪景衡:유신환(兪莘煥))과 김위사(金渭師:김상현(金尙鉉))가 함께 행장을 꾸려 하룻밤을 자고 오기로 약속했지만 비바람 때문에 두 번이나 약속이 어그러졌다.(山澤宣°A 蓼笭不如 顧病軀不堪遠適 聞鷺渡南 有華藏寺可遊 約兪景衡 金渭師 襆被一宿 風雨再愆期) 4월 초 삼일에 안개가 사라지고 햇살이 퍼져 청명하고 따뜻해져 사람에게 알맞았다. 두 벗이 소매를 펄럭이며 나란히 우리 집에 이르니 이미 사람으로 하여금 훨훨 날아오를 듯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孟夏初三 開旭舒 ㅌ嗢可人 二友聯翩踵門 已令人儷儷有飛 ㅆ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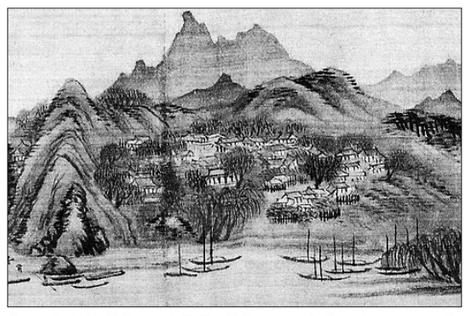
〈중략〉 내가 분연히 말하기를 '나는 갈 것이다' 고 하였다. '그대들은 젊고 씩씩하여 병이 없으니 이에 늙은이 때문에 움직이기를 꺼리는가' 라고 하였더니 모두 껄껄 웃었다.(余奮曰吾則往矣 君輩少壯無病 乃憚爲老夫一動耶 皆粲然而笑) 나는 가마를 타고 위사는 말을 탔으며 경형과 인아는 걸었다. 두 노복은 무거운 짐수레를 맡았는데 간장 한 항아리와 쌀 한 자루, 붓 한 자루와 먹 하나, 당전(중국 종이)수 십 번, 동파시집 두 질이다.(余轎渭師騎 景衡及寅兒徒 二僕領輜重 醢醬ㅣsㅆ 一管一墨 唐箋數十番 東坡詩二)

나와 김상현은 먼저 어귀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곧바로 건넜다. 물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용양정 아래에서 섶을 깔고 앉아 일행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余與渭師先至津頭 刺船徑度 水面如鏡 班荊龍

亭下 候一行齊到) 김상현이 하인과 노새를 도성으로 돌려보냈는데 산길은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을 따라 왼쪽으로 가서 흑석촌을 지나 험준한 산길을 올라 몇 리 쯤 가니 처마와 기와가 나타나고 절 문의 액자를 분별할 만하였다. 몇 승려들이 나와 길을 안내하여 불이정(不二亭)에 올라 자리를 깔고 앉기를 청했다.(渭師遣奚驢入城 以山路不容騎也 循山而左 歷黑石村 登頓崎嶇數里許 ㅁ瓦出而



화장사의 극락보전. 현재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에 있다. 이곳에서 김매순은 말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겸재 정선박물관에 소장된 동작진도. 화장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주자학 기반, 실학에 관심 많아
다산 · 초의와 교류… 親불교 성향
말년 설사병 심해 산사서 머물러
화장사 머문 기록 '유화장사기'
당시 사찰 문화 · 음식 아는 사료

寺門額字可辨 衲子數輩迎導 登不二亭 布席請坐) 난간에 기대어 사방을 바라보니 고운 봉우리가 오른편을 감싸고 맑은 강이 왼 편에 갈라져 흘러서 비록 굉장한 장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하더라도 참으로 보배로운 절이라고 일컬을 만하였다. 조금 있자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였는데 그 형색을 보니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숨을 할딱거리며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하였다. (憑軒四眺 嫩崗右 澄湖左坼 雖乏鉅觀 洵稱寶坊 有頃諸人至 視其色 視汗帶喘 手紛紛ª 也) 두 벗이 별도로 국수와 막걸리를 가져와 아랫사람들도 넉넉하게 줄 만하였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사나워져서 불이정에서 내려와 천천히 돌아서 작은 두 개의 사립문을 지나니 주지 실이 나왔다. 방의 창살은 단정하고 그윽했으며 대자리는 깨끗하였다. 감실에 금부처 하나를 모셔져 있고 아래에는 향을 피우는 오래된 동 향로가 놓여 있는데 모양은 작으나 주루(雕鏤)가 매우 정밀하다. 패엽(불경) 수질이 오른쪽에 서가에 놓여있었다.(二友別齋 麵 有ㅣ逮下 向夕風 j下亭折旋穿過兩小扉 丈室在焉 房ᄆ 深 ㅣ几淸楚 龕供金身一尊 下安焚香古銅 ^體揉小而雕鏤甚精 貝葉數帙架其右) 동쪽 담장 아래에 복숭아나무 5~6주가 바야흐로 만개하여 울긋불긋하게 어리비치고 있었다. 뜰은 넓지 않은데 포도나무 덩굴과 석류를 심은 화분, 아름다운 꽃나무와 괴석들이 치밀하게 늘어놓았는데 종류마다 극품이다. (이)모두가 장로 정심이 조금씩 장만한 것이다.(東墻下 桃花五六株方盛開 緋碧交暎 庭不彌畝 葡棧榴盆 嘉卉怪石 布排纖密 種種有致 皆長老淨心積累摒) (장로와) 더불어 말하니 순진하고 근실함을 취할 만하였다. 조금 있으니 밥이 들어왔는데 밥은 완두콩을 넣어 지었고 반찬은 다시마인데 삶고 데친 것이 법식에 맞아 향기롭고 기름져서 좋아 고기처럼 느껴졌다. 반 그릇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니 예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다. 샘물을 떠서 입을 헹구니 달기가 제호와 같았다.(與之語 醇謹可取 少焉飯入 厥羞淮豆 佐用海組 煮煠中式 芳° 當肉 半鉢膨脖 得未曾有 酌泉嗽齒 甘比醍ㅣ) 빨리 차를 다리게 하여 즐겁게 (차)한 잔을 마시고 다시 나가 불이정에 올라 소요하니 홀연히 엷은 흰 빛이 옷에 어렸다. 위를 쳐다보니 숲 끝에서 솟는 달이 밝고 맑은 달빛을 뿜냈다.(w令瀹茗 痛 V一 u復出亭上逍遙 忽有微白生衣仰視新月出林杪 娟娟弄輝)

〈중략〉 밤이 얼마나 깊은지를 묻자 정심 스님이 밖에 나가 별을 보고 돌아와 말하길 산중엔 종루가 없어 사실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오경(새벽4시경)무렵인 듯합니다. 내가 말하길 내가 피곤하지 않지만 기운을 거칠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옛 사람의 교훈이다.

〈중략〉 마침내 각각 베개를 가지고 돌아누워 깊이 잠들었다. 아침 해가 창문이 환하게 비치자(問夜何其 心師出戶看星還報曰山中無鍾漏 難質言 約莫五更天氣 余曰我不爲疲而無暴其氣古訓也 遂各就枕 熟寐一輾 ㅿ阿炯曙矣) 일어나 세수를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서쪽 작은 요사채에 앉아서 밤사이 지은 시를 읊조리는 소리가 귀에 가득한데 소란하여 불편하였다. 시렁의 〈금강경〉 한 질을 꺼내다가 잠잠히 앉아 이리저리 뒤적이니 심오하여 아는 것이 적어서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았지만 아는 것은 종종 분명하게 깨우침이 있었다.(起而 ㅿ洗 諸人方在西小寮 賦夜間所拈韻 吟 盈耳 攪之不便 取架上金剛經一卷 默坐披 m奧晦多難通而其可通者往往 然發省)

이미 그가 병환이 깊었던 사실은 '유화장사기(遊華藏寺記)' 에서 확인된다. 그의 졸년(卒年)이 1840년이다. 따라서 그는 화장사를 다녀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듯하다. 아무튼 그는 화장사의 장로 정심 스님과 하루 밤의 인연을 맺었고 〈금강경〉을 읽으며 "심오하여 아는 것이 적어서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았지만 아는 것은 종종 분명하게 깨우침이 있었다"고 한 사실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승려 정심의 수행 일면이나 사찰의 규모 이외에도 음식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고, 당시 유자(儒者)들이 산천을 유람할 때 차를 휴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셈이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사)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총무원장 권한대행 보성 자현

종회의장 덕산

포교원장 정각 교육원장 혜명 감찰원장 원광
총무부장 법광 조직부장 성운 사회부장 도애
문화부장 인공 비구니회 회장 혜성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7번기 29(주교동) 031)962-523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하여 한국불교중흥조 경허선사로 부터 법맥을 이어받은 만공선사 포산선사, 우각도일선사의 전법을 전수한 유일한 종단입니다.

명예종정 일파당 각암대종사
대 종 정 고봉당 지산대종사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대웅당 혜송
중앙연수원장 대연당 동담 사서실장 청아

원로의장 범아 종회의장 법장 법계고시위원장 혜암
승정원장 덕암 사정원장 도안 중앙선원장 혜광
교육원장 무아 포교원장 효천 율원원장 두현
호계원장 용진 염불원장 상호 문화원장 혜천
총무부장 인연 재무부장 수연 교육부장 응수 호법부장 보관
사회부장 도법 규정부장 혜중 비구니부장 보현 문화부장 연제
경기교구종무원장 인덕 인천교구종무원장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원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무정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5명. 등록사찰수 406개 사찰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325-0400 팩스 053)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도선사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법통 정립, 조선 불교 정체성 확립 기여

23. 임제법통 성립과 문파 형성

조선불교의 전통과 법맥에 대한 인식이 최초로 표명된 것은 17세기 전반으로 이때 확정된 것이 바로 '임제태고법통'이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선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당시 공인된 법맥 계보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제법통에 내재된 불교사 인식은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의식을 투영한 것이었고, 앞서 정립된 사림의 도통론과 정통주의라는 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한편 17세기 전반에는 청허 휴정(1520~1604)과 동문 부휴 선수(1543~1615)의 계보를 이은 청허계와 부휴계의 계파 및 문파가 형성되었다.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조직화된 문파의 형성에 촉매제가 된 것이, 바로 동일한 법맥 계보임을 선포한 법통의 성립이었다.

조선후기 불교의 사상 및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방향을 연 청허 휴정은, 조사인 벽송 지엄, 자신의 전법사 부용 영관과 수계사 경성 일선의 행적을 다룬 〈삼로행적〉에서 법맥 계보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였다. 즉 벽송 지엄이 간화선을 주창한 송의 대혜종고와 원의 임제종 선승 고봉 원묘를 멀리 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대사가 해외의 사람으로서 5백 년 전의 종파를 은밀하게 이었으니 이는 유교의 정자와 주자가 천년 뒤에 나와 멀리 공자와 맹자를 이은 것과 같다. 유자나 승려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지엄은 실제로 〈대혜어록〉을 보고 의심을 깨뜨렸고 〈고봉선요〉을 통해 지해를 떨쳐냈다고 하며, 이는 이들에 대한 법맥 계승 인식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휴정은 지엄이 "연희 교사로부터 원돈의 교의를, 정심 선사로부터 서래의 밀지를 배우고 깨쳤다"고 기록하였지만, 임제종 간화선풍의 계승을 강조하였을 뿐 정심 이전의 법맥 전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604년 휴정이 입적하고 1610년 사명 유정(1544~1610)의 입적을 계기로 1612년에 허균이 쓴 최초의 법통설이 나왔다. 이는 유정의 유촉에 의해 그의 문도들이 주도한 것으로, 유학자 관료이자 〈홍길동전〉의 저자이기도 했던 허균은 유정과 매우 가까운 독실한 불자였다. 허균의 법통설은 법안종, 임제종, 조동종 등 고려시대의 다양한 선종 전통과 보조 지눌을 강조하였고 이어 고려 말 나옹 혜근(1320~1376)이 중국의 평산 처림에게 전수해 온 임제종 법맥이 휴정에게 이어졌다는 '고려나옹법통'이었다.

하지만 1618년 허균이 역모죄로 죽은 후, 1625년부터 1640년까지 휴정의 말년 제자 편양 언기(1581~1644)가 주도하여 새로운 법통설이 제기되었다. 이는 고려의 선종 전통을 배제하고 고려 말 태고 보우(1301~1382)가 원의 석옥 청공에게 전수받은 임제종 법맥을 정통으로 내세운 '임제태고법통'이었다. 그 법맥 계보는 석옥 청공-태고 보우-환암 혼수-귀곡 각운-벽계 정심-벽송 지엄-부용 영관-청허 휴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 임제태고법통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에도 반영되어, 선종의 초조 도의, 조계종 중천조 보조 지눌, 법통상의 중흥조 태고 보우라는 종조 인식으로 나타나 있다. 임제태고법통은 한문 4대가를 비롯한 당대의 명문장가, 또는 고위관료에게 언기가 글을 부탁하여 새로 만든 휴정의 비와 문집 서문에 명시되었다. 또한 유정의 문손들을 비롯한 여러 산문의 공의를 모으는 노력 끝에 당시 불교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법통설이 제기된 17세기 전반은 명청 교체기로 불리는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체제 전환기였다. 조선에서는 1623년 광해군의 패륜과 명에 대한 '재조지은' 위배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화이론에 입각한 의리명분론이 시대사조로써 일세를 풍미하였다. 당시 불교계에서도 "조선에 은택이 미쳐 상서로움과 복을 일으키고 명 황실을 영원토록 돕기를 기원"하였고, 병자호란 직후 청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환국을 비는 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명분과 정통론이 강조된 시대 분위기에서 중화의 정통 계승을 표명한 법통인식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법통에는 중국불교의 정수인 임제법통을 조선불교가 계승한다는 정통론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점은 당시 정립되어 있던 유교의 도통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집권세력이었던 사림의 공식 역사인식인 도통론은 송의 주자 성리학이 원대에 고려로 전해졌고 이후 그 도통이 재야의 학맥을 통해 당시까지 이어져왔다는 중화 정통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역성혁명을 반대한 정몽주-길재의 계보를 내세운 사림의 도통론은 16세기 중반 이황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또한 선조대에 들어 유교 명현에 대한 문묘종사 논의가 제기되었고 광해군 초인 1610년에 유교 5현이 문묘에 종사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 서원에서도 조선의 명현을 추숭하고 제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같은 시기에 불교에서도 법맥상의 조사를 향사하고 현창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났다.

법통은 도통론에서 조선 개창세력 대신 재야의 도학 전수를 정통으로 본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즉 조선 초에 왕실이나 훈척과 연계되어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던 무학 자초, 함허 기화, 신미와 수미, 학열과 학조 등 나옹계 주류가 배제되었다. 대신 귀곡 각운과 같은 비주류 계보를 내세워 1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 벽계 정심과 사승관계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무리수를 두었다. 이는 도통론에서 드러난, 훈척세력을 배제한 사림의 재야 중심의 계보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처럼 법통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대흥사 일주문 옆 부도군 전경. 이곳에 청허 휴정 등 조선 고승의 부도와 비문이 조성돼 있다.



청허 휴정의 비문.

17세기 전반 '임제태고법통' 정립
한국불교 정체성, '선종' 자리매김
청허, 부휴계 문파가 먼저 형성돼

법통, 유교 '도통론'과 유사 구조
당시 시대상·역사인식 그대로 담겨

한편 법통의 정립은 교단의 조직화와 정체성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계파 및 문파의 형성과 연동되는 문제였다. 또한 문파의 형성은 법통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화된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족을 중심으로 부계 위주의 유교적, 종법적 친족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유력한 가문들에서 문중 조직과 종족촌(집성촌), 족분(선산) 등이 만들어졌고 가문의식이 강조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친족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자가례〉에 의거한 예학이 중시되었고 족보 편찬이 성행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앞서 전쟁을 치르며 조직화된 불교 교단에서도 임제법통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법맥의 계승을 골자로 하는 계보와 문파가 형성된 것이다.

조선후기 불교교단은 청허 휴정의 청허계와 부휴 선수의 부휴계, 양대 계파로 이루어졌다. 이 중 명종대에 승과를 거쳐 선교양종 판사를 겸임하고 임진왜란 때 팔도도총섭으로 의승군을 이끌었던 휴정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청허계의 규모와 비중이 훨씬 컸다. 18세기 후반에 나온 '해동불조원류'에는 전법을 기준으로 한 청허계와 부휴계의 계보가 망라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허계는 편양문파, 사명문파, 소요문파, 정관문파의 4대 문파로 구성되었다. 편양 언기(1581~1644)를 조사로 하는 편양파는 최대 문파로서 휴정의 입적지인 묘향산과 금강산 등 북방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주류계보의 고승들이 호남과 영남 등 남방까지 진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휴정의 적전이자 임진왜란 때 크게 활약했던 사명 유정(1544~1610)의 사명파는 17세기 전반까지는 청허계 대표문파의 위상을 가졌다. 하지만 금강산 일대와 영남지역을 세력권으로 한 사명파는 18세기 이후 점차 약화되었다. 소요 태능(1562~1649)의 소요파와 정관 일선(1533~1608)의 정관파는 처음부터 지리산과 호남을 주된 근거지로 하였고, 특히 소요파는 19세기까지도 문파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부휴계는 선수 당대에는 청허계와 다른 계파적 독자성을 내세우지 않았고 부용 영관 문하의 동문 의식이 보다 강하였다. 하지만 선수의 적전 벽암 각성(1575~1660)이 초대 남한산성 팔도도총섭을 역임하고 화엄사, 쌍계사, 법주사 등을 중창하면서 계파의 물적 토대와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부휴계는 1609년 순천 송광사 중창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이후 송광사를 본산으로 삼았고, 호남을 거점으로 해서 호서와 영남 일부까지도 세력을 미쳤다. 백암 성총(1631~1700) 대에 와서는 송광사 창건주인 보조 지눌(1158~1210)의 보조유풍을 선양하며 계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고, 선수부터 부휴계 적전의 탑이 이후 송광사 부도전에 세워지게 되었다.

문파의 형성이나 법통의 성립은 법맥 전수가 사승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공인한 종단이나 종파가 존재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는 소속 종파와 사찰의 수계사, 득도사가 사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17세기 이후는 법통의 정립과 궤를 같이 하여 법을 전해 준 전법사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전법의 시대였다. 이는 도첩 수여와 승적 관리에 대한 법제적 규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맥을 통한 문파 내의 사승관계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방증한다. 17세기 중엽에 나온 불교 상례집에서 스승의 상례기간에 대해 전법스승에 해당하는 수업사와 양육사를 가장 긴 3년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과도기적 현상도 보이는데, 휴정이 전법사 영관과 수계사 일선을 모두 똑같은 스승으로 모셨고 또 일선을 이어 묘향산 보현사에 주석하다가 입적한 것도 수계사에서 전법사로 완전히 이행되기 직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사명 유정의 경우에도 전법 스승인 휴정을 빼고 득도사였던 직지사의 신묵만 스승으로 기재한 후대의 사명파 계보도가 전한다.

계파와 문파의 정립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법맥에 대한 공통인식을 전제로 한다. 17세기 전반에 확립된 임제법통은 선종으로서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16세기 전반의 법제적 폐불 상황에서 실제로 단절되다시피 했던 전법계보를 되살리면서 중국 임제종의 정통을 잇는다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법통의 내용은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를 지향한 휴정의 사상 및 수행체계와도 부합하였다. 법통의 성립은 법맥을 공유하는 계파와 문파의 형성과 맞물려 돌아갔고, 문파별로 근거 사찰, 활동 지역이 정해지고 사제 간의 법맥 전수와 경제적 상속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즉 출가와 득도, 전법뿐 아니라 사찰 및 재정 기반의 계승도 법맥으로 연계된 사제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법맥과 법통을 매개로 한 문파와 근거 사찰의 성립, 사유 재산의 상속은 조선 후기 불교의 존립과 교단 안정화에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福 謹賀新年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대 한 불 교 선 종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재무부장 행 우 포교부장 효 은 사회부장 인 호
홍보부장 행 수 호계부장 심 인 감 사 무 구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행수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TEL 054)701-0505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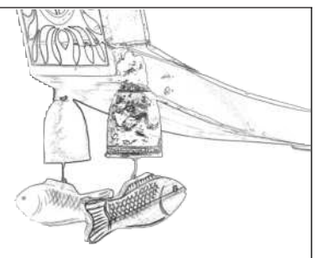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1-0527-5845-43
내 마음의절
010-4500-8234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 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주)
010-3346-2328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제주도)
010-4415-5780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신채 사용 불가,
출 퇴근, 숙식 가능
(경기도 남양주시)
010-6358-3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포교원 창업

서울 강서구 화곡동 2층
남향. 25평중 법당 10
평, 방2, 주방, 화장실, 창
고겸. 보증금 500, 월 60
권리금 없음.
건물주가 협조.
010-5381-1419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주석서를 큰 글자로 연로하신 분이 잘 볼 수 있게 발간 하고자 합니다. 출판에 동참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6505-8004
현황 법려 합장

•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특수 기도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행복불토 (幸福佛土), 행복하면 그곳은 부처님 땅입니다.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참좋은 인연,
소중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험과 성취의 도량, 엘리트 불자가 다니는 도량,33년 대수행 정진 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053-474-8228

대구,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동시모집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기 문 둔 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상동역

이젠 풍수도 과학적이고 정통해야 한다

◆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新 풍수원리 太極山水穴脈地理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며 집안이 흥성한다!!
◆ 발복흥성 혈맥잡는 비술득통!!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음 · 양터가 길흉화복 좌우한다!

▶ 족집게 터감정 진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사업장 주택지 묘지 납골 수목장 등)
※ 비술 전수자 모집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대 상	종단을 구분하지 않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분들 (재가자 – 남신도, 여신도 포함)
모집인원	20명
학 비	연 100만원
개 강 일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강 사 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와 특강강사
교육과정	전문과정:2년 / 연구과정:4년 / 교수사과정:7년
강의시간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문 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사무실 / ☎ 02-414-1222
010-8969-9444 (지암스님)
010-7225-8426 (명혜스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아늑하고 아기자기 예쁜 사찰◀

- 위치 : 경북 청도 (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377평
- 건물 : 목조법당(25평), 요사채(50평), 삼성각(7평), 극락전
- 예쁜 연꽃과 금붕어, 황토방에 전면유리 차방, 계곡물 철철
- 가액 : 6억 5천만원

〈출장비는 받지 않음〉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직통 051-863-6622 / 010-3560-8522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 사찰 안내
- 법당 90㎡, 요사채180㎡, 토지 890㎡
- 조용한 마을 끝사찰
- 양도가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서울
◎ 대지: 65평 ◎ 종교용지:7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100평
◎ 양도: 9억 5천 ◎ 양도: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중량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010-5387-67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주 IC부근 사찰
- 토지 6,100㎡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4억
- 마을뒷편산쪽 안정된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욕실, 방1, 창고, 에어콘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880-1533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8평, 목조건물, 남향
- 요사채 : 방2, 공양간, 화장실
- 평수 157평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암자(급)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위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가능
- 심야전기, 지하수시설
- 가액 : 1억 2천

010-3900-3050

대 형 포 교 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565-7200

사찰 대웅전

- 건평 24평
- 내오포 외삼포

해채 복원하실 인연 찾습니다.

010-4896-010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교통 편리함)
- 대지 : 198평, 건물 : 2층 건물
- 인법당 : 약20평(삼존불, 나한100분, 천수관음, 산신)
- 요사채 : 30평(방2, 거실, 목욕탕, 공양간)
- 대중공양간 : 약15평, 외부창고 2칸
- 탁트인 전망, 기가 모이는 동남향
- 가액 : 일억팔천오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96-7737
041-733-13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 평수 :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51-6056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라오스후원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주지 보 광
사부대중일동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77번가길 72(초읍동)
■ 전화 : 051)809-1420
■ 팩스 : 051)819-1425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용 문 사

주지 성 종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9-29

안성 백련사

주지 태 함
신도일동

사단법인복지법인
둥지마을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TEL 031)674-1861 031)674-1860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4〉 3주차: 몸과 마음을 함께 스트레칭하라

과열과 파열 주기 속 '쉼의 공간'

무뎌진 도끼날 갈기

옛날 아주 머나먼 왕국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 어느 날 사람들이 새 함대를 만드는 데 쓸 나무를 몽땅 베어 오라며 그를 숲으로 보냈다. 허겁지겁 일에 착수한 나무꾼은 쇠도끼로 나무를 하나씩 차례로 쓰러뜨렸다. 몇 주 동안 그는 음식을 몇 입 집어 먹고 이마의 땀을 훔칠 때를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헐떡대며 나무를 베어 냈다. 하루는 한 현명한 노파가 그곳에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나무꾼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나무꾼이 말했다. "할머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도끼날을 갈고 일을 하면 훨씬 빠르고 쉬울 텐데?"

나무꾼이 대답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 오늘 내가 베어야 하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기나 아세요? 도끼날이나 갈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당신도 이 이야기 속의 나무꾼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씨름하는 일은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당신도 이 나무꾼처럼 될 수 있다. 덫에 꼼짝없이 갇혀 완전히 탈진 한 채. 점점 무뎌져 가는 도구를 가지고 더 힘들게 애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괴로움을 피해 달아나고, 다른 일에 정신을 쏟아서 괴로움을 그 속에 묻고, 약물로 통증을 억누르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다시 해 보면 혹시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애써 보려는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혹시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

통증, 괴로움,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 도끼날을 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3주차에서는 통증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과 괴로움을 차츰 달래 줄 새로운 명상을 도입해서 이를 돕겠다.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첫 두 주 동안은 몸과 마음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지금쯤 당신은 마음이 몸에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음을 눈치 챘을 것이다. 이런 긴장감은 다시 통증과 괴로움을 악화한다. 당신이 마음챙김으로 충만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괴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만, 일단 마음이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다시 되돌아온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이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이점도 함께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다. 웃을 때는 더 빨라지고, 화를 낼 때는 느려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씁쓸하고 슬픈 기분이 차츰 해소된다. 미친 듯 지내던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차분해진다. 이 모두가 마음챙김 의식이 자라고 있다는 징조다.

명상을 하는 동안 호흡이 몸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깨달아 본 적이 있는가? 호흡은 가슴과 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을 끝없이 흐르는 호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는 한 곳도 없다. 앞 장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흐르는 호흡이 등, 가슴,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준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면역계와 신경계를 직접 자극해서 치유를 촉진하고 근육, 힘줄, 인대, 뼈, 관절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시키고 재배열시켜 준다.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호흡은 몸의 림프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어 그 부위에서 독소들을 청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 걱정이나 염려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전체적으로 크게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호흡에 집중하면 통증과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호흡은 생명 그 자체다.

이번 주의 수련은 호흡과 끊임없이 흐르는 호흡의 움직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번 주에도 바디 스캔 명상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바디 스캔 명상의 혜택을 보조하기 위해 '마음챙김 동작 명상(Mindfulness Movement meditation)'을 소개하겠다. 좀 더 신체적인 수준에서 스트레스와 통증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는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리기를 반복하는 '과열과 파열(boom and bust)'의 주기를 피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통증 · 괴로움 현명한 대처위해
낡은 방법 버리고 새로 배워야
마음챙김 '동작' 명상이 유용
체력증진 아닌 의식 향상 초점



마음챙김 동작 명상

한동안 통증, 질병,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마음챙김 동작 명상의 부드럽고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동작들이 특히 유용할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고생하다 보면 움직임이 크게 줄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다칠까하는 두려움에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몸을 쓰지 않다 보면 수많은 이차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다 보면 무기력, 메스꺼움, 쑤시는 통증, 숨 막힐 듯한 답답함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몸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느낌이 찾아올 수도 있다.

마음챙김 동작에서 하는 '운동'은 당신이 과거에 시도했던 것과는 무척 다르다. 첫째,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이 아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자세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체력을 증진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디자인된 것도 아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이것을 실천하는 동안 찾아오는 의식의 질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당신의 의식을 몸속 깊은 곳에 두어 자신의 움직임을 다정하게 의식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저 호흡을 더 폭넓은 동작으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동 속에서의 호흡, 혹은 움직이며 하는 명상이라 볼 수도 있다.

마음챙김 동작은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된다. 각각의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적합한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언제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취하도록 하자. 자기 몸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리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에 쏟는 의식의 질임을 늘 명심하자. 만약 운동 중에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런 동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자. 연구에 따르면 이것 역시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 충분히 스트레칭이 안 되도 곤란하니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 따라서 운동과 관련해서 자기 몸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잡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내모는 경향이 있다면 움직이는 동안 이런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나자. 한계의 시작점과 끝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계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예민해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하면서 천천히 해야 한다. 자신의 감각을 조심스럽게 탐색해보자.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면 호흡의 도움을 빌려 움직임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너무 깊이 들어가선 안 된다.

지나치게 무리하면 한계의 끝점에 도달한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몸에 무리가 생기거나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억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면 한계의 끝점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한계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과열과 파열' 극복하기

빅토리아는 마음챙김 동작에서 한계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길을 골라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그녀는 자기가 '과열과 파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빅토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관절염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기만 하면 자신을 조금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밀렸던 집안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내게 그럴 힘이 남아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면 완전 기진맥진하고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조금 나아졌다 싶을 때 정상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통증만 심해졌죠. 이것 때문에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 질 때도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과열과 파열' 주기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통증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아오면 누군들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는가? 과열과 파열의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통증은 심해지고, 에너지는 더욱 고갈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이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건강은 더 잠식당하고 만다. 하지만 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정상적인 일상의 일들이 두려워질 수 있다. 다시 아파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과열과 파열의 주기에 아주 쉽게 붙잡혀 버린다. 이런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자신의 몸과 다시 한 번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 마음챙김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당신이 정신적 ·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은 당신에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조금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그 반대로도 작용한다. 아예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걱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새로워진 활력으로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챙김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삶을 살지 않게 해 준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절망 등의 반사적 느낌을 한 층씩 벗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전체적인 체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줄여 줄 것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 중에서 마음챙김을 고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일생생활에서의 마음챙김이 격식을 차리고 하는 마음챙김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자기의 수고가 들어간 차, 커피, 코코아 등을 마시며 긴장을 풀어 보자.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희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정 무학당 송천 대종사

총무원장 법산
승정원장 무상 대종사 원로원장 월서 대종사

교 육 원 장 정산 포 교 원 장 덕산 감 찰 원 장 학산
고 시 원 장 혜신 참 선 원 장 법일 복 지 원 장 법영
문 화 원 장 덕일 불교대학장 유일환 비구니원장 지명
국제교류원장 정무

중 앙 종 회 의 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종 정 예 경 실 장 청명
총무원장 서서실장 정유
총 무 부 장 정연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지장암)
대구, 경북교구원장 세 현(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남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일성사) / 전화 042)935-2279,524-2149
팩스 042)526-2149 / 사무총장 HP 010-5381-0779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28

귀의할 곳을 만들어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져라. 마음의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다가서지 못한다. 〈법구경〉



익산시사암연합회

회장 일행(정각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4-7 번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이리 불교대학

학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법공 이정상
부단장 강봉 구강식
효선 송동기
감 사 광묵 서훈석
사무국장 법경 강석춘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한국불교태고종

순창 장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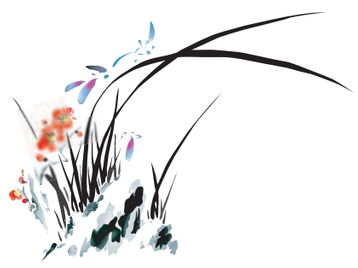
주지 청암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 선 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공든탑을 세우는 도량
자비를 나누는 도량

마이산 탑사

회주 원암 혜명
주지 청파 진성
총무 정해 교무 진송 기획 진원
대화주 태원 박금태 공덕주 묘련 강순덕
신도회장 순도문 이순자
나누우리 봉사단장 감로수 윤복길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갑룡장학회 일동

http://www.maisantapsa.co.kr/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367
TEL 063)433-0012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 국 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능가산 개 암 사

주지 재안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gaeamsa.org/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번지
TEL 063)583-3871



새 아침을 열며

생명 사랑이 인류를 구한다



유자효
시인 · 언론인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丙申)년. 10간(干)에서 붉은 색을 뜻하는 병(丙)과 12지(支)에서 원숭이를 뜻하는 신(申)이 만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생 원숭이가 없어 조금은 생소한 동물이지만, 10간 12지는 당초 고대 중국의 우주관과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남부에는 원숭이가 많아 중국인에게는 친숙한 동물이었다. 중국의 시에서는 원숭이가 자주 등장한다. 그 울음이 슬프게 들려 비애(悲哀)를 표현하는 데 즐겨 차용되곤 했다.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를 '납' 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원숭이를 뜻하는 한자어 원(猿)이 '납원' 인 것이다. 원숭이는 동작이 날쌔고 재빠르다. 그래서 '재다' 의 형용사형 '잰' 이 붙어 '잰납' 이 됐다. 이것이 연음에 의해 '잰나비' 가 되고 음운 변화를 거쳐 '잔나비' 가 된 것이다.

18세기에 와서 잔나비를 한자어로 '원성이' 라고 불렀다. 잔나비를 뜻하는 '원' 에 큰 잔나비 즉 오랑우탄을 뜻하는 '성(?)' 을 붙여 '원성이' 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이 '원승이' 로 변하고 오늘날 '원숭이' 가 됐다.

중국 당사주(唐四柱)에서 원숭이는 천부적인 꾀와 재주, 모사(謀事),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원숭이 띠는 움직임을 좋아해 사교적이고 감각적이며 모방을 잘한다. 성격이 밝은 데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적극성이 있다.

그러나 잔꾀, 성급, 미숙을 나타내고 견실, 끈질김, 어려움을 견디는 각고(刻苦)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표현돼 왔다. 따라서 원숭이 띠는 신중하면서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잔재주가 화근이 돼 큰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일이다.

올해 붉은 원숭이 해는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고, 영리한 아기를 낳게 된다니 출산이 가능한 부부들은 이런 후손을 갖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변화가 많고 격동하는 정보 통신의 시대에는 원숭이 띠의 이런 특징들이 잘 맞는다. 그래서 원숭이 띠들이 다가올 시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936년 병신년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후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그 300년 뒤인 1236년에는 풍전등화에 이른 국운을 살려내기 위해 팔만대장경의 제작이 시작됐다.

그 당시 몽골은 중국을 석권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인류 사상 최대의 세계제국을 건설하던 국운 최전성기였다. 칭기스칸의 잔혹성은 그의 전쟁 스타일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에 먼저 항복할 것을 권한다. 그 나라가 항복해오면 일체 건드리지 않는다. 몽골의 지배하에 둘 뿐 왕실의 지역 자치권도 인정해 준다. 종교도 그대로 갖게 한다. 고유문화도 존중해준다. 그래서 몽골의 세계 대 제국 건설이 가능했던 것이고, 황제국 원(元)과 더불어 여러 칸국(왕국)들이 갖가지 종교와 문화를 가지면서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항전하면 그 나라가 처할 운명은 종말이었다. 싸워서 이기거나 죽거나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해야 했다. 많은 희생과 치열한 전투 후 몽골 군대는 점령지를 철저히 유린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철저한 파괴 뒤 패전국이 가졌던 모든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병사들의 몫이 되었다.

이런 세계제국 몽골군을 상대로 40년을 싸우고도 고려가 나라를 보전했다. 고려는 더욱이 몽골군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나라이기도 하다.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 때, 천민 부락인 처인성에서 불법을 전하던 승려 김윤후는 주민들과 함께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김윤후는 칭기스칸의 차남인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죽여 군대를 철수케 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상장군으로 임명했으나 사양하고 미관말직을 자청했으니 그 겸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열을 가다듬어 재침한 몽골군은 이 지역에 돌 한 개조차 포개어두지 못하게 할 정도로 초토화해 그들의 잔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 "원숭이 해를 맞아
> 국난을 헤쳐가는
> 지혜가 샘솟길 기원합니다"



그림 · 강병호

국난을 맞아 승려에서 무인의 길로 접어들게 된 김윤후는 몽골의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에서 천민들을 이끌고 싸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관노의 문서들을 모두 불태워 천민들을 해방시켰고, 노획품들을 골고루 나눠주었다. 최초의 의병장 김윤후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을 꿰뚫어본 지장이자 덕장이었다.

앞서 거란의 침입 때 대장경을 만들자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갔던 것을 경험한 고려 조정은 2차로 대장경 판각을 시작했다. 이 대장경에 대한 설악무산 스님의 해석이 재미있다. 즉 불가의 최대 덕목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벌레들을 밟아죽이지 않기 위해 우기에 안거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불교의 나라 고려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에 새기기 시작했으니 이는 위대한 생명 사랑의 소산이라는 말씀이었다.

숱한 열강들이 사라져간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아시아의 동쪽 끝 작은 나라 한국이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나라를 보전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 근본 바탕에는 바로 이 생명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세계제국 원이 끝내 고려를 회신(灰燼)시키지 못한 것도 이런 생명 사랑의 정신을 부지불식간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고려는 원의 사위 나라가 되었고, 국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새해 세계는 격동이 예상된다. 중동의 IS(이슬람 국가)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IS의 근본은 이슬람 원리주의다.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이교도들을 유린하던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하기야 기독교의 십자군은 이슬람 세계를 또 얼마나 유린했던가? 오늘날 IS의 유럽 테러는 이런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에 여러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에 비해 유일신은 강경하다. 타협도 힘들다. 그 신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고 했기 때문이다. 신도 인간의 상상력과 믿음이 만든 것인데 그 유일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죽어간다.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강하다고 늘 강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며 연약한 것이 오랜 생명을 가질 수도 있다. 모성(母性)을 보라. 그 얼마나 강한가? 이 모성에 의해 생명들은 이어져간다.

불교 정화 때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던 탄허 스님은 절을 뺏겠다고 아우성치는 대처승들을 보며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저들도 중인데 절을 줘버리면 안될까?'

부처님께서는 모국 카빌라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 단신으로 대군 앞에 선다. 큰 스승 붓다의 이런 모습에 대군은 철군했다. 다시 쳐들어오자 붓다는 다시 나가 막아서 군사를 회군시켰다. 그러나 세번째 침공에는 붓다가 움직이지 않았다.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다. 붓다가 모국에 할 수 일은 다한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명 사랑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군대 앞에서 대장경을 새기던 고려인의 생명 사랑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리고 8백 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정신이 인류의 자산이 되고 있는 것처럼….

社說

2016년, 출가 진흥의 해로 만들자

'위대한 포기' 라고도 불리는 출가는 세속을 벗어나 불문에 귀의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대중적이면서 일반적 인식은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어렵고 고되다' 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인지 불교의 근간이 되는 출가가 위기라는 말이 들린다. 최근 10년 동안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2000년 이후 출가자는 매년 200~3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수계교육이 100~150명 선으로 줄었다. 2015년 열린 제49기 행자교육원에서는 95명만이 입교해 수계를 받았다. 처음으로 100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여행자 감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남행자와 여행자 비율을 1:1 혹은 1:0.8 정도로 유지됐으나 2006년부터 여행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08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1의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가 진흥을 위해 조계종은 그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2012년 청년출가학교를 비롯해 출가 사이트 개설,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다양했다. 이 모든 것이 출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었다. 올해에도 낙후된 출가 사이트 리뉴얼, 출가 포스터 제작, 출가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출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발심 출가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정말 소중한 인재가 퇴사없이 수행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진 계층 포교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출가 예비군들이 불교에 친숙해질 수 있다. 또한 시대에 맞는 다양한 출가 방식과 유형들도 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출가자 감소는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출가 진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2016년 한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 으로 삼고 불교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삼국유사 집필처 인각사 훼손 막아야

고려시대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더불어 한국 고대 사적의 쌍벽을 이루는 역사서이다.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삼국유사〉를 일연 스님이 저술한 집필처가 경북 군위의 인각사다. 하지만 인각사가 최근 난개발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각사 인근에 신설되는 복선전철건설사업의 터널 건설 때문이다.

복선전철과 함께 건설되는 화북터널은 길이 9.18km의 장대 터널로, 인각사 대웅전으로부터 이격거리가 650m에 불과하다. 이대로 공사가 추진될 시 인각사의 수행환경 파괴 및 불교문화재 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주지 대법 스님도 인각사 인근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및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구랍 23일 오후 1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고,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도 구랍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인각사 보호를 주장했다.

법응 스님의 주장처럼 국책사업 · 개발 · 편리성 등 갖가지 이유로 인각사가 훼손당한다면 다른 불교문화자산도 업신여길 것이 분명하다. 불교계가 나서 화북터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불교 유산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길이자 포교활동이기 때문이다.

종단 역시 인각사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인각사는 〈삼국유사〉의 성지이기 때문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후학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해새날 가내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주지 고담
신도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18-6362

문화포교전문도량
동림사
문빈정사 포교당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P 010-6609-8011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 051)271-2774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참선반. 목욕봉사단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계명암
주지 선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051)508-4345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주 혜총
주지 무성
원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정안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경전연구반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2016 丙申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불교는
밝은 마음과
좋은 말씀과
좋은 행을
일으는 말이다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그림 임효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070)4015-2280, (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양보다 질… 인재 출가자가 필요하다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 해남군 미황사에 '내려놓고 바라본다'란 주제로 열린 청년출가학교에서 한 참가자가 자신의 무명초를 잘라내고 있다.

21세기 출가를 말하다

'출가(出家)'의 사전적 의미는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위대한 포기'라고도 불리는 출가는 세속을 벗어나 불문에 귀의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일반적 인식은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를 벗어나 홀로 지혜를 증득해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은 출가의 의미 중 절반에 해당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은 출가 원력의 본령이다.

〈오복덕전경(五福德田經)〉에는 출가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경전에 따른 출가의 목적은 △생로병사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어 수행하기 위함 △사치를 버리고 법복을 입기 위함 △목숨을 다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 △모든 애정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 △대승법을 간절히 구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결국 출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과 함께 자비를 실천하는 대자유의 길이며 여정인 것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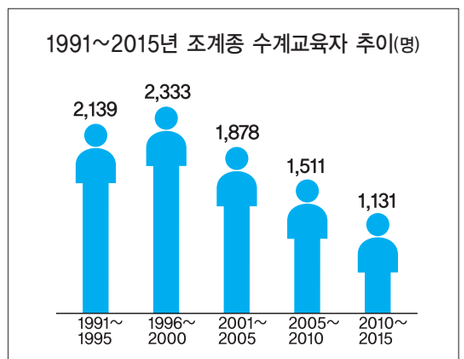
하지만, 불교의 근간이 되는 출가는 21세기 현재 위기다. 최근 10년 동안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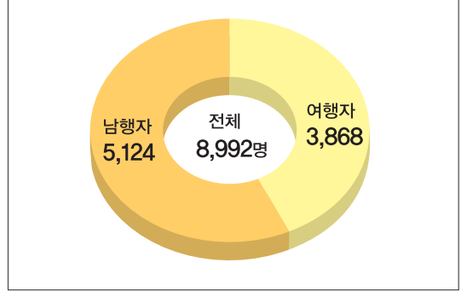
조계종의 경우 수계교육이 도입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400~500명의 행자들이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출가자는 매년 200~3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수계교육이 100~150명 선으로 줄었고 2015년 열린 제49기 행자교육원에서는 95명만이 입교해 수계를 받았다. 처음으로 100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는 10년 단위 수계교육자를 분석하면 추세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계교육이 시작된 1991~2000년 당시 출가자는 4,472명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3,389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출가자는 1,131명으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까지 출가자는 2000명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출가자 감소 현상은 종단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방승가대학의 공교육화 정책과 함께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맞춰 제정된 '승가대학운영에 관한 령'에 따르면 각 승가대학은 학년당 기본 정원과 교수사를 갖춰야 하고, 일정 정도 교육환경도 구축해야 한다. 서울 삼선승가대학이나 지방 소규모 승가대학은 일부 조정되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12곳의 사미승가대학과 4곳의 사미니승가대학, 기본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이다.





단순한 세속 떠남, 출가 아니다
'수행·교화' 출가의 진정한 의미

2000년대 들어 출가자 감소 추세
불교계 '찾아가는 출가 정책' 추진
능력 있는 출가자 배출·양성 관건

태고종 등 불교 주요 종단도 출가자 감소에 고민하고 있다. 태고종 관계자는 "2004년만 해도 200명 수준에 출가자가 현재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관음종도 2010년까지는 1년 한번 합동 수계산림을 했지만 출가자 감소로 2년 한 번으로 수계산림이 축소됐다.

인구 감소·계층포교 붕괴가 원인

이 같은 출가자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출가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1970년 4.53명, 1983년에는 2.1명에서 1999년에는 1.42명으로 낮아졌다. 인구의 감소가 출가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층 포교의 붕괴로 출가 예비군들이 줄었다는 점도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다. 현재도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등 불교 학생회 활동을 통해 출가한 스님이 적지 않지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어지는 포교 라인이 무너지면서 어릴 때부터 불심을 키우며 발심출가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대 출가자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교 수행에 뜻이 있어도 출가를 하지 않고 외국 유명 수행센터에서 단기출가를 경험하면서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능력있는 소수 정예 출가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출가정책

출가자 감소로 인한 변화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입산 출가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출가자 영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지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제정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는 중앙종회 차원의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다.

조계종 청년출가학교도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다. 지난해까지 3기에 걸친 출가학교가 진행됐고, 출가 의사를 밝혀 사문의 길을 걷거나 중앙종무기관에 취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은 출가 의식 확대를 위해 2016년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출가 홍보 예산으로 3500만원이 책정됐다.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출가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출가 사이트를 리뉴얼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출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연과 문화공연, 토크쇼 등이 접목된 '출가 콘서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출가 방식 다양화 논의돼야

이와 함께 출가 계층과 방식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로회의는 출가 연령을 50세로 제한한 것을 폐지할 것으로 중앙종회에 건의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2년 열린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장애인·고령자 등 특수 출가자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응철 교수는 "단기·기간·회향 출가로 출가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간 출가는 5~10년 출가자로서 살다가 다시 속세로 가서 재가자로서 불교를 외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만 불광사의 출가자들도 평균 7년 가량을 스님으로 살다가 속퇴하고 이후에는 교단을 외호하는 불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향 출가는 마지막 삶을 불가에 귀의해 봉사와 수행으로 회향하는 방식"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출가 방식은 전통적인 발심 출가와는 구분돼야 하며, 철저한 심사와 감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원학 주지 원명

총무국장 법원
노전 법상
교무국장 화현
재무국장 덕엄
사회국장 환성
포교국장 혜찬
호법국장 탄준
교육국장 담소
원주국장 제은
템플스테이국장 원경

사부대중 일동



謹賀新年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전화 02)3218-4800 | 팩스 02)544-2141

출가 진흥을 위한 제언

‘출가=자유’ 인식 확산시켜야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 단기출가학교장

12년전 월정사 주지에 부임하면서 출가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단기출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출가자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그동안 왜곡돼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바로 알리자는 의미가 컸습니다.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을 겪으면서 스님들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레 출가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주류적, 은둔적, 폐쇄적, 소극적인 삶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출가는 그 자체가 가치추구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근본적 존재 의미를 해결하는 구도의 길임과 동시에, 세상 속에 구세대비의 원력을 회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출가 속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이분법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행을 통해 불이론(不二論)임을 확립시키고 자비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출가정신 공감 어려워
굳어진 출가 이미지 제고 필요
단기출가 프로그램 권역별 확대
내부 교육 과정 개발 · 변화 필요

하지만 출가자수의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정신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이 심화되고 있어 정신적 가치지향의 삶이 대중들에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가정신을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해도가 부족한 셈입니다.

지난해 열린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에서도 발표됐듯이 지난 10년 사이 남성 출가자는 30%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 출가자는 2배인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출가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인재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을 뿐 아니라 출가자의 명맥마저도 끊길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론이 대두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출가본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가의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구속된 삶이 아니라, 출가 전보다 자기 에고를 해체시키고 인연의 속박과 틀 속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계도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화석처럼 굳어진 ‘출가’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출가자의 감소는 불교계 전반적 추세인 만큼 우리 조계종 뿐 아니라 각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개발해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단기출가 기간도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다양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의 선택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결과 수치가 말해주듯 수료자 2500여명 중 약 10%에 달하는 체험자들이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출신의 출가자수도 불교계 전반적 추세의 역풍을 피해갈 수 없듯이 출가자수는 10년 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감과 감성, 문화적 패턴의 시대 흐름에 맞는 강의와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감성을 담아 출가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출가 체험기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출가의 참의미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계종이 2013년 제정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대한 특별법’ 의 꾸준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승가대학 · 대학원 우선선발 특전, 공찰 주지 우선 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은 출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가한 청소년 출가자수가 1백 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단기출가 · 청년학교… 새로운 출가문화

21세기, 변화하는 출가 방식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이 상원사 적멸보궁에 오르는 길에서 3보1배를 하고 있다.



제2회 미황사 청년출가학교에 참가자들이 스님을 따라 경행하고 있다.



정토회 백일출가 강좌 현장. 현재 26기까지 진행됐다.

시대가 달라졌다. 무명초를 밀어내고 먹물 옷을 입고 엄숙히 행자 생활하는 것만이 출가였던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출가방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발심 출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의 단기출가학교다. 단기출가학교는 2004년 개원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심한 일반인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전 단계인 행자생활을 체험함으로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단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단기출가학교에 들어가면 30일 동안 스님들의 출가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 행자교육과 똑같은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외출과 서신교환, 전화는 사용할 수 없다. 매일 예불과 울력은 물론 자갈길 위에서의 3보1배가 이뤄진다. 마지막에는 3천배 정진도 진행된다. 치열한 정진에 참가자 없을 것 같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출가 문화를 몸소 느꼈다.

단기출가학교의 인연은 수료로 끝나지 않았다. 30일 출가의 인연은 기수별로 맺어져 서로를 경책하면서 함께 도반의 길을 걷고 있다. 또 더러는 큰 발심을 일으켜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조계종에 출가한 스님이 200여 명을 넘어선다.

최근에는 변화도 주고 있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황혼기 단기 출가학교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했다. 기존의 단기출가학교는 20~60세까지 연령 제한으로 고령자들의 참가가 어려웠다. 또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정을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은 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의들이 끊이지 않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심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느슨해진 출가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 불교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단기출가학교 관계자는 “단기출가학교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야 말로 타성에 젖은 스스로의 생활방식을 타파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체득했고, 불교 수행과 산사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기도 했다”면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성공은 배제와 경쟁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어떤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입증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2004년 개교 월정사 단기출가
출가 문화 확산… 세상에 알려
“불교 나아갈 길 보여준 사례”

정토회 ‘백일 출가’ 도 호응 높아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인기몰이’
단기출가학교 설립 종법 제정해

이어 “초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변화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식의 개발은 여전히 과제”라며 “현재 월정사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명상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출가 이후의 심화과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단기출가 재출가나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출가학교’ 사업도 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2014년까지는 교육원 주최로 해남 미황사에서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소관부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 옮겨 월정사에서 ‘청년마음출가학교’ 로 진행됐다.

청년출가학교의 경우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안적 삶’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였다.

2012년 7월 1일 처음 열린 청년출가학교에는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혜민 스님(미국 뉴햄프셔대 교수), 조성택 교수(고려대), 고미숙 씨(고전평론가) 등 쟁쟁한 강사들이 교수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출가학교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270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한국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는 KAIST, 서울대 재학생을 비롯해 화가 지망생, 의대생 등 이력도 가지각색이었다.

이 밖에도 정토회의 백일출가도 호응이 높은 단기 출가 체험이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체험 수기들을 살펴보면 100일 간의 출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음을 말하고 있다.

정토회 백일출가는 만 배 입재로 시작해 나눔의 장-일체의장-불교사상강좌-NGO실무실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 2회 출가자를 받는다.

백일출가자는 조석예불-발우공양-소임-일수행-참회정진-불교사상강좌-마음나누기 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 주인되는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같은 단기 출가는 이제는 종법으로 출가 유형 중 한 가지로 인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했다. 이는 중앙종회 차원의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기출가 운영 사찰은 교구본사별로 둘 수 있게 됐으며, 단기출가자가 1년 이상을 수행생활하고 정식출가절차를 밟을 경우 종단에서 시행하는 2주간의 교육과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중앙원로의장 삼장 (산청군 삼장면 삼장사)
원로의원 대웅. 법수

교육원장 봉덕 (거창읍 중산길 봉덕암, 010-8582-1309)

포교원장 운암 (의령읍 벽화로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 (동래 온천 약수사)
우리춤, 한국무용원장 조론심
총무부장 정무 (수영구 지장암)
재정부장 무여 (동래구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 (전포동 수도암)
홍보부장 청오 (대구 달서구 홍주암)
감사부장 청타 (해운대 관음사)

종단고문변호사 허종범 (부산)
종단 사무처 : 총무 010-4566-4504

중앙종회의장 일봉 (포항 남구 관음사, 011-508-3100)
종회의원 용현. 진여. 무천. 법광. 연화. 범희. 참회. 원희. 관희. 석수. 재현. 혜림. 범주. 덕행. 도경. 관우. 희장. 교각. 법무. 무상. 청곡. 변파. 해광

중앙비구니회장 창회 혜명 (부산 부암 백광사, 010-4751-3806)
비구니부회장 의광 (대구 평리 약사사)
비구니회총무 무여 (부산 동래구 법전사, 011-9505-1560)
비구니회감사 천희 (경주 안강 상원사)
비구니회원 무향. 묘향. 진여. 연화. 참희. 원희. 관희. 범희. 재현. 법광. 혜림. 진설. 법연화

종도와 불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전국각교구원장
총무원직할 (서울교구)
대구종무원장 의 광 (약사사, 016-9884-0860)
울산종무원장 대 일 (마하선원, 010-3434-8034)
거창종무원장 봉덕암 (거창읍, 010-8582-1309)
창원종무원장 범 혜 (부용암, 010-8729-9600)
사천종무원장 무 무 (연지암, 010-4595-2120)
의령종무원장 운 암 (문황사, 010-4551-5143)
포항종무원장 일 봉 (관음사, 011-508-3100)
부산종무원장 무 여 (법전사, 011-9509-1560)
경주종무원장 상원사 (안강읍, 010-3187-6337)

총무원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부산시 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홈 http://www.kukjeav.com 010-3832-8855 수봉 합장

우리춤체조, 한국불교무용연구소 (자격증반 수시모집)
가릉빈가 무용단 (각종불교행사) / 살풀이, 해원무, 오공양작법, 기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9-30 / 051)512-0115
원장 조론심 010-3834-6677

개원 25주년 맞는 조계종 행자교육원

출가의 관문 수계교육… 시대 맞게 변화

출가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은 행자이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행자생활을 거쳐야 한다. 행자들은 본사와 출가 사찰에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수행의 근간이 되는 위의와 습의를 익힌다.

일반적으로 행자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좌차(座次)'와 '하심(下心)'이다. 좌차는 승단의 위계질서를 배우는 것이며, 하심은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와 자비 실천을 체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이다.

물론 행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법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조계종은 종법에 따라 자격을 정해놨다. 연령은 50세 이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세속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형사 상 피의자, 백치 · 중성 · 불구자 · 난치병 환자 등 신체 조건이 승가로서 위신상 부적당한 자는 행자로서 출가하거나 수계교육을 받을 수 없다.

행자 생활의 마지막 관문은 수계교육이다. 종단에 등록을 마친 행자는 5개월 이상 출가 본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행자들은 본사에서 일상 · 입문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일상교육은 행자의 등록사찰에서 행자 등록 후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등록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교육원에서 발송한 행자수첩과 행자교육 지침에 수록된 행자도서목록을 활용해 월간교육 일정에 따라 기초교리, 염불, 습의 등을 익히게 된다.

특히 행자들을 위해 제작된 행자필수교재 11권은 교리와 실천, 독송집, 습의교육, 승가의범, 불교성전,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간화선 입문, 붓다를 만난 사람들,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불교 천자문으로 구성돼 기본적인 불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1년 해인사서 1기 수계
2005년 이후 직지사서 개원
25년 간 8992명 행자 수료
출가자 현황 파악 용이해져

또한 교육원은 2010년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종단에 행자등록을 마친 지 3개월 이내의 행자를 대상으로 종단이 입문교육을 시작했다. 이 시간 동안 종단은 교리와 염불습의, 특강 외에도 상담시간을 운영해 행자들과 소통했다. 입문교육은 행자를 노동력으로 생각해온 사찰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행자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외에도 행자들에게 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중도 퇴사율을 줄였다.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모습. 1991년 개원한 행자교육원을 통해 현재까지 8,892명의 행자가 사미(니) 수계를 받고 출가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화되자 2009년 29.2%에 달했던 행자 퇴사율이 2014년에는 10.6%로 로 줄어들었다.

5개월여 간의 일상교육 등을 마친 행자는 종단 교육원에서 여는 행자교육원의 수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16일간의 수계교육을 수료하고,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행자만이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조계종의 수계 교육은 1991년 8월 26일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원이 개원한 것이 효시이다. 이전 출가자들은 교구본사와 개별 사찰에서 계를 수지했다. 이에 따라 출가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단일계단에서 수계교육이 이뤄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차츰 해결됐다.

이후 조계종은 8월 해인사에서 열린 1기 행자교육을 시작으로 종단은 매년 봄가을로 행자교육을 시행했다. 23일간 진행됐던 행자교육은 2010년 8월 시행된 39기부터 수계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일로 기간이 단축됐다.

장소가 직지사로 고정화 된 것은 2005년 8월 21일 열린 제29기부터다. 이후 2009년 제37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원이 열리고 있다. 이전에는 해인사와 통도사, 범어사, 송광사에서 수계교육이 진행됐다.

25년 간 행자교육원을 통해 수계 교육을 수려한 행자는 총 8,992명이다. 이중 남행자는 5,124명이며, 여행자는 3,868명이다. 10년 단위로 분석하면 1990~2000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행자는 4,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1~2010년에는 3,389명, 2010~2015년에는 1,13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특히 여행자의 감소가 눈에 띈다. 남행자와 여행자의 비율을 1:1 혹은 1:0.8 정도로 유지됐으나 2006년부터 여행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08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1의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제49기 행자교육원에서는 여행자 입교가 31명에 그쳤다.

수계교육기간 행자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전 3시 일어나 예불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사미(니)로서 지켜야 할 계율과 위의, 습의 등을 익히고 특강을 듣는다. 오후 불식하며 교육 중간에 1보 1배와 3보 1배를 하고, 회향 전날 3000배 정진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현응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취임 이후 강의들이 다양했다. 초창기에는 조계종사, 부처님 생애, 초발심자경문, 유교경, 42장경 등 경전 강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수행과 포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강사 중에는 비구니 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 산악인 엄홍길 씨 등도 초청돼 특강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농장 울력부터 心출가까지 종단마다 출가 방식 달라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출가 과정

한국불교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회원 등록된 종단만 20여 개가 넘는다. 이중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은 조계종을 제외하고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다. 전통 방식의 출가를 진행하는 종단도 있지만, 현대에 맞게 출가 방식이 변화한 종단도 있다. 이들 종단의 출가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정리=김주일 · 윤호섭 기자**

태고종은 일반적으로 조계종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태고종 소속 사찰에서 출가해 행자 생활을 시작하며, 종단에서 1년에 한번 선암사에 행자교육원을 개원하면 입교해 집체 교육을 받게 된다. 집체 교육 기간은 3개월로 상당히 길다. 집체 교육을 마치게 되면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열리며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하게 된다.

그 후 2년 간 사미 · 사미니로서 교육이 진행된다. 태고종 교육기관으로는 선암사 강원과 법륜사 중앙강원, 비구니 스님을 양성하는 울산 보덕사 강원이 있다. 또한 동방불교대학에서 불교학과 과정을 이수해도 정식 스님이 될 수 있다.

천태종은 출가 가능 연령을 13~45세로 정하고 있다. 출가희망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채무 및 범죄사항이 없어야 하고, 동진출가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행에 있어 신체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입산이 제한될 수 있다.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 출가상담을 한 뒤 자격이 확인되면 입산대기에 들어간다. 이때는 공양간이나 종단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울력하며 속세의 묵은 때를 벗어낸다.

이후 종정스님의 입산허가를 받아 3년간의 행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행자생활은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원칙으로 한다. 낮에는 대중공양 준비 · 경내 청소 · 농장생활 등을 하고, 밤에는 염불의식 및 강원교육을 이수한다.

강원에서는 천태종 소의경전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불교학개론, 율장, 초발심자경문, 육묘법문 등을 학습하고 강원교육이 끝나면 선방에서 새벽 4시까지 정진한다. 행자생활이 끝나면 3 · 7일간 수계교육을 받은 뒤 수계식에서 종정스님으로부터 법명과 도첩 · 계첩 · 가사 · 법모 등을 받는다.



태고종은 선암사에서 행자교육원과 강원교육이 이뤄진다. 사진은 강원교육까지 마친 사미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는 모습.

밀교종단인 **진각종**은 재가종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다보니 심(心)출가를 원칙으로 하고 출가 종단과 성직자를 양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진각종 성직자인 정사와 전수가 되려면 우선 일반신도 자격으로 개인 수행을 자신이 소속한 지역 심인당서 7년 이상 해야 한다. 이후 각 심인당 주교의 추천을 받아 종단 종무원으로 일하거나 산하기관서 일정 기간 일해야 한다.

필수적인 것은 종단 교육기간인 4년 과정의 진각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진각대학원대학교는 2년의 예비 교육과정과 2년의 본과 교육과정으로 나뉘는데 실제적으로 성직자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이 이뤄진다. 4년 교육이 끝나면 100일간의 예비교화스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종단의 성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문인 최종 아시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결혼을 해야 정사와 전수가 돼서 각 심인당으로 파견돼 교화를 할 수 있는 점도 여느 종단과 다른 점이다.

관음종은 출가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출가 연령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행자교육을 최소 6개월 이상은 받아야 한다. 행자교육은 주로 총 본산인 묘각사와 각 말사에서 이뤄진다. 200여개의 종단 산하 각 말사에서 사미 · 사미니 추천서를 올리면 서류를 검토해 10월 경에 합동 수계산림을 연다.

보통 매년마다 합동 수계식을 열었는데, 출가자수가 감소해 2010년부터는 격년제로 열고 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4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발각정심경〉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사무총장 박대성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멀리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대장부템스'
사무국 ☎ 070-4650-553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동삼동)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www.hanmaumbusan.org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이경순. 문수용
감 사	심산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승표
자살예방위원 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회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4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원 각 사

주지 안 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TEL (051)701-8827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 승(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성 문(조계종 종회의장)
부회장겸 이사장	도 산(태고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춘 광(천태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 회 장	홍 파(관음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 무	방정자
재 무	김명애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9 불교대학 3F 전화 02)702-1708
부산사무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대로 24 종로학원 전화 051)818-342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목종, 진효
사 무 총 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정진완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 무 처 장	김진화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주 지 심 산
(深山)

www.busanbuddhism.net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수관
상임고문	박순곤(직전회장)
고 문	허인구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흥대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상임부회장	박영근
부회장	김수현 이상수 신재철 최삼섭 양재생 배상진 최금식 최주덕
감 사	박형주 윤경석
사무총장	공영석
재무총장	정연식
친목이사	공정근
홍보이사	이현수
기획이사	최대경
섭외이사	배도정
조직이사	박창근
사업이사	최상곤
대외협력이사	장병주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부전동,정산빌딩)
TEL 051)334-0108
FAX 051)898-2674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회 주	법 희
주 지	혜 총
부주지	경 성
총 무	경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어린이집
■ 용당어린이집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출가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다. 지금 여기를 직시하고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교육과 포교 등 일선 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출가 진흥을 위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오라! 출가의 길로



가섭 스님
조계종 출가상담사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어느 날 라자가하의 거리를 거닐고 있던 우빠띠사(사리불존자)는 한 사문의 엄숙한 용모와 고요하고도 위엄 있는 거동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과거 수많은 생을 통해 완성을 성취하고자 노력해 온 우빠띠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바야흐로 결실을 맺을 순간에 이르렀음인지 이날따라 사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유달리 사로잡았다. 이 사문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최초의 다섯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아라한과를 성취한 아싸지(마승존자)였다. 우빠띠사는 이 고상한 사문이 누구의 제자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라한이 탁발을 마칠 때까지 계속 따라갔다.

"벗이여, 당신의 모습은 우아하고, 당신의 눈빛은 맑게 빛납니다. 누가 당신을 출가하도록 설득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법(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20년 전 출가는 행복한 선택
부처님 미소는 당신 향해 있다

아싸지존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듯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교의와 계율을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그 대의만 간략히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빠띠사는 "좋습니다. 벗이여, 적든 많든 좋으실 대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도 그 대의입니다. 장황한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아라한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포용하는 연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게송을 한 수 읊었다.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 그에 관해 여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네. 또 그것의 멸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나니,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라네."

우빠띠사는 이 게송을 듣자 바로 그 뜻을 이해했다.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 임을 그 자리에서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 그는, 서둘러 죽림정사로 갔다. 부처님에게 귀의할 뜻을 사뢰자 부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며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져 있도다. 고귀한 삶을 통해 고를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라."

사리불존자의 출가 인연이야기이다. 삶의 이치를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또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한 사리불존자의 탁월함은 오늘의 모든 수행자들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 사리불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겐 대자유의 삶,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수행자의 길이 언제나 열려있다.

부처님과 같은 수행자가 되겠다고 20여 년 전, 발심출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행자시절 해인사에서 본 새벽의 가야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새해 5일째 되던 날, 해인사에 일주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은 내 삶에서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고,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 그간 부처님 제자로 살면서 받은 불은(佛恩)과 시은(施恩)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출가는 자신을 위한 길인 동시에 이웃을 위한 길이다. 자신의 삶이 정리되었을 때 다른 것들도 정리되는 법이다. 자신의 욕망을 여의는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밝히고 그 수행의 깊이만큼 이웃을 자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정, 이것이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출가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져 있도다. 고귀한 삶을 통해 고를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환한 미소의 그대를 향하고 있다.

삶 직시하고 행복 찾아나선 길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리고 즐겁고 괴로움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 그리고 안주할 곳이 필요하고 가족도 있어야 하고 나를 감싸주는 주위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감은 매우 행복한 일이 된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영원하지도 않거나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지도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삶은 허무해지고 고통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고통의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은 반드시 미래에 다가온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살아감은 죽어감으로 예정된 결과를 안고 있다.

2천6백 여 년 전, 인도 가비라 왕국에서는 귀한 왕자의 탄생으로 온 나라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뒤에 지혜의

석존의 뒤 이은 제자들이 걷고 있다
자리 박차고 길 떠나는 용기 가져라

완성자인 석가모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분으로 호칭되는 석가세존, 곧 석존(釋尊)이다. 석존은 어린 나이에 약육강식의 잔혹함을 알았고, 고통 없는 삶을 사유하면서 고통의 근원을 깨달은 분이다. 모든 고통은 끈질긴 탐욕에서 일어남을 알고서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다함없는 연민의 정을 간직한 분이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의 길을 가르치셨다. 모든 생명에게는 자애로운 어버이이며 인류에게는 큰 스승으로 자리하고 있다. 석존의 가르침을 따라서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불교의 핵심이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 은 자신을 절제하여 약육강식의 자만을 버리는 것이다.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즐거움을 깨달으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 '성냄을 버린다는 것' 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에고이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들 하루의 삶조차 모든 생명의 희생과 노고로 이루어짐을 깨달으면 자연히 모두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갖게 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워라' 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두가 지혜롭지 못해서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다. 1백년도 못살면서 1천년을 살 것처럼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행복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강물이 맑게 흐르기 위해서는 강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남도 배가 고플 것이라고 미루어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석존은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탐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 것이다.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한 유일한 성자가 석존이다. 석존은 천당에 태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 출가인 것이다. 출가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며, 참다운 즐거움인 니르바나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길이기도 하다. 석존은 그 옛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인 출가를 몸소 실천해 보였다. 석존의 뒤를 이어서 무수한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걷고 있다. 얽히고설킨 삶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용기를 일으켜 보라. 출가의 용기를 일으키는 것은 어두운 방에서 전기 스위치를 켜는 행위와 같다. 어둡고 칙칙한 현재의 자기를 벗어던지고 빛이 충만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즐거운 일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권유해 본다.

출가, 대승의 마음 갖는 것



명본 스님
울산 백양사 주지

가끔 일부 사람들로부터 출가 인연을 묻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보지만 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연이 각기 다르듯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동국대에 입학을 하면서 먼저 머리를 깎았다. 나에게 출가는 흔히 말하는 사회와 단절 및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불교를 배우고 싶고 불교학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출가했다. 불교는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 지도자를 이끌어갈 학문으로 메리트가 있었고 그런 방식을 배워보고 싶었던 열망이 컸다. 관심과 인연이 나를 출가로 이끈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병적 수준에 이르렀고, 웰빙과 힐링은 치유의 트렌드가 됐다. 여기에 불교는 많은 대안점이 될 수

불교학 열망이 나를 이끌어
출가는 대자유를 위한 여정

있다.

불교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대자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출가의 길을 걸어가 보길 권한다. 물론, 출가의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지만, 처음의 발심을 유지한다면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여정이다.

출가자 확대를 위해서 종단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출가 수행자 연령의 폭의 차이가 크므로 20대 출가자와 40대 출가자가 같은 방식과 같은 교육을 이수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이 시대의 종교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출가자 확대를 위해서는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인 포교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도심포교' 가 활성화 돼야 한다. 지금의 교구제를 혁신해 도심 교구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광역시가 됐고,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시 안에는 교구가 없다. 포교를 위해 도심 거점 교구본사가 구성돼야 한다. 이제 불교는 포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불교를 배워 발심해야 출가자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가는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 단순히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며 이는 재가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 구성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 개인의 수행 목표를 바탕으로 대승적 마음을 함께 견지하는 것, 이것이 출가의 목적이어야 하며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글을 통해 대중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던 故 법정 스님은 출가를 '자유를 위한 버리고 떠남' 이라고 말하셨다. 관련 글 중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출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반드시 머리 깎고 수도승이 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일반 시민들과 다른 제복을 입고 생활 방식을 달리하면서 사는 것은 종파적인 출가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인 출가는 비본래적인 자기로부터 벗어나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한다. 〈중략〉 훌쩍 떠나 버리면 전부를 한꺼번에 버리게 된다. 더 갖지 못해 부자유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버리고 떠남으로서 오히려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려는 것이다. 내 인생을 살기위해."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선운사 성 보 박 물 관
백 파 사 상 연 구 소
고창군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고창군 노 인 복 지 관
고창군 푸 드 마 켓
선 운 기 초 푸 드 뱅 크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평생 수행과 교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 http://www.seonunsa.org

ACE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gyeongju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명품 ACE 대학으로 2011년, 2015년 또 인정

✓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재진입,
8년 연속 ACE 대학 (2011~2018)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 대학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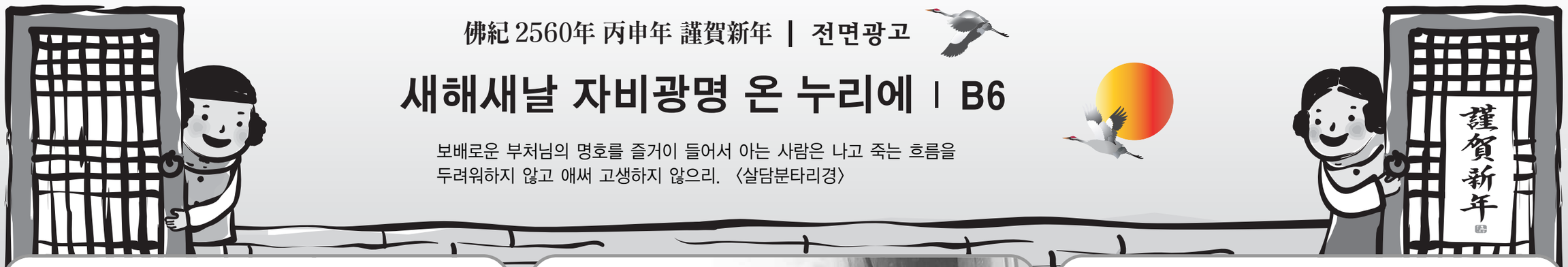
• 교육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3~2017)
• '파라미타 칼리지'에서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 '참사람' 인재 양성
• 신입생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설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2015~)

• 동국엘리트장학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 산업통상자원부 IPTV 기반 문화관광글로벌 방송기반 구축 사업 수행 (2010~2015)
• 미래창조과학부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수행 (2012~2017)
• 미래창조과학부 MICE 산업 경쟁력을 위한 방통융합 스마트 사이니지 시범사업 수행(2015)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6

보배로운 부처님의 명호를 즐거이 들어서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써 고생하지 않으리. 〈살담분타리경〉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 지 도 제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한 글 학 당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목련 합창단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고월당(북카페) – 명사와의 만남
  1월 22일 오후 7시 김현구(전남대 철학과 BK21연구교수)
  2월 19일 오후 7시 강종구(동국대 명상심리학교 교수)
  3월 11일 오후 7시 대견스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종교법인 鹿野禪院

부설 : 불교대학 심청학당. 심청회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77-3번지
TEL 062)365-0108

(사)자비신행회

빛고을 재가불자들의
아름다운 자비나눔 공동체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TEL 062-234-0090

지장도량 미륵사

주지 혜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지 시각

신도회장 무진화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 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증 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고려불화 통해 유럽에 한국불교 알려요”


혜담 스님이 고려불화를 재현하는 모습

프랑스 예술계서 문화특별상 수상한 혜담 스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고려불화를 현재 유럽 등지에서는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불화를 소개해 한국문화와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교에도 나서겠습니다.”

고려불화의 대가 혜담 스님이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축전인 ‘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고려불화 재현작을 출품해 고전과 창작 분야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혜담 스님은 구랍 24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해에는 유럽 각국에서 고려불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에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속초 계태사 주지 혜담 스님은 프랑스국립미술협회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카루젤르 노트르홀에서 구랍 17~21일 개최한 2015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대표작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한 1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한불수교 130년을 고려해 협회 측은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고려불화를 살롱에 전시해 대중에게 소개했다. 프랑스국립예술살롱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고려불화 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마련됐다. 특히 스님은 이번 전시 후 고전, 창작의 두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혜담 스님은 “고려불화는 얼마 남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아 오히려 환수가 난해한

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12점 전시
고려불화 재현, 한국불교문화 알려
“고려불화 아직 일본 것으로 알아”

상황”이라며 “비록 재현이지만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고려불화는 160점 중 130여 점이 일본에 있으며 국내에 있는 것은 2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혜담 스님은 1980년 초부터 고려불화 복원에 앞장서 왔다. 1999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30여회의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9년에는 사단법인 계태사 고려화불연구소를 설립, 학술적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국립예술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혜담 스님을 초청한 것은 고려불화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은 아쉬움도 표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담징 스님의 고려불화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로 인해 유럽에서는 고려불화를 일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려불화는 당시 시대배경과 민족성이 모두 담겨 있는 세계사에 유래없는 문화유산”이라며 “고려 500년간 국교인 불교사상이 그대로 담겨있고, 예경이 예술로까지 확장된 경우”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당시 불자들의 원력이 담긴 고려불화 속에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세계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이 전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은 구랍 19일 제6회 BBS 어린이 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섬소년·소녀들의 음성공양, 가슴 울렸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 BBS창작찬불동요제서 금상 수상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이 구랍 19일 BBS불교방송이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개최한 ‘제6회 어린이·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는 솔로와 듀엣, 중창 등 모두 10개 팀이 준비한 노래를 선보였으며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은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담은 ‘마음밭에는’을 불렀다.

한편, 이날 대상은 ‘우리스님 겨울나기’를 부른 금교초등학교 박현진 양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인기상은 ‘마음이 자라는 소리’를 부른 진관사 어린이 중창단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그냥 오세요’를 부른 도농초등학교 신예원 양, 동상은 ‘부처님 말씀 따라가보면’을 부른 명촌 초등학교 성보은 양에게 돌아갔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어린 불자들이 불교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스마트폰 중독, 명상으로 치유해야”

법상 스님, 구랍 22일 종교계 대토론회서 강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종교계의 논의장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사진〉은 구랍 22일 한국정보화진흥연구원(원장 서병조)이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불교계 패널로 참가해 발표했다.

‘스마트시대, 불교적 명상을 통한 중독문제 대응’을 주제로 법상 스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법으로 ‘명상’을 제시했다. 스님은 이날 스마트폰 사용을 금기시해 부작용을 초래하기보다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소년시기는 자기 정체성 확립이 되는 시기로 강압적 금기보다는 올바르고 건전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명상은 곧 쉼으로, 쉼을 통해 마음의 욕구와 갈등을 내려놓고 중독에서 벗어나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스마트폰의 강박과 유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인성계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님은 “2013년에 개발된 ‘청소년 마음거울 108’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중독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의 경우 심성을 순화시키고 사고력을 높여 건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민수 천주교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가 각 종교에서 스마트폰 중독예방 활동을 소개했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디지털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적, 영적 사명이 종교계에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영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은 “개인적 결핍이 미디어 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가정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결핍 원인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개인들 모두가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권오민 교수 ‘불교학 입문’ 5일 개강

미붓아카데미,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2시 진행

권오민 교수(경상대 철학과)가 불교학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스님이나 대학원생, 교양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교학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1월 5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마지에서 열린다.

미붓아카데미가 2016년도 첫 강좌로 준비한 ‘권오민 교수의 불교학 입문강의’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2016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지정됐다.

이번 강좌는 구체적으로 △제1강 불교(학)의 기본전제: ‘깨달음’과 ‘수행’과 ‘믿음’ △제2강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 불교에 무량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제3강 초기불교1: 괴로움(세계)의 생성과 유전 △제4강 초기불교2: 불교의 중심개념(‘法’) △제5강 후기불교, 비판과 종합1: 자리와 이타 △제6강 후기불교, 비판과 종합2 △제7강 불교의 분류와 갈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제8강 불교학과 불교, 불교와 불교학이다.(02)536-5228

노덕현 기자

법련사 ‘불일인문학강좌’ 개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1월 7일 개강하는 ‘제3기 불일아카데미’ 불교입문반과 경전반, 불일인문학강좌 등 세 강좌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일인문학강좌’는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강좌로 불교가 시민사회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프로그램은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가 진행된다.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강의로 현장답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 교수는 올해 10월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연구’로 ‘제15회 삼국유사 학술문화제’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불교입문반’을, 동국대 범준 스님이 〈원각경〉 경전반을 운영한다. 세 강좌 모두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입문반과 경전반이 각 10만원, 불일인문학강좌는 15만원이다. (02)733-5322

노덕현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기획특집전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장승, 석탑, 창과 문살, 석불을 소재로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측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의 풍토에 맞게 발전한 석탑, 석불, 장승 및 창과 문살에 담긴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 문화에 깃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08년 ‘스투파-아름다운 우리 탑’과 2010년 ‘천불천탑 운주사’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대학원생,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동국대(총장 보광)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익균 씨가 2015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동국대는 문화학술원(원장 장영우) 산하 한국문학연구소 학술지 〈한국문학연구〉 46집에 수록된 ‘서정주의 체험시와 ‘하우스만-릴케. 니체-릴케’의 재구성-서정주 시학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 2015년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고 구랍 24일 밝혔다.

김 씨는 논문을 통해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이 보들레르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기존의 해석이 갖는 맹점을 비판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관점의 수립, 특히 하우스만과 릴케의 결합이 어떻게 서정주 시의 내면성을 구축하는지를 분석해 향후 서정주의 시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당 서정주 시인 탄생 백주년을 맞아, 서정주의 시학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김익균 씨는 최근 한용운 연구에도 도전하고 있다.

2014년 동국대에서 발족한 만해연구소와 연계해 ‘강원도의 지역성과 한용운의 수업시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福 謹賀新年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신흥사
주지 법공
사) 완도문화21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 아카데미
완도불교문화대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TEL 061)554-2634
홈페이지 www.sinheungsa.net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선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연화약사사
주지 수연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4-12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율곡사
주지 혜령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율곡범음대학 의식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천룡사 신행기도회
- 매월 둘째 일요일 출발
- 사찰 순례 및 정진기도
다라니 독송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다라니 독송 49편
원만상호 지니는 모임(원지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불자들의 예절 교육
BBS광주불교방송 토요특강
- 매주 토요일 밤 10시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번지(용연길 26-23)
▪ 전화 062)234-1338
▪ 다음카페 : 천룡사 - 좋은인연 http://cafe.daum.net/chunjoun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8

재물과 법(法)으로 중생에게 보시하고 밤 낮으로 생각하여 고뇌와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다라니를 얻느니라. 〈사리불다라니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 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석사

주 지 선견

신도회장 김지만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 자태
실로 616-33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일사

주지 성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산 225
TEL 053)655-0225
■ 부설 : 반야유치원 053)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지 보성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1321
TEL 053)632-4844,641-4844
FAX 053)639-503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원 일
신도회장 권정행성
봉사단장 김대용해
합창단장 김대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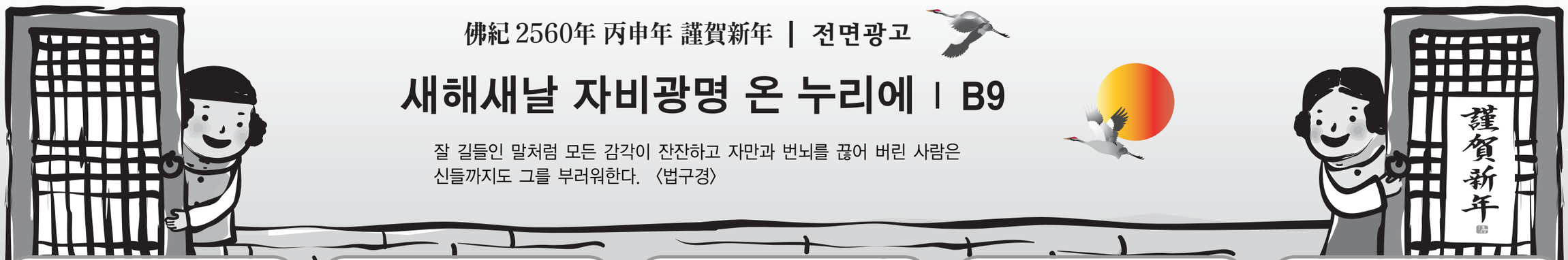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 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9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회 주 무봉 성우
주 지 남명 허운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 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손창수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회 장 류병선

(주)영도벨벳대표
(주)영도코스메틱대표

www.yeonvia.com

〈맑은 자연으로의비상! 연비아〉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
TEL 053)721-8550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 지 영 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정 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류화산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대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임응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795-1733
FAX 053)795-1731

대한불교천태종

포항 황 해 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길환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무진 · 무운스님
사무국장 이홍순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지혜 · 정법 구현해 '손오공' 되자

인간과 가장 닮은 영장동물로 여겨져
'영리' '지혜로움' '재주꾼' 등 상징
부처님 전생담부터 佛家와 깊은 인연
번뇌 · 망상 시달리는 인간 모습 묘사

올해는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다. 12지의 아홉 번째 동물인 원숭이(申)는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 달(月)로는 음력 7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며, 방향으로는 서남서인 방위신이다. 또한 인간과 가장 닮은 영장동물이기도 하다.

일부 동양문화권에서는 원숭이가 사람과 많이 닮은 모습과 잔꾀 있는 모습으로 인해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문화권 국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선 원숭이를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다고 해서 '재주꾼', '영리함' 등으로 표현한다. 한편으론 사기(邪氣,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을 일컫는 말)를 내쫓는 동물이라 하여 상징성을 띄기도 한다.

불교 설화 속 원숭이 이야기

원숭이는 부처님 전생담에 등장할 만큼 불교와 인연이 매우 깊다. 부처님은 어느 전생에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원숭이 왕은 길을 거닐다 구덩이에 빠진 사냥꾼을 발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넝쿨을 타고 내려가 사냥꾼을 업고 땅 위로 올라온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냥꾼은 원숭이 왕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이내 배고픔에 사로잡혀 원숭이 왕을 잡아먹기로 결심한다. 결국 사냥꾼 손에 죽어간 원숭이 왕은 사냥꾼을 불쌍히 여겨 '미래세에 부처가 되어 저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제도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미래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예로부터 불교문화권 국가에선 원숭이가 '지혜', '정법 수호'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통일신라 때는 무덤의 호석으로 갑옷을 입은 원숭이 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불가에서는 원숭이가 '잡귀를 물리치고 정법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법당의 지붕에 원숭이 상을 세웠다. 인천 용화사, 속리산 법주사, 전남 여천 흥국사 등에서 원숭이 조각상이나 벽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유기〉에선 이 같은 상징성을 담아 원숭이를 '손오공'이란 인물로 의인화했다. 손오공은 관음보살의 교화에 따라 삼장법사 일행을 인도하는 정법 수호신으로 출연한다. 또한 신라시대 '이차돈의 순교' 설화에선 지혜와 용기로 상징되는 원숭이가 이차돈의 순교에 크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옥리(獄吏)가 그의 목을 베니 허연 젖이 한길이나 솟아났다.
이에 하늘은 침침해져 사양(斜陽)이 빛을 감추고, 땅은 진동하는데 천화가 내려왔다.
임금은 슬퍼하여 눈물이 곤룡포를 적시였고 채상(宰相)은 상심하여 진땀이 관에까지 흘렀다.



십이지번 '원숭이'. 대한제국.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십이지신번(十二支神幡)은 도량장엄(道場裝嚴)의 하나로서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闢邪) 의미로 12방위에 걸었다. 자료제공=국립민속박물관

감천(甘泉)이 문득 마르니 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먼저 부러지니 원숭이가 떼 지어 울었다.

이는 '지혜'와 '정법 수호'로 상징되는 원숭이가 뛰어다니며 울었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정법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이차돈의 순교를 더욱 거룩하게 표현하고자 한 뜻으로 풀이된다.

불교에서 원숭이 의미

불교는 원숭이를 번뇌 · 망상에 시달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유교경(遺敎經)〉이 대표적이다.

"부지런히 힘써 마음을 항복 받아라. 이 오근(五根)도 그 주인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치 그것은 큰 원숭이가 나무를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날뛰어 제어하기 어려움과 같으니, 마땅히 빨리 그것을 바로잡아 방일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유교경〉은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게 되지만, 그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에 뭉쳐 억제하면 무슨 일이든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석두(石頭) 스님은 〈참동계(參同契)〉에서 선(禪)의 이치에 대해 "마음의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에서 나온 말은 사방으로 달리며, 신기(神氣)는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고 표현했다.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 심원의마(心猿意馬)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 전해지는데, 원숭이 같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생각을 집중할 수 없는 때를 일컫는다.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도 부질없이 외연을 쫓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 따르면 "끝없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길은 1000명의 성현도 전하지 못하거늘 교학자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소개한다.

서산 대사는 세속적 현실에 매몰되거나 관념적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을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

역대 선사들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휩싸인다. 대상에 반연하면 응당 그곳에 머물게 되고, 살아 숨 쉬는 생동감이 사라진다. 집착과 미혹이 활발한 성품의 작용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부처님에도 불구하고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이와 같은 원숭이의 마음을 버리고 참된 성품을 보는 선 수행을 강조했다. 혜능 스님 등 여러 조사들은 생각이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재롭게 활동하는 '무주(無住)'를 강조했다. '무주(無住)'는 언제 어디서나 활발히 작용하는 것이며, 무지나 혼돈에 침체되지 않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은 원숭이의 마음과 같이 분주한 마음을 다스려 지혜와 정법을 쫓으면, 결국엔 부처님 전생담의 원숭이 왕과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불법을 수호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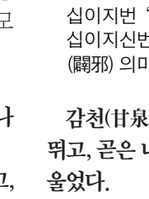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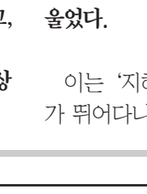
원숭이띠해 불교소사

▲384년(백제 침류왕 1) 9월, 마라난타 스님 진(晋)으로부터 백제에 옴. 백제불교의 시작.
▲684년(신라 신문왕 4) 8월, 백제의 도녕(道寧) 스님, 일본에서 비를 빌어 가뭄을 구제.
▲804년(신라 애장왕 5) 9월,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침.
보조체징(普照體澄) 스님 출생(880 입적).
진감혜소(眞鑑慧昭) 스님, 세공사(歲貢使)를 따라 당에 들어감.
▲864년(신라 경문왕 4) 4월 10일, 선각형미(先覺迥微) 대사 출생(917.8. 입적)
광자윤다(廣慈允多) 스님 출생(926 입적)
선각도선(先覺道詵) 스님, 옥룡사 창건
▲924년(신라 경명왕 8) 2월 19일, 신라 황룡사에 백고좌를 개설해 경을 강의하고, 선승 300인을 공양함.
4월 1일, 봉림사 진경대사비 세움.
신라, 왕이 승하하니 황복사에서 화장.
봉암사 지증대사비 세움.
▲1104년(고려 숙종 9) 별무반을 세우고 승도를 뽑아 항마군(降魔軍)을 삼음.
▲1236년(고려 고종 23) 팔만대장경 조성 시작(1251년까지 대장경 조성불사 진행).
▲1404년(조선 태종 4) 12월, 사간원, 부녀가 절에 다니는 것을 금지.
▲1464년(조선 세조 10) 1월 5일, 간경도감, 〈선종영가집 언해〉 2권 조판간행, 〈아미타경 언해〉 조판 간행.
4월 7일, 간경도감, 〈금강경육조해 언해〉 〈심경언해〉 조판 간행.
▲1644년(조선 인조 22) 5월 10일, 편양언기(鞭羊彦機) 스님 입적(1581 출생).
▲1704년(조선 숙종 30) 1월 4일, 월담설재(月潭雪齋) 스님 입적(1632출생).
▲1764년(조선 영조 40) 8월 7일, 송파각훤(松坡覺暄) 스님 입적(1686 출생).
사암채영(獅巖采永) 스님, 〈불조원류〉 지음.
▲1884년(조선 고종 21) 1월 13일, 지암 이종욱,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1969 입적).
▲1944년 3월 15일, 총독부, 31본사 주지에게 조선불교진흥책(皇道불교 확립, 불교 민중화, 불교생활화)으로 회보(回報) 발행.
4월 28~29일, 조계종, 제1회 포교사자격 검정시험 실시.
6월 29일, 만해 한용운 스님, 심우장에서 입적(1879 출생).
9월 30일,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전시 교육비상조치에 따라 강제 폐교.
12월 8일, 종교보국회 결성.
▲1980년 10.27법난사건.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1992년 11월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대불 완공
▲2004년 5월 7일 조계종 신도회 통합 '중앙신도회' 출범. 11월 20일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복원 대웅전 낙성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재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서산 부석사
소원성취 기도 영험도량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지 주경
사부대중일동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TEL 041)662-3824, 010-7734-3824
www.busu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인과선원
주지 정덕
사부대중일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 97-1(월계동)
TEL 02)907-37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학 장 법산 경일
이사장 이종현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1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광박엄정불퇴전륜경〉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FAX 053)763-1807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이시명
교 감 이봉오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 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 장 조신재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053)945-0007/FAX.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053)944-0007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 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축서사 극락원(수목장)자연과 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사부대중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TEL 054)672-7579.7535
TEL 054)673-9962(템플스테이)
FAX 054)672-7567
http://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 지 청 안
사부대중일동

- 예천 용 문 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 윤장대와 목조삼존불 목각탱화 보물이 있다.
- 대장전안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내부에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돌리는데 윤 장 대는 유일한 중요한문화재이다. 회전식 장경각이다.
-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1

인삼 제조창

풍 삼 정

-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않고 만든 100mlX60포(한달분)홍삼액기스.산삼배양근 추출액.홍삼편.
- 홍삼청국장.홍미삼.백미삼.홍삼먹은사과즙. 풍삼쥬니어홍삼액.홍삼환.홍삼진액.직접재배하는수삼.
-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이상을 숙성발효시켜만든홍삼액기스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H·P 016-815-2174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지선
총무원장 법 성

『의석당 종정예하 전 종도일동』

"선과 함께 동행 할 종도를 모십니다"

■ 총본산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팔달동) 성불사
전화 053)322-0567, 010-6537-0567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 흥 사**

주 지 **선 웅**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기도와 연등을 올립니다.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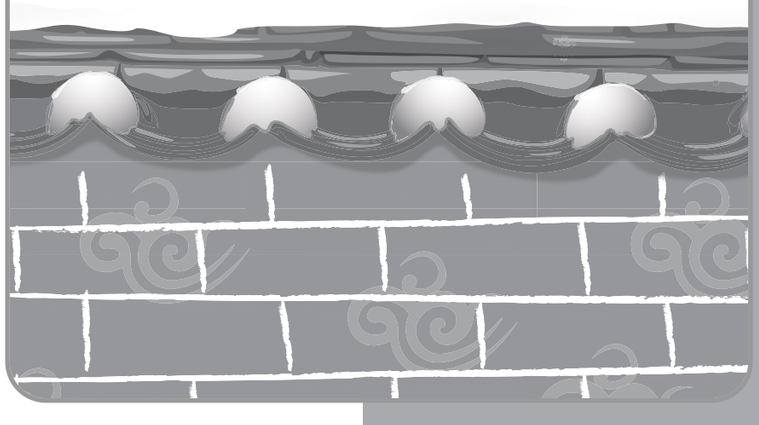


홍기종합건설(주)

대 표 **황동열**

문화재수리업 토목건축공사업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46(풍유동)
TEL 055)329-2579~8 / FAX 055)329-2596
E-mail munhwajae2597@hanmail.net
웹하드 ID : hk2597 / PW : 3333





佛紀 2560年 丙申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2



보시는 세상의 양식이 되거니 반드시 궁극적인 곳으로 가게되리라. 착한 신장이 언제나 그를 돌보고 또 언제나 기뻐하네. 〈증일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일동
사 부 대 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수 도 암
회주 현 선
주지 승 원
전통다실 녹지원
사찰요리 수자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44
TEL 053)743-707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 도 일 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 공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구본원 053)981-3553
대구범어동센터 053)753-3550
서울센터 02)599-8150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구 화 사
주지 도 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20-2
TEL 053)324-0856

대한불교 원효종
귀 원 사
주지 보 덕
회 장 이희남
총 무 김명숙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1856
TEL 053)555-7377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 원효종
대 원 사
창건주 대원행
주 지 원 경
회 장 홍규환
총 무 김경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46
TEL 053)768-0887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 도 일 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8

불 종 사
주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33관음 대불 도량"
"기도 가피가 빠른 도량"
우리절 성관음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신행상담 TEL 053)655-3380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 향 사
주지 조 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FAX 054)261-8000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578
TEL 053)782-0120

가야산 영 통 사
주지 혜 오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2길 44
054)933-8475(팔자치료)
FAX 054)933-8476
010-8955-9800

대한불교 원효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해 운 정 사
주지 청 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대한불교선교종
화 엄 정 사
이사장 화 엄
■ 울산 광역시 청량면 개곡리 295-11
052)268-5565
010-3875-5562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 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 明 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 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 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초의 스님

위로와 소통의 상징 茶, 스님 모습 닮아

초의 스님(1786-1866)은 조선시대 후기 쇠퇴했던 한국 차 문화를 복원 · 정립시킴으로써 근현대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초의 스님은 한국 차 문화의 중흥조로 평가 받았다.

10여 년 전 나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초의선사 초상화를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다. 초상화는 액자와 유리가 벗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비단과 안료, 선묘의 탄력 등은 물론이고 배첩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당시의 감상과 분석 기록물을 바탕으로 그 초의 스님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진영의 첫 인상은 '일본화 같다' 는 생각이었다. 일본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면 일제 강점기 시절 어느 화가가 모사한 걸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선에 있었다. 의습에 적용된 선을 보면 긴장감이 약하다. 필세의 운용에서 살펴보면 화가가 붓대의 아랫부분을 잡고 손바닥을 화면에 붙이며 필선을 그은 특징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런 이유에 의해 필세가 유연치 못하고 딱딱하며 자유로움이 약하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밑그림을 기초로 윤곽선을 그을 경우 그 선은 매우 활달하다. 특히 문인화가가 대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선묘와 채색화가가 사용하는 선묘는 확연히 다르다.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선이 차지

초의 스님, 차문화 중흥조 평가
스님의 자태, 단아 · 온화한 선승
존상외에는 일체장식 제거해 표현

하는 비중과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진영에 사용된 선은 원본을 충실하게 이모하려는 의도가 농후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좌대에 적용된 선이다. 좌대는 자를 대고 그은 계선 기법을 사용했고 윤곽선 주위에 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주려는 시도가 읽혔다. 좌대 구조도 독특하다. 판자 연결 부위가 없고 평평한 것으로 보아 합판으로 제작한 근대시기 산물로 보였다. 이런 점은 좌대 좌측 목 가구에 표현된 나뭇결 문양과 대비된다.

스님이 앉아 있는 방석은 일본식 문양이 장식된 천으로 만들어졌다. 방석 부피도 소략하다. 차 주전자와 다구 역시 조선의 미감과 다르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 문양이 없고, 포갑은 너무 길게 표현되어 있다. 형태만 보면 족자함 형식에 서책이 들어있는 격이다. 이렇게 세로로 긴 책은 절 첩일 경우 가능하지만 한국 고유 문집 비례를 벗어나 있다. 책 모서리를 덧댄 천이 붉은색으로 마감 처리된 것을 보아 포갑에 있는 책은 불경이다. 이처럼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전달돼 달리 해석되는 경우는 이모본의 특징들이다.



구름을 바느질하다. 98×95cm, 종이에 수묵, 2015



초의선사 진영 草, 143×74cm, 종이에 수묵. 2015

박락된 비단 사이로 내부 구조를 봤다. 붉은 가사와 잿빛 장삼에는 밑그림으로 연필 자국이 잔존해 있다. 그림이 그려진 비단 원본 아래 속지에는 밑그림이 붙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제작 방식은 일반적인 한국식 초상화 제작 방식과 다르다. 그러면서 최종 배접지는 신문지로 마감돼 있어 보관과 후처리에 날림과 비전문성이 분명했다.

또 화견으로 사용된 비단을 관찰한 결과 비단의 직조 방식도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식으로 조선시대 결구와 그 구조가 크게 달랐다. 일본 근대 비단에서나 보이는 전형적인 화견의 짜임새였다.

화제를 살펴보니 원본에 있는 글자가 누락되거나 첨가되어 있는 등 차이가 분명했다. 이런 이유로 일제 강점기 때 그린 이모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나는 초의선사 진영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신헌이 저술한 〈위당집 권13〉에 초의선사화상찬(草衣禪師畵像贊)이 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초의선사 진영에 있는 초의대선사영찬이 있다. 위당집에 있는 찬과 진영에 병기된 글은 조금 달랐다. 특히 진영에는 '을축7월25일유경 도인훈 찬' 이라 하여 찬문을 쓴 일시와 쓴 사람 이름이 적시됐다.

또 응송 스님은 〈동다정통고〉에서 초의 진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한편 소치는 초의선사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 초상화는 그가 그린 추사의 초상화와 함께 가작에 속한다. 초의선사의 초상화는 무채 백묘법으로 그렸고 추사가 찬 하기를 초의의 실제 얼굴은 본래 원형인데 길쭉하기가 당나귀 얼굴과 흡사하다. 그러나 둥글고 긴 것은 본래 둘이 아니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그런데 이 초의 초상화는 일제 압정기에 해남 서장 이었던 일본인 心石이란 사람이 초의선사의 曾法孫 金干Ø15에게서 탈취해 갔다."

즉, 초의선사 진영이 원래 소치가 그렸다는 사실과 무채 백묘법으로 그린 그림이란 점을 밝히면서 원본은 일본인에게 빼앗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현재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소장된 초의선사 진영은 일본인에게 빼앗긴 후 다시 그린 후대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을축년을 해석하는데 1865년이 아닌 1925년에 일본화가나 아니면 일본식 채색화법을 익힌 화가에 의해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보았다.

분석 자료를 기초로 초의선사 진영 재현 작업을 1차 시도했다. 재현에 앞서 초의선사의 그림이라 전해지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소치가 그린 초상 작품도 분석했다. 이런 작품들이 지니는 禪味(선미) 등을 고려했을 때 초의선사 진영도 단순하면서 함축적인 묘법을 사용해 전신사조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스님 자태는 스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곱고 단아하며 온화한 선승으로 생각됐다. 그래서 백묘로 묘사하되 謹筆(근필)로 그리는 선묘 방식을 채택했다. 필세는 느리게 운용했고 선의 굵고 가는 변화는 호흡에 맡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 놓았다.

스님 모습은 현전하는 초상화를 기초로 했으나 존상 외에는 일체 장식들을 제거해 표현 대상에만 집중토록 했다. 특히 스님 눈빛은 맑고 투명한 선정의 경지를 지향하도록 의도했다.

먹색은 농묵보다 담묵을 사용했다. 선은 단박에 긋는 일획을 준수하려 노력했다. 스님의 제다법에서 중요한 차 잎을 덖는 방식과 선묘 표현 방식을 일체화했다. 스님의 제다 방식은 동양화의 일획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내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초의선사 그림을 추증하며 재현한 것은 일본 방식을 배제하고 조선식대로 회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는 음료이다. 또한 내면을 충일하게 하는 정신적 영역을 지닌다. 차는 사람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한 매개물임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시대를 뛰어 넘는다. 차의 덕목이다. 또한 이는 차를 통해 인격을 함양하고 시대 아픔을 함께 했던 초의 스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끝〉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2016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 (장삼 · 만의 착용) 2매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_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_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_ ○○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교육원 연수교육비 지원
(5) 해외 연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명성 원감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운문사 승 가 대 학 학장 **일진**
운문사 승 가 대 학 주지 **진광**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선본산 갓바위부처님

천년의 모진풍파에도 중생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묵묵히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나투신 갓바위 부처님 도량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도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고 갓바위 부처님 도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하옵니다.

저희 사부대중은 올해도 모든 이들의 원성취와 부처님과의 인연공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보에 귀의 하옵시고,丙申年년 새해에도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가정에 항상 충만하고,발원하는 모든일들이 원만성취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사부대중 일동 –



2016년 불사 계획
- 12지 석등불사
- 대웅전 동기와 및 단청불사
-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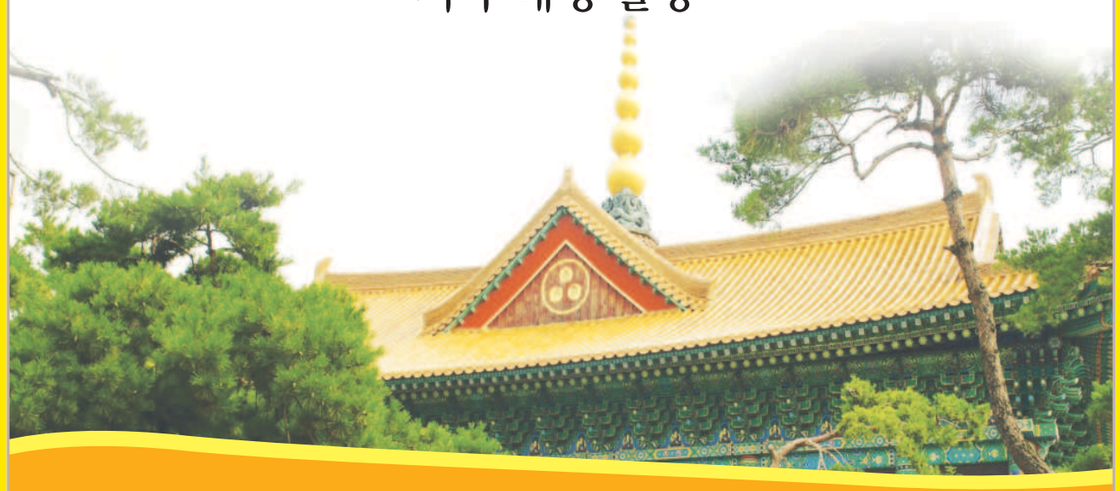
갓바위는 스님들이
24시간을 신도와 같이
정진하는 기도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경북 와촌면 갓바위로 699 ☎ 053)851-1868~9

대한불교조계종

선 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시 구 동 532-274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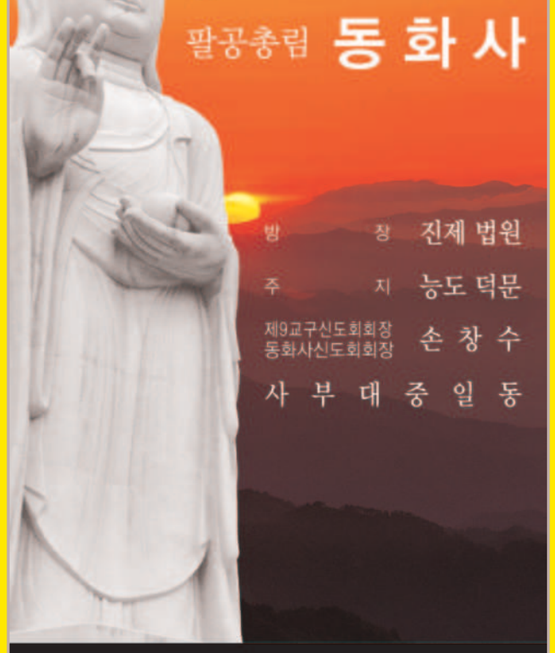


지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 033)671-0093~5 팩스 033)671-052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 화 사**



방 장 진제 법원
주 지 능도 덕문
제9교구신도회회장 동화사신도회회장 손 창 수
사 부 대 중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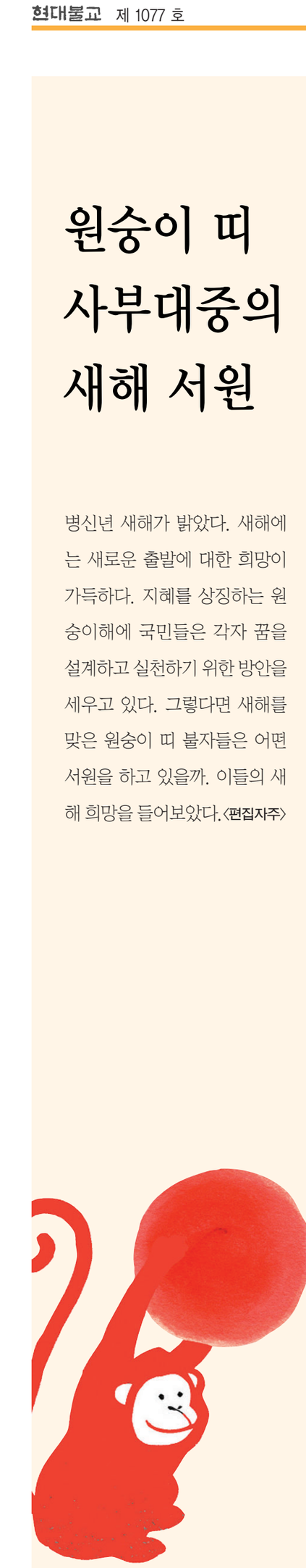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et

〈 동화복지재단 〉
동화사자비원, 동원어린이집 , 선우어린이집, 자비의 집 , 신천자이어린이집

■ 서울시 서초구 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원숭이 띠 사부대중의 새해 서원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해에 국민들은 각자 꿈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원숭이 띠 불자들은 어떤 서원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새해 희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92년생 "10년 전 사라진 불교동아리 다시 만들 것"

윤동언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부장



"최근 국제협력기구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신년에는 많은 대외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윤동언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조직부장은 요즘 대학생답게 부지런한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1월엔 사회복지 실습, 3월엔 복학을 앞두고 있어 바쁜 일정이지만 이를 기다리는 윤 조직부장 마음은 설레기만 하다. 학교로 돌아가면 10년 전 사라진 교내 불교 동아리를 다시 일으킬 계획이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가톨릭 학교입니다. 불교 동아리가 사라진지 10년이 됐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동아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차차 찾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윤 조직부장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학생불자회에서 회장을 맡았던 만큼 한국 청년 포교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남다르다.

"언제 어디서든 주인 되는 무한능력발전소' 라는 대불련의 캐치마인드처럼 항상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학생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윤 조직부장은 "2016년엔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불교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모든 불자들이 같은 염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박아름 기자

68년생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지켜줘야죠"

인오 스님 연화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말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따듯한 마음을 모두가 갖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해요. 어린이집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원생도 충원하고 공부도 하고, 참 하고 싶은 일이 많네요."

현재 개운사 연화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오 스님은 새해를 맞아 나눔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다. 1968년 원숭이 띠인 인오 스님은 "어린이들의 간식을 나눠줄 때보면 하나라도 나눠먹는다"며 "어른들이 오히려 자신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순수한 아이들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화어린이집은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 신설한 곳으로 스님은 원생 정원을 모두 채우고, 또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2010년 출가해 2015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은 은사 스님인 자용 스님과 어린이포교에 더욱 진력할 계획이다.

"불교계에는 장애영유아 보호시설이 없는데, 그쪽으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해요. 올해나 내년에 준비를 거쳐 2016년 하반기에 대학원 석박사도 하고 싶습니다."

노덕현 기자

80년생 "개그맨 본업으로 대중 다가갈 계획"

김주철 불자개그맨



"지난해까지는 주로 시사 · 교양 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채개그맨인 만큼 올해에는 본업을 살려 대중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각종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끼를 발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불자 개그맨 김주철 씨. 1980년생 원숭이띠인 그는 '본업 충실'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바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아쉬움도 많이 남더라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올해에는 꼭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김 씨는 이 같은 목표와 더불어 수행에도 매진하고자 한다. 그는 틈만 나면 사찰을 찾아다니며 108배를 올리는 신심 깊은 불자다. 하지만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집에서 수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법당에서 절을 올릴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론 답답하지만 집에 수행공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절을 할 수 없으니 참선과 명상을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마음을 닦을 생각입니다."

윤호섭 기자

56년생 "새 삶 시작하는 지금… 佛法 따르며 살고플 뿐"

하복동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前공무원불자연합회장)



"그동안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지금 서원이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조용히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복동 前감사원 감사위원은 현재 동국대 행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새 삶을 가꿔나가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도 배우는 게 많다"는 하 교수는 공직에서 교직에 몸담기까지 과정이 스스로 과분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또 불자로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절에서 고시 공부하던 시절,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사경과 참선으로 마음을 정돈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반야심경 사경(寫經)을 다시 시작했는데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아 새해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하 교수는 감사원 공직생활 중 체득한 감사분야에 대한 지식과 논리를 책으로 담아내겠단 개인적인 서원을 세우며 "책이 발간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前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지낸 만큼 직능불자회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하 교수는 "부처님과 인연 깊은 원숭이해인 만큼 종단 및 신도들이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각 신도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 재가불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불교계 혁신과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직능단체 간 교류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44년생 "매일 명상수행, 새해에는 함께 정진합시다"

김기병 초대 포교사단장



1944년 태어난 김기병 초대 포교사단장은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을 주도한 포교사단의 산증인이다. 지난해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받기도 한 김 전 단장은 "새해를 맞아 마치 불광이 뿜어 나오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전 단장은 단장 소임을 내려놓고 6년간 입산수행을 하기도 했다. 고령으로 인해 출가는 하지 못했지만 육식 금한 채 국내외 곳곳의 수행처를 찾아다녔다. 김 전 단장은 현재도 매일같이 새벽5시에 기상해 좌선과 염불, 절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 삼매를 통해 지혜의 힘이 생기더군요. 하루에 단 2~30분이라도 앉아서, 명상수행을 하면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내심이 늘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당분간 우리 사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어려운 기간 열심히 참고, 노력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다시 사회가 맑아지지 않을까요."

아울러 김 전 단장은 출가자 수의 감소, 경쟁 심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불교 포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명상, 상담 등에 대해 불교계가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많은 이들이 돈과 출세에 꺼둘려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가요. 스스로 만족한 사람의 길을 가야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확신에 따라 살아가면 만족이라는게 쉽게 옵니다. 새해에는 많은 불자들이 열심히 함께 정진했으면 하네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영 국 사
조실 월서
주지 청원
사부대중 일동
템플스테이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TEL 043)743-884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기자촌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신년메세지 및 정기 각료회의 소집공고



세계불교도 법왕
승려 65만명의 미얀마 승가협의회 회장
우 꾸마라 사야도

세계불교도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의 신년메세지

지구촌 모든 이들의 고통 없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목과 평등, 포용, 자비심이 담긴 사랑이 존재했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긴 세월동안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흑백갈등조차 초월한 성스런 행동으로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오신 불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합니다.

종교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는 우애와 의리의 표상으로 아낌없는 마음을 주는 인정 넘치는 활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세계가 우정과 평화를 필요로 하고 이웃나라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종교를 초월한 봉사와 포교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위상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유와 합심과 지극한 신심이 있는 소박한 심성을 소유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면서 내일의 기쁨을 위해 하루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가깝고 서로 돕고 돕는 우애를 다집시다.

세계인들의 번영과 우애 깊은 신뢰와 협조가 교류되는 계기가 더욱 확대되고 증진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각료 회의 소집 공고 •

정기 각료 회의 2015년 12월 이전에 임명되었던 모든 각료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새해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안건 검토를 할 것이며
그동안 각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의를 계속 불참하는 각료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각료로서의 인성, 인격, 인품, 참여도, 출석률 등을 심의 의결후
재정비 차원의 임명장 회수 및 명단과 사진을 기재하여 해임사실을
신문지상에 공지할 것임

■ 일시 :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미얀마문화원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보좌 기획관리 장로 목탁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세계불교 포교와 봉사로 지구촌 구석구석 인간방생, 중생교화에 헌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인간다운 인간 승려다운 승려이면 대환영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 계 불 교 법 왕 청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高僧長老團.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펙스 733-5615. H.P : 011-229-6061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가 기쁨에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가 기쁨에 넘친다. 계율이 청정하니 가사 한 벌이면 족하구나. 존경하는 세계인 여러분 2016년은 여러분 가정마다 육근청정(六根淸淨)하시고 복덕구족(福德具足)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6년 새해는 부모형제가 만나니 한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남북이 화합하는 행복의 해입니다. 계율이 청정하니 우주가 성 주 괴 공 속에 티끌과 같습니다. 세계 4대 강과 한강에도 동녘해가 비추니 자유롭고 평화로워 천지가 기쁨에 넘칩니다.

서로 우러러 보는 불제자 되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승정 목탁 스님



병신년 새해 지구촌 구석구석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종교는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종교이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승려의 향기를 갖은 수행자가 되듯이 그런 수행자들만이 중생을 아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약자와 함께 하는 삶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파탄과 절망만을 남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화합과 평화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발휘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우대하고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올해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병신년을 아름답게 장엄해보길 기원합니다.

상생의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병신년(丙申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많은 중생이 고통 받는 오늘이지만 둥글고 모가 남이 없이 원만성상으로 밝게 세상을 비추는 병신년의 저 태양처럼 온 누리 온 중생에게 밝고 맑은 불법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합장 축원 드립니다.

덕의 향기는 날로 더해 밑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건지소서.

물은 깊을수록 푸름이 더 짙다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산은 높을수록 정기가 넘치고 물은 깊을수록 푸름이 더 짙나니 사람은 어이하여 침묵을 잊고 아우성만 치는가!

세찬바람 맞으며 울부짖는 사연들이 한시도 그칠 날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이 중생들의 약이 되어 빛나는 또 한해를 맞이하는 구나

이제 병신년에는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어서 중생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모두가 두 손 모아 합장 발원합시다.

마음 한번 바꾸면 인생이 바껴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오지 않는 것을 가지려 얼마나 상심 했던가.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얼마나 상심했던가.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세월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온갖 잡념은 탐욕에서 생겨나니 마음 한번 바꾸면 인생이 바뀌네. 어제도 오늘도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얼마나 되던가. 오늘도 남의 신세만 지고 산다네. 새해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비를 베풀면서 음덕을 쌓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내 생애에 보람된 한해가 됩시다.

불법문중에는 문이 따로 없다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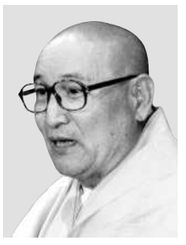


큰 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모조리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참생명사랑, 평등, 공동체 건설이지요. 바로 불국정토건설입니다. 불법문중에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서있는 그 자리 그 곳이 그대로 진여무위문이요, 가는 곳이 그대로 열반로입니다.

부처님 지혜로 한해를 빛내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一日行善이면 福雖未至하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면 禍雖未至하나 福自遠矣니라.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不見基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은 如刀之石하여 不見基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나 악한 재앙은 멀어진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봄의 풀과 같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복은 날마다 쌓여간다.

불법의 빼어난 자취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靈鷲山色玉層層
奇賞平生恨未曾
佛法逸鶵今何在
峰默溪喧問不 W

청청한 하늘 가운데 밝게 빛나는 불법의 대의를 찰나기간에 풀어헤치는 뜻을 장부들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육바라밀도 좋고 팔정도도 좋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세우면 산은 침묵하는 가운데 웃고 시냇물은 흘러 가운데 영롱한 진주빛 그대로입니다.

갈등 없는 평화의 한해가 되길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실천함으로서 남북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교만은 티끌 속에 묻히고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驕慢塵中藏般若 我人山上長無明
輕他不學踊踵老 病臥呻吟恨不窮

교만은 티끌 속에 묻히고, 내다 너다 하는 산위에는 무명만 자라도다. 남을 없이 여기고 배우지 않아 늙어서 기력이 없어. 병석에서 신음하며 한탄만 하고 있네.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되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병신년 새해가 밝아 부처님의 지혜와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무정설법으로 부처님의 찬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힘든 일은 모두 잊고 상생의 마음으로 하나로 나아갑시다.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조화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처삼아 열심히 정진한다면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새해 맑은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초발심의 마음을 이어가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초발심과 이 마음이 이어져 결과를 얻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처음 마음 내는 것이 더 어렵기에 초발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내면 반은 이루었다고 합니다. 새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내는 것과 아무생각 없이 새해를 맞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목적도 없는 곳에는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향기 없는 꽃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若人無信心 如乘無主船

믿음 없는 사람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사공 없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으니

병신년 한해에는 불문에 인연 맺은 시회대중, 모든 사암과 불자가정에 만래만복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비로자나불 법신주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마음을 굴려 넉넉해지길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 스님



外離諸相 內無妄念
心如日輪 遍照十方

밖으로는 모든 모습을 떨쳐 내고 안으로는 망령된 생각이 없다면

마음은 해 바퀴와 같아서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리라

내 안으로 마음을 굴리고 굴려서 불성을 찾으신다면, 온 우주 시방세계에 넉넉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중생이 아프면 불보살도 아프다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중생의 고통 정신과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더 많은 더 큰 자비심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편치 못하십니다. 참고 감당해야 되는 세계에서 무진장한 중생에게 하나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무진등이 되어 평화안락의 시대, 불자가 됩시다.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도움이 되고, 고통 받는 생명들에게 무진등이 되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는 보살입니다.

참으로 참회의 수행을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에 항상 자성관 하면 즉시에 부처님과 한 무리되리니.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말아야 합니다.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쉴 터인데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룹시다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하늘에서는 진리의 우레가 일어나고 온 우주에 가득한 장애(障碍)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둥글게 화합하니 통합의 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루고 번뇌(煩惱)속에서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진리를 벗어 날 수 없고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불국정토로 만들어 갑시다.

엉겁결에 세월만 보내지 말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大丈夫休擬議
豈爲虛名滅身計
百年隨分覺無多
莫被光陰暗添歲

대장부여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어떻게 헛된 명리로 하여 출가의 본 뜻 없애리오.
백 년 동안 능력껏 수행하여도 깨달음은 적으니
아둔하니 엉겁결에 세월만 보내지 말라

소통으로 순탄한 한해 되길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은 모든 이들과 갈등과 경쟁심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노력하는 것 마다 순탄하여 즐거움만 넘쳐나서 병신년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찬란한 아침 햇빛 속에 자취를 감춥니다. 병신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번뇌, 망상 끊고 보살이 되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불교의 진리는 제3의 어떤 타자에 의한 성불이 아니오,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열반은 대성도(大成道)며 성도는 해탈인 것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여 해탈의 경지에서 번뇌와 망상과 죄업을 떨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정진하자.

진공묘유의 진리를 깨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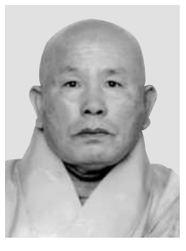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자기의 한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보다 낫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다. 중생이 마음을 깨쳐 스스로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은 아니다. 한마음 밝게 가지면 세계 일화가 만발하여 정토의 길이 열리고 지구촌 중생이 너와 내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해탈의 평화세계가 구현이 되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신 것은 즉 마음속에 나쁜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들이 나쁘게 나타나서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그 나쁜 과보로 인하여 고통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이 착하게 나타나서 마치 수레바퀴가 그 자국을 따라가듯 그 착한 과보로 인하여 기쁜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씨앗을 심어 열심히 가꾸어 공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합시다.

참다운 나를 찾아보자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有一物於此하니
縱本以來로 昭昭靈靈하야
不增生不增滅이요,
名不得相不得이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 전에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자 올 한해는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해탈성불 합시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말자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賢夫染人이면
如近香熏이라.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요. 사람이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들여다봅니다. 언제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집착과 아집을 버리면 해탈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병신년 새해에 우리불자들은 동체대비심의 사상을 되새기며 모두가 화합하여 공생공존의 자비심을 오직 일념으로 생활과 실천으로 정진합시다. 마음속의 집착에서 떠나면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아집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해탈의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정진 또 정진하는 한해가 됩시다.

중생의 상에서 벗어나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스님



불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육근청정하시고 복덕구족하시길 빌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앞으로 갑시다. 불자들이여 매사에 바로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과 바른 법 잊지 않고 부처님 법을 생활화 한다면 바로 중생의 상(像)에서 벗어난 부처님 상이 될 것이니 불화와 다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 성불도 지금부터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 세 번 치시고 병신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불자님 가정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혜명과 함께 모두 성취되시길 소구 소원하는 날입니다. 發心畢竟이 不滅 如是 二心先心 難 이로다. 나무아미타불.

항시 신년이 되면 누구나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이 되지 않아 접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불심을 여는 불자로 부처님 곁에서 안주하는 신도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성불하세요.

마음이 극락이면 미래도 극락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작년 한 해는 정치와 안보, 경제,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유독 대립과 갈등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어려움은 아만과 편견 대립에서 출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이 간절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병신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공생공존의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서로 화합하고 다독이며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합시다.

불법 배움 게을리 하겠는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새벽녘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같이 밝아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세상사 가만히 앉아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하여 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배움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정진합시다.

마음의 거울 속 때를 닦자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혜정 스님



올해 한해는 있는 그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삶 속에서 모든 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장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경전입니다. 생활 속을 떠난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만대장경 설법도 이 삶속에서 나온 것 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삶이 있는 나의 세계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번뇌가 일고 진정한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미래 사람에게 환경을 물려주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보면 귀천의 신분을 떠나 수많은 이들이 투쟁과 민중봉기 등을 통해 본인들의 뜻을 세상에 외친 소리를 하나로 규합해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공유하며 같이 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외침은 과거, 현재 또한 미래에도 같을 것이라 본다.

웃으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부처님 가피로 이루어지길 병신년 새해 두 손 모아 발원해 봅니다.

마음 법으로 세계를 보아야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以生其心

금강경에서 이르길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고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들은 보이고 듣는 것만이 진리요 행복이라 착각하고 삽니다. 마음에서 생긴 문제는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연따라 왔다 인연 따라가니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隨緣來隨緣法하니 明月照淸風拂이로다. 春來依舊 草自靑하고 修心布德賢普交하여 淸澄四海萬人樂이며 悉願成就多福年되소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니,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봄이 오면 옛을 의지해서 풀이 스스로 푸르도다. 원하는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병신년 한해가 되소서 .

모든 생명들이 나 아님 없다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스님



얻었다 한들 원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원래 없던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만고의 진리를 망각하고 삼독심에 물들어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얻어도 그 자리요, 잃어도 그 자리일 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삼독심을 내려놓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을 가꾸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음이 맑으면 혼란도 사라져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 병신년 희망찬 햇살이 온 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으로 인한 것이 거늘. 하늘이 맑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대지가 풍성하고 윤택해지듯 우리들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혼란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중생은 마음속의 자비심을 일깨워 진여심을 찾아내고 새해 날마다 아침을 맞이함이 좋은 나날이 되기를.

이웃과 사회가 모두 극락이요

한국불교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병신년을 맞이하는 불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전쟁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평등한 권리와 인권을 찾고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일일시호일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쫓는 자기만을 위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암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불자되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과 날이 이어지는 것 뿐 인데도 우리는 셈의 기준을 만들고 새해니 묵은해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에 새해 헌 해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 봅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해 집시다. 서로를 둘러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보리심을 깨달아야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스님



병신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래가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새해라고 다를 바 없으나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새 날 새 아침에 내 삶을 맑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몸으로는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는 진리만을 전하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보리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오물은 건드릴수록 악취가 난다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出出年年 是好年
箇箇日日 是好日
人生百年 是好日
新年日日 大吉祥

세상밖에 나와 보니 해마다 좋은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인생백년 한평생이 즐겁고 즐겁거늘. 신년에도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상생 덕목 키워, 평화 사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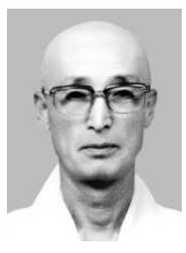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맑고 맑은 우리의 마음속에 붉은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춥니다. 새해에는 평화와 자유로운 세상이 열려, 모두가 따사롭고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할 것입니다. 과거 성현들의 말씀에 너무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면 본마음에 이보다 더 큰 병폐가 없으며, 장애가 생겨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버려야할 것이 집착입니다.

계정혜 삼학을 닦자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병신년 새해에도 선행을 닦고 모든 악행 또한 짓지 않겠사오니 원컨대 이 청정한 마음이 항상 십방세계를 두루 비추시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행복의 길이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에는 육근청정하시고 복덕구족하시길 빌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힘을 모아 고뇌와 중생의 미혹함과 중생의 화난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정혜 삼학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교 인과법을 바르게 실천하길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병신년 새해 새날 한마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나는 내 안에 항상 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새해 원숭이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원숭이가 날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번뇌로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사람은 몇 초에 한 번씩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는 진정한 내가 아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 나는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참 나이지 돌아다니는 차가 참 나가 아닙니다. 흐린 이런 물 같은 마음을 닦기 위해서 선정공부가 최선입니다.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고문 무산 스님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인과의 이치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생(生)한 바가 있으면 멸(滅)할 바가 있고 생한 바가 없으면 멸할 바도 없다.

불교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이다. 현대는 산업사회다. 또는 정보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동네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이라는 글로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물질 지상주의, 배금주의, 자동화 숭배주의로 사회가 변화되어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고 허공중에 빙빙 도는 팔랑개비 신세가 되고 있다. 불교는 구원이 아니라 해탈이다. 번뇌와 망상으로 구속되어있는 것을 본래 자리로 돌리자.

행을 통한 수행을 하여야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새해 온 누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여 지이다. 우리들은 진리를 가짜로 탐욕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바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인 가짜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참나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된 사실을 설하시어 진정한 나의 불성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한 수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봉을 내 생명처럼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윤기순 이사장



부처님의 은혜는 하늘이며, 천지대자연의 도(道)다. 이러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요, 이 은혜를 알고 믿어 시봉하는 사람은 보살이다. 보살은 쉴 틈이 없다. 높아야 하고 깊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밝게 해야 한다. 그러기에 보살은 차별이 없다. 어째서 '너' 와 '나' 의 차별이 있겠는가,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제 불자도 내외가 하나가 되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 뜻을 심부름하는 보살로 거듭나야 한다.

불교미술 전승으로 佛恩 회향…

성보 재현하는 나우회(懶牛會)



나우회는 … 2010년 7월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에서 고불식을 갖고 창립했다. 초대 회장으로 한봉석 목조각장이 취임했다. 2010년 10월 27일 첫 전시인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 '극락정토, 미타의 미소' 전을 시작으로 2011년 제2회 '깨달음… 미소', 2012년 제3회 '보살, 마음을 열다', 2014년 제4회 '잊혀진 문화재… 또 다른 탄생', 2015년 제5회 '우리 곁은 떠난 문화재의 재현' 등 다섯 개의 제목으로 열일곱 번의 전시를 개최했다.

"누구든지 나의 형상을 칠보, 놋쇠, 붉고 흰 동, 백철, 납, 주석, 나무, 진흙으로 조성하거나 아교, 채색으로 장엄하기를 스스로 했거나 남을 시켰거나 모두 불도를 이룬다. 심지어 동자의 유희나 풀, 나무, 붓, 손톱을 가지고 불상을 그린 사람도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께서 성상을 모시는 공덕에 대해 제석천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형상(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큰 공덕이며 불도를 이루는 일이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자 모인 이들이 있다. 그들은 2010년 10월 '나우회'를 창립했다.

16세기 가섭존자상을 이 시대에

구랍 18일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 220번지, 불국조각원을 찾았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한봉석의 공방이다. 한봉석 목조각장은 나우회 회장이다. 한 회장은 45년째 나무를 깎고 있고 그 작품의 거의 대부분은 부처님이다.

공방 한가운데 놓인 장작난로 위에 고구마가 놓여 있고 한봉석 목조각장의 손에는 가섭존자상이 들려 있다. 마무리 작업 중인 가섭존자상은 17세기 색난 스님이 조성한 가섭존자상을 똑같이 재현한 '재현작'이다. 색난 스님의 가섭존자상은 현재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반출 문화재 16만여 점 중 하나이다.

"나무를 깎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조각을 하죠. 조각은 마음속에서 깎은 형상을 나무에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결국 색난 스님의 가섭존자상을 재현하는 일은 색난 스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섭존자를 읽어내어야 하는 일인 거죠.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저 외형만 흉내 낸 가섭존자상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형상이나 존자상을 조성하는 일은 예술작업인 동시에 공덕을 짓고 불도를 이루는 불사입니다. 그저 손끝으로만 짓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 나우회는 그 옛날의 불교미술문화재를 똑같이 재현하고, 만든 작품을 전시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해 우리 불교미술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불사를 하고 있다. 가섭존자상은 올해 1월 전시에서 공개될 작품 중 하나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저희들 나우회 작가들에겐 공덕을 짓는 신행활동의 기회인 것이죠. 나우회 회원 작가들은 대부분이 불자입니다. 그동안 부처님 덕분에 살아왔으니 그 은덕을 불사로 회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우회 최선숙 사무국장이 나우회의 결성 취지에 대해 말했다.

나우회의 성보 재현과 전시 사업은 그야말로 순수한 '회향'을 위한 작업이다. 나우회는 작가 개개인이

2010년 동불연 산하단체로 창립
불교미술 전승 작가 15인 회원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앞장

'회향'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참여하는, 조건 없는 신행의 장이다. 나우회와 참여 작가 개개인 모두 재현작업이나 전시회를 사사롭게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전시비용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가 늘 숙제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원력으로 나우회의 사업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 이 날은 2016년 첫 전시회의 막바지 점검을 위해 각지의 회원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다.

"해외에 나가 당당히 한국을 알리는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다는 것에 작가로서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고려시대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 등을 재현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제57호 이연옥(불미원 원장) 작가가 자리에 앉으며 한마디 보탰다. 시간이 되자 작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옛 작품을 재현하다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재현을 하다보면 미래의 작품까지 그려집니다."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입상 등을 재현한 문화재 수리기능자 오세종(해인당 대표) 작가다.

"보령 성주사지보살상을 만들 때였죠. 손가락의 지문이 닳아 없어지고 손끝에서 피를 보고서야 마침내 보살의 미소를 볼 수 있었죠." 일본 교토 후지이유린칸에 있는 평양 원오리 출토 소조보살입상 등을 재현한 문화재 조각기능 제1732호 노정용(대안조형연구소 대표) 작가다.

"작품은 작가가 품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가의 거울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죠."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입상 등을 재현한 대한민국명장 제567호이면서 문화재 석조각기능 제1417호인 김동철(석주조각원 대표) 작가다.

"옛 스님들의 진영을 재현하다보면 그림이라는 것이 손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화사가 소장한 사명당대장 진영(보물 1505호) 등을 재현한 문화재 수리기능(도금, 화공, 모사공) 이문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 작가다. 몇몇 작가들은 막바지 작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각 분야 전승작가 모여 결성

현재 열다섯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는 나우회는 그렇게 각 분야의 전승작가들이 모여 불교미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재현과 전승이라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탄생했다.

나우회의 탄생은 2009년 6월에 개소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 이하 동불연)에서 비롯됐다. 동불연은 동북아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연구소이다. 연구소는 국내외 사찰과 박물관 등을 답사하면서 확보한 사진, 자료,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여 연구자를 위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불교미술의 강연과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우회 결성은 현재 동불연 자문위원이며 문화재청 인천공항문화재감정실관 감정위원인 최선일 박사와 동불연 최선숙 사무국장에서 시작됐다. 생각은 최선일 박사에서 시작됐고 최선숙 사무국장이 산파를 맡았다.

'문화재 파수꾼'으로 알려진 최선일 박사는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미술문화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2010년 7월, 남양주 흥국사에 한 회장을 비롯한 나우회 결성을 위한 작가 여덟 명이 모였다. 작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며 나우회 결성을 부처님께 고했다.

"흥국사는 조각승과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입니다. 불교미술의 '대학'과 같은 도량이죠. 나우회 결성

대한불교 총화종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정 전남정

부종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육원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이지수 선원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감찰부장 김정산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지도부장 김성담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김해송 울산종무원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경남중종무원장 이도언 부산종무원장 박지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유발승 회장 이지수 유발승 총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신년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바른 마음을 찾아서!

병신년 새해를 맞아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겉 모습만으로 마음대로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편견, 그리고 상대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존경하고, 서로 받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먼저 자기를 똑바로 보게 만들것입니다. 똑바로 보는 마음이 곧 자연스럽게 세상을 화합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화합이 이루어지면 평화스러움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처님의 불은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성보 못지키면 불교문화도 없어”



2012년 11월 중앙승가대서 열린 나우회 전시전에서 나우회 회원이 스님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15년 1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된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의 재현’ 전시전 개막 모습

의 의미와 잘 부합되는 도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우회 최선숙 사무국장은 흥국사에서 고불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그렇게 말했다.

성보 재현 6년, 17회 순회 전시

‘극락정토, 미타의 미소’, 2010년 10월 27일 나우회의 첫 전시가 열렸다. ‘불교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이라는 부제와 함께 서울 더케이갤러리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목각탱화를 재현한 한봉석의 ‘미타의 미소’를 비롯해 백자흙으로 조성한 백련관음, 남양주 수종사 삼화에서 발견된 청동관음보살좌상 등 다수가 전시됐다.

‘불교문화의 둘레길 만들기’는 전시회를 수도권과 아울러 지방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불교문화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첫 전시는 서울 더케이갤러리를 시작으로 영월 쾌연재미술과, 남원 선원사, 남양주 노인복지관으로 이어졌다. 남양주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시를 비롯한 시연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나우회는 ‘극락정토, 미타의 미소’ 전을 시작으로 제2회 ‘깨달음...미소’, 제3회 ‘보살, 마음을 열다’, 제4회 ‘잊혀진 문화재...또 다른 탄생’, 제5회 ‘우리 곁은 떠난 문화재의 재현’ 등 다섯 개의 제목으로 열일곱 번의 순회 전시를 개최했다.

나우회의 불교미술문화재 재현 사업은 2014년부터 해외 반출문화재로 그 영역을 넓혔다.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사회 각처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수 운동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를 위해 나우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문화재의 실견을 위해 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반출문화재를 재현한 첫 전시는 일본편으로 2014년 1월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 2014년 전통문화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의 재현’이 그것이다. 그리고 2015년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 또 다른 탄생’ 전은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했다. 2016년 전시는 미국편으로서 미국 반출문화재를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나우회는 불교미술의 전승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 불교미술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 재현 작업은 수행”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한 줄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죠.” 6년 동안 나우회를 이끌고 있는 한 회장은 늘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한 회장도 처음엔 조각을 그저 나무를 깎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깎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회장의 생각은 달라졌다. 불상을 조성하는 일이 단순히 손재주만으로 이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한 회장은 불교를 모르고 부처님을 대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생각했다. 그는 그때부터 불사는 신행이고 또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1993년 조계사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다른 작가들 역시 한 회장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부처님상을 재현하고 보살상을 재현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도 선방에 계시는 수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리고 본래자리를 찾아가는 치열한 구도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원작자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동안의 나’를 버려야 하는 공부가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정용 작가는 “재현작업은 수행이다”고 말했다. 원작자의 생각과 만나기 위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일에 정진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작자의 마음을 십분의 일이라도 보게 되는 순간이 오면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김동철 작가는 작품을 실견하지 못하고 자료만을 가지고 재현할 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국내외 성보 150 여점 재현 전시
치매 어르신 위한 전시회 열어
일본 시작으로 올해 미국서 순회전

“원작의 실물을 실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의 문화재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단체나 기관의 배려와 협조가 아직은 저희들의 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불사를 하다보면 좋은 환경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우회에 참여했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회향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한 작가들도 있다고 한다. 한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작가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우회 회원 작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미술 전승이라는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6년 동안 그들이 재현해낸 작품은 150여 점에 이른다.

문화는 힘, 우리문화 알려야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문제는 ‘환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환수운동과 함께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문화재’를, ‘문화’를 알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도 우리 문화재고 일본에 있어도 우리 것입니다. 문화의 궁극은 향유하고 전파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문화재를 자꾸 밖으로 꺼내게 해야 합니다. 자꾸 달라고만 하면 그들은 더욱 숨길 것입니다.” 김동철 작가는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현대는, 아니 앞으로는 더욱 문화가 힘이고 재산인 세상입니다. 문화가 없고 문화의 저변이 없는 민족은 다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지배는 총칼의 지배보다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정신을 지배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화를 잃지 않고 또 찾아내고 알리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숙 사무국장이 말을 이었다.

그러기에 10여 명의 회원이 모여 1년에 한번씩 작품을 만들고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전시를 이어가는 나우회의 불사는 결코 작은 불사가 아닌 것이다. 나우회의 회향불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향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고 지키는 일이 분명하다. 제2, 제3의 나우회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우회와 같은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합니다. 그 환경은 정신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현실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나 기업, 기타 단체 등 다방면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이죠.” 가섭존자상을 다듬으며 한 회장이 덧붙였다.

나우회 2016년 전시회(월정사 성보박물관 1월 예정)에는 앞서 말한 가섭존자상을 비롯해 호놀룰루 박물관 소장 당사자(한봉석 작),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여래입상(오세종 작)과 청도 용천사 조성 청허당 대사 진영(이문희 작), 관음도(박명옥 작)와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이연옥 작), 목조동자상(노정용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주광관 작) 등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전법일기

실로암과 사바하

세월의 무게감과 스스로의 자질이 부족함을 느껴가며 고뇌하던 즈음 지금의 철원에 자리잡고 있는 청성부대의 군사찰인 호국 청원사의 주지로 임명받아 포교를 하게 되었다.

관리 사찰 중에는 ‘청성 마하사’가 있다. 사단 신병교육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야말로 초짜 장병들이 처음으로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도량이다.

재미있는 점은 그렇기에 이웃 종교들과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질 좋고 기호에 맞는 간식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지루하지 않는 법회의 진행이 어우러졌을 때야말로 장병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보람과 탄식, 그리고 기대와 실망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그야말로 애증이 넘치는 도량이다.

그랬더니 한두번 듣던 장병들이 반야심경 랩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랩으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 기가 막혔다. 반야심경의 다른 부분은 웅얼거리면서 랩부분은 목청껏 부르는 것이었다.

그때 장병들을 보고 ‘이거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랩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편집했다.

“이제부터 법회할 때 이 음악을 열심히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만들어오는 법우에게 멋진 상을 줄게”

반응은 뜨거웠다. 사실 장병들이 군대라는 환경 때문에 경직돼 있지만 그 안에는 끼와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다. 흥이 많은 것도 물론이다. 그들의 취향에 제대로 꽂혔는지, 바로 다음주 법회에 한 무리의 법우들이 의기양양하게 율동을 만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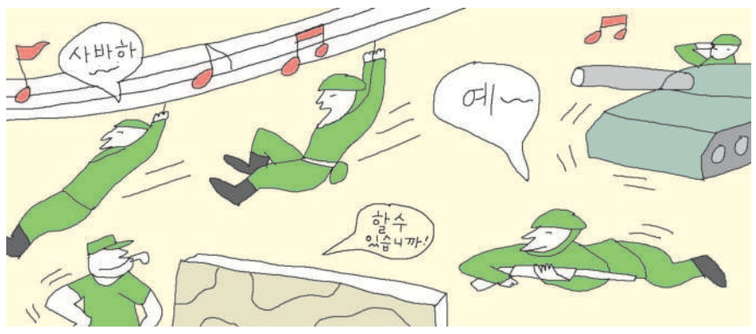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최근 청성 마하사를 찾는 장병들에게 필자는 일명 ‘사바하’ 법사님으로 불린다. ‘사바하’란 불자들이 흔히 알고있는 ‘성취’를 뜻하는 경구이다. 법당문을 들어서면 장병들은 여기 저기서 ‘사바하!’, ‘사바하!’를 외친다.

이렇게 ‘사바하’ 법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한때 인터넷에는 ‘실로암’이라는 찬송가를 떠들썩하게 부르는 장병들의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 교회에서 장병들이 합송하는 장엄한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그 영상을 보고 법당에서 장병들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화두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만이 머리 속에서 맴돌 뿐 이렇다 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때마침 종단에서 실시한 학인 염불대회에서 랩을 하는 ‘청암사’ 학인 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청성 마하사에서 염불대회에서 나온 반야심경 랩을 들려주었다.

그 영상을 보고 법당에서 장병들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화두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만이 머리 속에서 맴돌 뿐 이렇다 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때마침 종단에서 실시한 학인 염불대회에서 랩을 하는 ‘청암사’ 학인 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청성 마하사에서 염불대회에서 나온 반야심경 랩을 들려주었다.

몇 개 안되는 동작이지만 내친김에 법우들에게 알려주고 힘차게 함께하자고 시작한 것이 벌써 반년이 지나 이제는 새로 입영한 장병들에게 선배 장병들이 보란듯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잠시 ‘문화충격!’에 빠져있던 새 법우들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소리 높여 따라하고 있다.

여기에 한마디 더 얹었다.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힘들거나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할 때 ‘사바하’를 외쳐라! ‘사바하’는 ‘뜻하는 것을 이룬다’는 성취의 의미를 지닌 것이니 자신감을 갖고 사바하를 외치며 열심히 군생활하자!”

그날 이후 법당은 ‘실로암’ 영상 못지않은 열기 가득한 ‘아제아제바라아제’ 랩 향연이 펼쳐지고, 군데군데서 ‘사바하’의 외침이 가득했다. 모두가 부처님 법으로 하나가 돼 즐겁고 힘차게 생활하고 있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수행자들이여!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

나란다대학 승가학과 학인모집

세계승가회 나란다대학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진리전파를 위해
승가학과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함

• 수강과정 : 2년(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2~7시)
• 수강과목 : 붓다선수행론. 초전법륜경. 치문. 율장. 숫타니파타. 능엄경. 능단금감경. 화엄십지경.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는 개별구입)
• 입학첫강 : 2016. 3. 12(토) 오후 2시 ~ 7시
* 자세한 사항은 세계승가회 홈페이지 참고바람

승왕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
대 장 로 현지 비 서 장 싯달라
의전실장 설원 포교국장 여원
복지국장 능공 문화국장 도원
연수국장 태현 상담국장 초원
홍보국장 능가 국협국장 아미따

세 계 승 가 회
홈페이지
http://www.worldsangha.org

붓다선을 수행하라

앙굿다라니까야
깨달음의 경에서 전하고 있는
고따마가 완전한 붓다를 이루신 수행법

- 붓다선 공개특강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장소 : 견불선원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에서 750m 직진. 태평산부인과 뒤편)



대행 스님

어떠한 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에 말길 수 있어야!

… 그럼으로써 또 그것을 자꾸 그렇게 굴리다 보면 스스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뜻을, 모든 일체를 다 알게끔 돼 있습니다. 내 영혼 자체의 그 근본이 바로 내 주처의 주인공이라면, 내 옛 친구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 '나' 친구가 있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뜻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면서 뜻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에 항상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들으면 아주 그냥 절실하게 여기에 감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실히 믿고…, 저기 지금 오하이오 주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하는 총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화를 하는데 말입니다, 칼은 내 주인공, 이 중심이지마는 내리치는 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 돌을 가지고서 탁 치면 불이 반짝 오르죠? 우리가 믿는 그 마음의 속도가, 그와 같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아주 빠른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쏜살같이 불이 번쩍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이 반짝하는 그런 빠름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도 더 빠르고 이건 뭐, 빠른 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빠른 것이니까 내 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다면, 어떠한 애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맡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밖엔 해결 못해! 거기서밖엔 낫게 할 수 없어!' 경찰서에 가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어.' 어디 물건이 안 팔린다 하면 '야, 거기서밖에는 이거 팔리게 할 수 없어.' 매사 게 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기 이 중에는 부모가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에 나가는 부모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내 전구와 저 전구가 둘이 아니니까 스위치 올리면 이 전구도 켜지고 저 전구도 켜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공밖에 우리 엄마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런다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그 병이 차차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것을 믿을 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실의 삶의 자유스러운 그 불이 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산 불교, 산 사람이 지금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현실의 지금 불법입니다. 이 지금 생활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지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지옥에서 살지 않고 마음이 천당에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 머뭇머뭇하지 않고 남한테 기대고 의존하고 항상 노예 생활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당하게, 아까도 반야심경 읽었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그대로 갖다 주는 공부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네 가지의 승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승, 하나는 염불하는 부전승, 하나는 학승. 경을 보고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학승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건 선승입니다, 선승. 마음을, 마음의 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 주는 게 선승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학, 그다음에 염불, 행정 이것이 둘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죠. 그러니까 어느 승려를 보든지 똑같이 보진 마십시오. 이것이 다 과목이 있으니까. 생물학자를 갖다가 철학자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를 생물학자로 볼 수도 없고 물리학자를 갖다가 의학자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의학자를 갖다가 철학자로 볼 수도 없으니, 자기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선(禪)에서는 행정, 학술 또는 염불 이런 것이 전부 한데 합쳐진 게 바로 선승입니다, 선승. 합쳐서 하는 게 선승입니다. 또 누구나가 화두선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간화선이니 묵선이니 이런 모두를, 좌선이니 입선이니 이 모두를 한데 합친 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건, 진짜 참선이라면 우리가 말을 하고도, 금방 말을 하긴 했는데 온 데 간 데가 없죠. 벌써 돌아갔어. 과거야. 그러니 내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말 자체이기도 하지만 마음 자체다 이거야.

이날까지 여러분이 생활을 해 오셨지만 그렇게 벌써 가 버렸습니다. 여기 걸어오실 때 벌써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떼어 놓은 뒷발자국은 벌써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했다고 했습니다. 공했다.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걸어오고 살고 죽고 깨지고 변하고 이러는 게 전부 공해서 그렇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공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표현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결부시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그래도 대충은 알고 가야 합니다. '아이, 저 사람은 무슨 중이 저래?'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과목이 있으니까, 자기 맡은 과목이.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딴 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흉보지 마시고, 선승은 몰아서 둘이 아니게 하나로서 이것을 하는 공부고, 그다음에 학승은 학술로써 잘못됐다 잘됐다 경을 보고 경을 설해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아시고 우리가 승려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남을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그런 거 볼 사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타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나를 실험하고 바로 체험하려면 지금 남의 걱정 할 여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공부를 해야 그렇게 술 먹고 춤추고 그러는 중이든 중이 아니든 그것도 곧 건져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소도 건져 줄 수 있는 거고요.

일체 만물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일체 만물이 될 수 있으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린 스스로 씽긋이, 아주 추워서 손을 동동 구르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여함을 가져야 합니다. 글쎄, 저녁에 밥을 굶었는데도 걸음을 걷는데 입가에서 슬그머니 웃음이 나고, 내 마음이 맑으니까 이 천지가 다 깨끗하고 맑더라 이거야. 그런데 굶는 것도 자기가 굶는 게 아닙니다. 이 오장 육부의 중생들이 굶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 주는 내 부처를 잘 둬야 중생을 먹이지 아니, 그것도 자기 지배인이 잘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생들을 다 못 먹입니다. 부모가 벌이를 잘 못해서 만약에 망하면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고 먹이지도 잘 못하는 경우와 똑같죠.

그러니 내 중생은 지금 내 오장 육부에 있는 그 자체로서 거기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보채면 여기서 '어, 배고프구나!' 그러고 주는 거야. 허겁지겁해서 냉장고 문 열고 아무거라도 먹거든. 그것은 왜냐? 중생들이 달라니까 그런 거야. 자기라고 오산하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아니야. 자기는 집이야. 자기 중생들이 살고 있는 혹성,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을 빌리고 손을 빌리고, 귀를 빌리고 눈을 빌리고 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야. 이거 뚫어지지 않으면 이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 운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한 몸에 소장 공장, 간장 공장도 있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정말입니다. 이거 거짓으로 알아들어선 안 됩니다. 위 공장, 식도 공장 또는 아주 간단하게만 친다 하더라도 척수 공장, 척추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위 공장, 간장 공장 그 모두 이 세포 하나하나가 움죽거리는 게 지배인이 생각을 잘해 줘야 돼, 그래야 다 따라 주니까.

☞ A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감찰원장 **동일 학봉**
문화원장 **원효 동암**
교육원장 **백천 동담**
포교원장 **혜각 동성**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무관 도원**
사서실장 **동판**

기획실장 **영산 동우**
총무부장 **선법 태산**

부산교구 **동암 원효**
충남교구 **도진**
경남교구 **대비**
경기교구 **덕진 도광**

종회의장 **대공 동곡**
종회부의장 **도진 동영**
종회의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동진**

종회의장 **벽송**
장로의장 **진성**
호법원장 **벽안**
교육원장 **법산**
감사(찰)원장 **벽송**
문화원장 **자원**
포교원장 **종문**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대외협력원장 **보현**
총무부장 **벽산**
감사(찰)부장 **일현**
재무부장 **약왕보살**
사서실장 **상범**

서울교구원장 **보현**
울산교구원장 **혜운**
경북교구원장 **현담**
경남교구원장 **명각**
강원교구원장 **원광**
광주교구원장 **정인**
부산교구원장 **지익**
충북교구원장 **무운**
충남교구원장 **봉정**
대전교구원장 **천장**

종도일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남을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그런 거 볼 사이가 없습니다

☞ A29면에서 계속

그래서 몸에 어떠한 병이 들었을 때, 한 공장에서 파워가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한번 '주인공! 거기서 나온 건데 너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 하고선 주인공에 맡기면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누진 즉, 정신으로 올라가. 머리로 올라가서 사대에 그냥 전부 통신이 돼 버려요.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고장난 것을 통신으로 알아. 간장 공장이나 위 공장이 나빠졌다, 파워를 일으켰다 그러면 거기서 통신해서 전체 지배인이, 공장장들이 전부 거기를 지배하거든. 그래서 파워를 막아 줄 수 있는 까닭에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모두 포함해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이 선 공부는 의학도 들어가고 천체물리학도 들어가고 지리학도 들어가고, 천문학도 들어가고 또는 생물학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천체물리학 철학 심리학, 모두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해 보면, 거기다 놓으면 쓸 수 있는 게 거기서, 그 안에서 다 나와. 그건 왜냐? 그건 일일이 또 가르쳐 드려야지? 어저께 내가 그랬죠. 내가 아파서 주인공에 맡기면 의사가 되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면 약사가 된다 이 소립니다, 약사보살. 내가 또 가난하다면 주인공에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이대로 놔둘 순 없잖아. 네가 이끌어 줄 수밖엔 없어.' 이럴 때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내가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즉, 어떠한 과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안된다 할 때 '이대로 둘 거냐, 너?' 허허허. '야, 너 이대로 둘 거야? 이 논문 지금 써야만 네 집, 즉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 심부름을 해 주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 거기에서는 앞장서서 자기 손이 되고, 이 손이 바로 자기 주인공의 손이 돼. 나는 실험해 봤어. 나는 한문 글을 배우지 못했거든. 얼른 쉽게 말해서 무식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산 그림을 그리고 산 글을 쓰고 산 말을 해라 이거야. 죽은 말 하고 죽은 글 쓰고 죽은 그림 그리지 말라 이거지. 거기에 놓고 하니까 이 손을 내가 놀려서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손이 저절로 가, 저절로. 아주 글씨도 못 쓰는데 흘려서 잘 쓰더라고. 이것이 아니라고 보지도 못해. 그림도 그래. 모든 게 그래. 일체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공부를 해서 맛을 본 놈이나 알지 그건 모를 거야, 모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한 논문을 써서 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하는데, 반드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데는 '너는 바로 이것을 해 줘야 되잖아, 이 친구야.' 깊은 뜻으로다 그럴 때 머리에는 이 리더가 가고 손에도 거기에 전기가, 이 에너지가 보풀려서 다 나가. 열 사람의 머리를 한데 모아 놓은 거보다도 나아. 으뜸가는 사람을, 열 사람의 머리를 한데 모아 놓은 거보다 낫다 이 소리야.

나 빼놓고 더 높은 데가 어디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런 게 뭔 줄 알아? 위를 보고 아래를 딛고 나는 이렇게 찰나찰나 굴려 돌아가느니라.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다 그렇지마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석존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불심이 돈독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깨달으신 분이 발을 벗고 가시는데 이 흙이 질척질척했어. 그러니까 발에 흙이 묻을까 봐 자기 머리를 썽둥썽둥 잘라서 거기에 폈어. 그랬는데도 그 진 땅을 또 딛고 가게 되니까 자기 웃통을 벗어서 거기다 마저 깔았다 이거야. 그 공덕으로 깨달은 그 분이 "너는 이다음에 다시 몸을 받아서 태자로 태어나되 석가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로 태어나는 거야.

어저께 없는 오늘이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과거에 빚진 것이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유전성이다, 세균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응보다, 업보다, 이 두루마리로 자꾸자꾸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줏돈도 함부로 내가 감추고 감추고 그래서 모으고 이런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구렁이가 돼서 비늘마다 신도들이 끼어 있어. 허허허. 그래서 내 돈 달라고, 내 거, "너, 내 돈 먹고선 그렇게 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러는 법이야.

그러게 양심이 부처라 그랬잖아. 잠시 잠깐 오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생각과 헛된 행을 그렇게 한만히 저지른다는 건 말도 안 돼. 속세의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럴지 모르지마는 중이라면 벌써 동기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각오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승려로, 비구니 비구로 탁 나설 때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못 나서는 거야. 또 비구 비구니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부설 거사와 유마힐 거사 봤지? 부처님하고도 동등하게 한마음으로 그냥 뭉쳐서 모든 밭에 씨를 뿌렸다는 그 사실을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저 불가항력이라. 잠시 잠깐 살다가 잠시 잠깐 보이지 않았다가, 요다음 생에 또다시 내가 자식 속에서 나와서 또 자식이 될지 몰라. 허허허. 그 대에 손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부모인데.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뭐 질문하래 놓고선 그냥 자기가 다 말하네. 글쎄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셨는데 요만한 상자를 딱 봉해서 유물로다가 놓고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며느리를 볼 때 대대손손으로 이거를 내려라. 9대까지 내려라. 9대까지 내리면 9대 손자에서 죽게 됐을 때 이거를 펴 보면 알 수 있느니라. 9대 손자까지 물려서 만약에 죽을 때가 되면 그 보물상자를 원님에게 갖다 드리면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9대조 손자가 그 할아버지야. 아시겠습니까?

그 9대조 손자가 죽게 됐어. 9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뭘 잘못했느냐 하면, 이렇게 노인네들이 계시면 발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하려고 발을 쳤는데 아, 이놈의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과실을 따 먹고 있거든,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가 올라가서 그러느냐?" 그러고선 발을 이렇게 쳐드는데 놀래 가지고 그 애가 떨어져서 죽었거든. 그것이 업이 된 겁니다, 죄업이. 그래 그 할아버지가 9대조에 가서 태어날 때에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목숨이 달아나가게 생길 그런 위협이 닥칠 때를 생각하고선 자기가 써 놓은 겁니다, 자기가 알고. 이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서 죽인 게 아닌데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9대 손자가 그 상자를 받았는데 그만 죽게 되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원님한테 갔단 말이야. 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누가 왔느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9대조의 손자라고 그러니까 "아, 그 할아버지!" 하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뛰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맨발로 뛰어 내려오자 대들보가 내려앉아서 원님 앉은 자리를 그냥 덮친 겁니다. 그러니 이 손자가 원님을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원님이 턱 보니까 "자네를 살렸으니 나도 살려 주게." 이렇게 돼 있어. 우리 9대 손자를 살려 달라 이거야. 인제 얼른 쉽게 말해서 살려 줘라 이거지. 지금 9대 손자가 바로 나니라 이거야. 너를 살려 줬으니까 나도 살려라 이거지. 그것도 똑같은 누명을 썼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누명을 쓴 거지만 그 할아버지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그걸 받은 거고, 이 사람도 그렇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누명을 쓴 거라고. 그래서 그 원님이 죄목을 다 생생히 밝혀서 바로 무죄로 석방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한테다 뒤집어씌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을 그냥 못살게 만들어서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저 모든 것에 남의 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만약에 소가 말입니다, 언덕이 있음으로써 가다가 언덕에다 비비지, 언덕이 없었더라면 뭣 때문에 소가 가다가 비비겠소?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아,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부딪쳐요? 그러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거죠. 그러면 복이 오고 공덕을 받을 수 있느니라.

기껏 그냥 말씀하라고 해 놓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들 하세요.

질문자1(남) 그러니까 인제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 영혼이?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또 태어난다 그 말씀이죠?

큰스님 예. 죽어서도 그 의식이 그냥 있어서 자기가 갈 자리를 못 가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의식이 그래서 자기가 뱃지를 못 달고 그냥 못 들어가죠, 백이 없으니까. 그 의식만 가졌으니까.

그런데 주인공이다 하는 건 과거에 살던 것이 다 입력된 컴퓨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수없는 마음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숙명통에 수많은 입력이, 과거에 살던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는 게 전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수십억 마리의 의식 자체가 벌써 입력이 돼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를 갖다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 소리죠. 그럼으로써 물질화된 의식이 다 그냥, 과거의 어리석은 생각, 습으로 인해서 관념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 의식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선명하게, 자기가 당당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참자기의 그것이 탁 나와서 이 모든 거를 자기가 한 생각이면 지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참 얼마나 묘한 도린지 모릅니다. 이 부처님 도리? 부처님 도리라는 뜻은 깨달은 사람의 도리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기 스님이, 즉 입산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입산하기 전에 이 도리를 수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있을 당시에 참…. (녹음 안됨) 이 스님한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인공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게 말갛게 씻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고 자꾸자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여기 스님이 그것을 들으면 바로 쏜살같이 나한테도 알려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줄에 꿴 염주가, 한 염주 알이 어찌 딱딱딱딱 신호가 안 오겠습니까. 하하하. 이걸 돌리는데, 허허.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앞으로는 공부들 잘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저께보다도 상당히 잘 받아들이네요. 저한테 음파가, 제가 말을 하면 음파가 내 앞으로 그냥 튀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파를 집어먹지 못하면 나한테로 다시 튀어오거든요. 참, 그 도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한 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12월 23일 알래스카 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부딪쳐요?
그러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라,
그러면 복이 오고 공덕을 받을 수 있느니라.

파동 의류 고기능성 승복·법복 生金綪 생금천

"생금천"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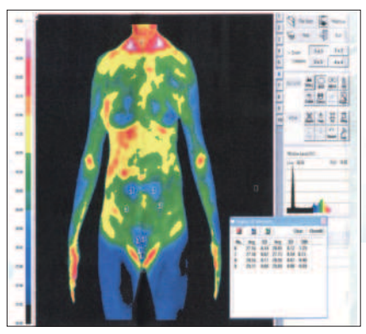
1. 생금천은 "실리케이트(Si)"로 PU(폴리우레탄) 코팅한 보온 기능성 의류입니다.
2. 생금천은 보온 기능성 의류로서 착용시 체온이 2~3℃ 올라 갈 수 있으며 혈행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3. 본 제품은 수면시 모자를 착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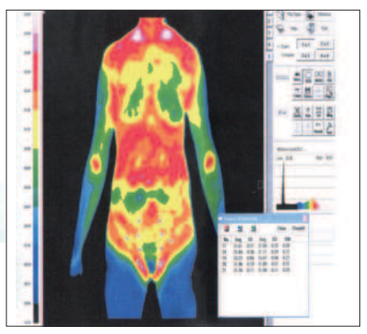
*처음 3개월간은 24시간 착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금천"의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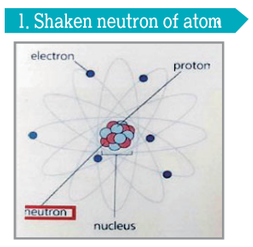
1. 본 제품은 세탁시 일반세제로 손세탁 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헹군후 그늘에서 건조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햇볕에 건조시 경화 현상으로 훼손 될 수 있습니다.
2. 본 제품은 열에 약하므로 45℃이상 온수 또는 화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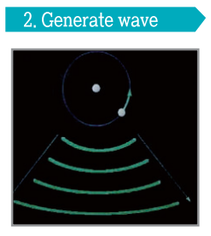
적외선 체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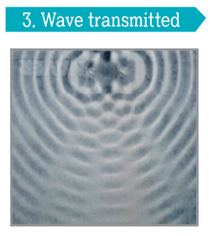

▲일반 의류 착용 후


▲생금천 착용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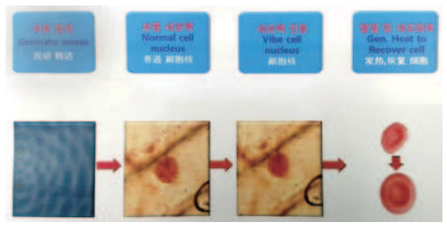
양자 역학 근거 기능 이론 Scientific functional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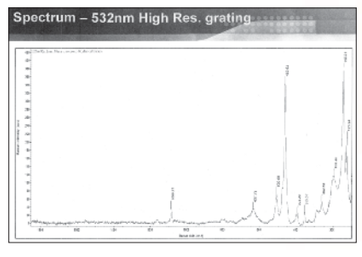
인체에 적용 되는 방식 Apply to human body



생금천 시험성적서



실리케이트 파동분석 그래프



추천공양

생물은 적응변화하여 자연선택속에 존재발전합니다.
새로운 변화선택을 못하면 본래수명데로 살게되고, 좀 더 나은것을 선택한다면, 새로움을 가지고 좋아질 겁니다.
소금을 지고 먼길을 온 사람들이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면 소금지고 온 것이 아까워 그냥지고 가는 사람이 혹시 있고, 순간적으로 소금을 버리고 금덩어리만 지고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금천은 가시광선 430-460mm가 1m의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 파동이 항상 가볍게 운동하는 것과 같아서 수명장수에 좋은 것입니다.
대원력을 가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이 착복하시면 끝없는 큰 원력이 환희 성취하는데 조도가 될 것입니다.

생금천을 입어본 一空 합장

生金綪 생금천 053)567-6655